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7-02

협동연구 2007-01-2

산업 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

주 현 의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발간사

경제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부문간, 계층간, 집단간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감지되었고, 그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었다. 그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특히 양극화와 관련된 분야별 연구 성과는 빠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따로 떼어 놓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접근만으로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2006년 각 출연연구기관별로 진행되었던 양극화 관련 연구가 2007년에는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른 관련 연구원의 협력 하에 3년에 걸친 협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내용상의 진전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 그 1차 년도의 연구 성과로써 1권의 총괄보고서와 5권의 부문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양극화 개념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정의와 이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을 주로 나열하던 기존의 경향에서 더 나아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양극화의 결과가 나타나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분석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이 고용에, 고용이 소득분배에, 소득분배가 소비와 재생산에 미치는 연관효과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관관계의 탐색에 협동연구는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전체 협동연구의 진행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이 담당(총괄, 4권)하였고 각 영역의 연구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주현 연구위원(2권)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윤규 연구위원(3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성식 연구위원(5권)이 분야별 책임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6권)에는 많은 해외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이강국 교수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이들 책임연구진들과 그 밖의 모든 참여연구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

물론 협동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일 뿐 우리 연구원이나 기타 협동연구기관이 공식적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참여 연구진들의 노력과 성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3년차 연구에서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제1장 서론(주현)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산업 간 양극화(주현)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10
제3절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	19
제4절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	29
제5절 소결	44
제3장 기업 간 양극화(주현)	49
제1절 머리말	49
제2절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관계	52
제3절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61
제4절 대·중소기업 수익성 격차	66
제5절 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2
제6절 소결	87

제4장 양극화와 중요소생산성(하봉찬)	97
제1절 중요소생산성의 의미	97
제2절 산업 간 양극화와 중요소생산성	105
제3절 기업규모별 중요소생산성	118
제4절 양극화와 생산성	126
제5장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강두용)	129
제1절 서 - 한중 교역에 주목하는 이유	129
제2절 분석 방법	132
제3절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139
제4절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	144
제5절 한중 교역이 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149
제6절 소결	162
제6장 결론(주현)	168
참고문헌	173

표 목 차

〈표 2-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의 증분류 부호	8
〈표 2-2〉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업종 구분	9
〈표 2-3〉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업종 구분	9
〈표 2-4〉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업종 구분	9
〈표 2-5〉 제조업 업종별 수출비율의 변화	31
〈표 2-6〉 2006년 제조업 업종별 수출비율	33
〈표 3-1〉 전 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54
〈표 3-2〉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추이	55
〈표 3-3〉 대·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기간별 증가율(1992~2005)	63
〈표 3-4〉 제조업의 규모별·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1992~2005)	65
〈표 3-5〉 제조업 종사자 수 기간별 변화율(1992~2005)	73
〈표 3-6〉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변화(월평균 급여총액)	75
〈표 3-7〉 제조업 유형자산 기간별 변화율(1992~2005)	79
〈표 3-8〉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82
〈표 3-9〉 납품단가 변화에 대한 만족도(2006년)	86
〈표 4-1〉 제조업 산업분류	100
〈표 4-2〉 산출기여율의 변화	103
〈표 4-3〉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추이	106
〈표 4-4〉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분류	109
〈표 4-5〉 산출기여율의 변화	113

〈표 4-6〉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산업분류	114
〈표 4-7〉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업종군의 비중변화	115
〈표 4-8〉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16
〈표 4-9〉 수출비율 변화에 따른 산출기여율 변화	117
〈표 4-10〉 제조업 기업분포의 추정	119
〈표 4-11〉 기업규모별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24
〈표 4-12〉 기업규모별 산출기여율	125
〈표 5-1〉 분석대상산업의 무역통계 및 생산통계 분류	135
〈표 5-2〉 2000년 이후의 대중국 교역액 추이	140
〈표 5-3〉 산업군별 한중 교역구조	142
〈표 5-4〉 세부산업별 대중 교역구조	143
〈표 5-5〉 한중 교역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145
〈표 5-6〉 산업군별 한중 교역의 부가가치 유발 추이	145
〈표 5-7〉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성장기여	147
〈표 5-8〉 한중 교역과 업종별 성장률의 분산	152
〈표 5-9〉 한중 교역과 양극화 지수(제조업 20개 업종 대상)	154
〈표 5-10〉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격차 ..	157
〈표 5-11〉 한중 교역과 대·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	161

그림 목차

[그림 2- 1]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비중	11
[그림 2- 2]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노동생산성	15
[그림 2- 3]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유형자산	15
[그림 2- 4]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노동장비율	16
[그림 2- 5]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1인당 급여액	16
[그림 2- 6]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이익률	18
[그림 2- 7]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21
[그림 2- 8]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노동생산성	25
[그림 2- 9]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유형자산	25
[그림 2-10]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노동장비율	26
[그림 2-11]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1인당 급여액	26
[그림 2-12]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이익률	28
[그림 2-13] 제조업 수출비율의 변화 추이	32
[그림 2-14]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비중	35
[그림 2-15]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	38
[그림 2-16]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유형자산	38
[그림 2-17]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노동장비율	39
[그림 2-18]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	39
[그림 2-19] 내수산업 및 수출산업의 이익률	42
[그림 2-20]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의 이익률	43
[그림 3- 1]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	53

[그림 3- 2]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변화	56
[그림 3- 3]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	56
[그림 3- 4] 중소기업 중 하도급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	58
[그림 3- 5] 제조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의존도	60
[그림 3- 6]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	60
[그림 3- 7]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대기업=100) ..	62
[그림 3- 8]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64
[그림 3- 9]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대기업=100) ..	66
[그림 3-10] 대·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67
[그림 3-11] 대·중소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69
[그림 3-12]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70
[그림 3-13]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71
[그림 3-14]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율(1992~2005)	73
[그림 3-15]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 변화 추이	76
[그림 3-16] 중소 제조업의 설비투자 추이(1992~2006)	77
[그림 3-17] 제조업 유형자산 변화율(1992~2005)	78
[그림 3-18]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 변화추이	81
[그림 3-19]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 추이	83
[그림 3-20]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액 추이	84
[그림 3-21]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92
[그림 4- 1] 노동생산성 추이	102
[그림 4-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02
[그림 4- 3] 자본 및 노동투입 증가율 추이	104
[그림 4- 4] 노동장비율 추이	105
[그림 4- 5] 산출과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107

[그림 4-6] 경공업의 산출과 생산요소 추이	110
[그림 4-7] 노동생산성 추이	110
[그림 4-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12
[그림 4-9] 노동장비율의 추이	113
[그림 4-10]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추이	116
[그림 4-11] 제조업의 기업분포의 변화	119
[그림 4-1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120
[그림 4-13]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21
[그림 4-1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 (대기업=1)	122
[그림 4-15]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23
[그림 4-16] 기업규모별 노동투입증가율	125
[그림 5-1] 한중 교역의 추이	139
[그림 5-2] 한중 교역의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2000~06년 평균)	148
[그림 5-3] 한중 교역의 업종별 성장기여도 (2000~06년 평균)	149
[그림 5-4] 산업별 성장률과 대중 교역 성장기여도의 분포	150
[그림 5-5] 4대 산업군의 실제 성장률과 한중 교역 효과 배제시 성장률 비교	151
[그림 5-6] 대·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노동소득 분배율 격차 추이	161
[그림 6-1] 본 보고서의 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 구조	17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 부문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 양극화를 유발하는 충격으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숙단계로의 진입, 세계화에 따른 무역 확대, 기술 진보 및 제도 변화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들 들 수 있다. 이러한 충격들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차이들, 예컨대, 산업 및 기업들의 기술 수준 및 규모 차이, 근로자들의 적응 능력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반응함에 있어 선도 부문의 성과가 낙후 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는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¹⁾

본 보고서는 산업 양극화 현상을 산업 간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산업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관점이 상이하며, 산업 양극

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p. 32.

화가 다른 부문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형편이다.

산업 양극화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양극화는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격차 확대가 지속되어야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논자마다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장기적인 경향은 아니라도 상당한 시기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거나 혹은 격차 확대의 요인이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이 될 경우에 양극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격차의 확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양극화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드러난 산업 양극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산업 양극화 문제를 크게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라는 양 개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는 서로 상이한 차원의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산업 간 양극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 간 양극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제조업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산업 간 격차의 문제를 논의한다. 경공업/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 등의 구분에 의거하여 산업 간 성과의 격차

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확대되는지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 기업 간 양극화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격차가 확대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은 제2장 및 제3장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생산성을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산업 간 및 기업 간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확대되는지 검토한다.

제5장은 한중 교역이 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산업 양극화를 혹은 산업의 다양한 구성요소간 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외부 경제적 요인이다. 최근의 한중 교역의 증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교역의 확대가 산업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2장 산업 간 양극화

제1절 머리말

1. 산업 간 양극화의 기존 논의

산업양극화는 흔히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의 두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 간 양극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산업을 2~3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경우 특정 산업집단으로의 쏠림 현상에 주목한다. 산업의 구분은 제조업/서비스업, IT산업/비IT산업, 경공업/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내수산업/수출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05년 현재 GDP의 56%, 고용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나 증가율이 낮은 현상을 지칭한다.²⁾ IT산업/비IT산업의 양극화는 1990년대 이후 IT부문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비IT부문과의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한다.³⁾

본고에서는 제조업 내에서의 산업 간 양극화 문제로 국한하여 검토하려

2) 김현정, “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2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이홍직, 장준영, “산업간 생산성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7. 7.

3) 민희철, “IT부문과 비IT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대책”,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김정언 외, 『IT산업의 양극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 06-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고 한다. 제조업 내 산업 간 양극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김인철·민성환(2003)은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제조업 분야 양극화 현상을 가장 먼저 검토한 연구의 하나이다.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까지의 통계에 기반하여 제조업 내에서의 다양한 측면을 점검하고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공업과 중공업의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공업의 경우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의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 양극화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공업과 중공업의 양극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과 배분이 정부와 시장에 의해 장기간 중공업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두 부문 간 양극화는 경제발전 전략과 단계상 일정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990년대 들어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초 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 생활관련형 산업의 경우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어 이들 두 산업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점, 낮아진 생산성이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 큰 폭의 무역적자를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기업-중공업-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연계와 중소기업-경공업-생활관련형 산업의 연계를 볼 때, 기업규모별, 산업형태별 산업

4) 김인철·민성환,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3.

분류는 제조업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공업과 중공업, 생활관련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양극화가 오랜 기간 정책 또는 시장의 왜곡에 의한 산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양극화 이면에 어떤 사회적·강제적 비용이 존재하는지도 불명확하다.

결국 김인철·민성환(200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공업, 그리고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산업 등 어떤 기업이 어떤 부문에 속해 있는가와 관계없이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산업, 무역구조를 재편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부문별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따라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생활관련형 산업에서 가공조립형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외 경쟁력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공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성장이 빨랐던 1990년대의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제조업의 양극화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2004)은 양극화 현상이 산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향간의 지적을 반영하여 산업 분야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⁵⁾ 조영삼(2005)은 제조업 내에서 표준산업분류 산업세세분류 기준의 통계 분석을 통해 성장형 업종과 불황형 업종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였다.⁶⁾

그밖에 외국의 양극화 현상을 검토한 연구로서, 김홍종 외(2005)는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내수/수출 양극화 사례로서는 독일을 살펴보고 있다. 독일의 내수/수출 양극화는 200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p. 32.

6) 조영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구조 고도화 방안』, 정책자료 2005-23, 산업연구원, 2005.

1~05년 기간 중 독일 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위축, 정부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⁷⁾

2. 산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제조업(KSIC D)에는 23개의 산업중분류 업종(KSIC 15~37)이 있다(<표 2-1> 참조). 본고에서 제조업 내의 다양한 업종을 그 특성에 따라 2~3개 업종군으로 구분하여 분석단위로 삼고자 한다. 분석단위가 될 제조업 업종군은 1) 경공업, 중화학공업, 2)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산업, 3) 내수제조업, 수출제조업 등이다. 각 업종군의 구체적인 포괄 범위는 <표 2-2>, <표 2-3> 및 <표 2-4>에 나타나 있다.

7) 김홍중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정책자료 0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표 2-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의 중분류 부호

분류 번호	산 업 중 분 류	분류 번호	산 업 중 분 류
15	음·식료품	27	제1차 금속
16	담배	28	조립금속제품
17	섬유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19	가죽, 가방 및 신발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20	목재 및 나무 제품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5	기타 운송장비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36	가구 및 기타 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7	재생용 가공원료
26	비금속 광물제품		

자료: 통계청

양극화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는 제조업 내 산업 비중, 생산성 및 수익성을 이용하였다. 제조업 내 산업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추세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생산성 및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격차가 확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장에서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로는, 산업의 비중 및 생산성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통계조사의 1991~2005년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 제외), 급여액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수익성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매년 조사하는 기업경영분석의 1990~2006년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표 2-2〉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업종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번호
경공업	15~20, 22, 25, 36, 372
중화학공업	21, 23, 24, 26~35, 371

주: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 생산업'(KSIC 371)은 중화학공업,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 생산업'(KSIC 372)는 경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KSIC 37) 전체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기도 함. 예컨대, 한국은행, 『2006년 기업경영분석』, 2007, p.28.

자료: 통계청,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 2007. 10 등.

〈표 2-3〉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업종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번호
생활관련형	15, 16, 18, 19, 22, 36
기초소재형	17, 20, 21, 23~27, 37
가공조립형	28~35

자료: 한국은행, 『2006년 기업경영분석』, 2007 등.

〈표 2-4〉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업종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번호
내수제조업	15, 16, 18~28, 31, 36, 37
수출제조업	17, 29, 30, 32-35

주: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평균 수출비율(=수출액÷산출액) 이상인 업종을 수출제조업, 미만인 업종을 내수제조업으로 구분함.

제2절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1. 산업 비중

경제개발 과정을 통해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산업에서 경공업의 비중은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경공업은 평균적인 사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1991년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혹은 종사자 기준으로 볼 때 절반 정도(51.0%, 49.0%)는 되었지만, 생산액 혹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1991년에 이미 1/3(31.7%, 33.9%) 수준에 불과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경공업의 경제적 비중은 더욱 위축되었고 그 비중을 중화학공업이 대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공업의 경우 1991년 51.0%에서 2005년에는 43.9%로 감소하였고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1년 49.0%에서 2005년 56.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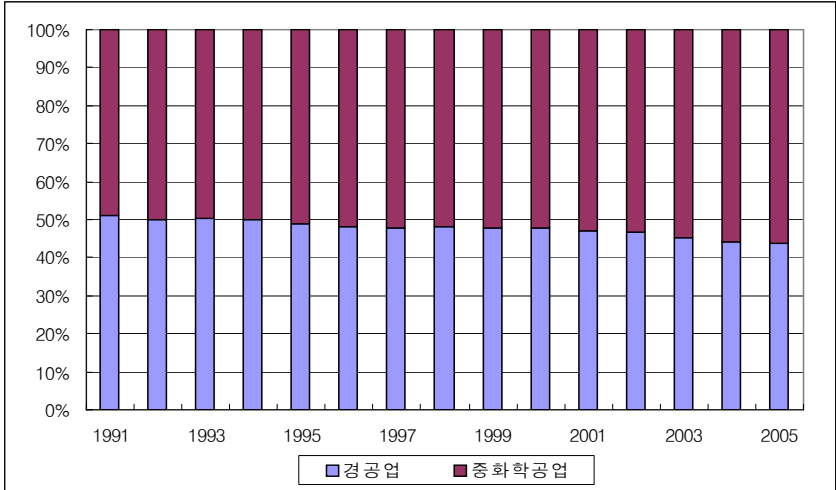
사업체 수보다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비중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종사자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공업의 경우 1991년 45.1%에서 2005년에는 31.6%로 감소하였고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1년 54.9%에서 68.4%로 증가하였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경공업의 경우 1991년 31.7%에서 2005년에는 18.4%로 감소하였고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1년 68.3%에서 81.6%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경공업의 경우 1991년 33.9%에서 2005년에는 20.9%로 감소하였고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1년 66.1%에서 79.1%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제조업 내 비중 변화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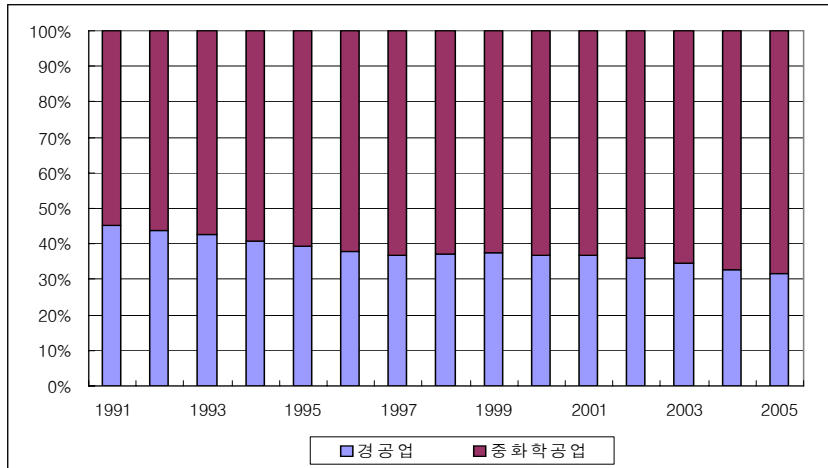
[그림 2-1]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비중

가.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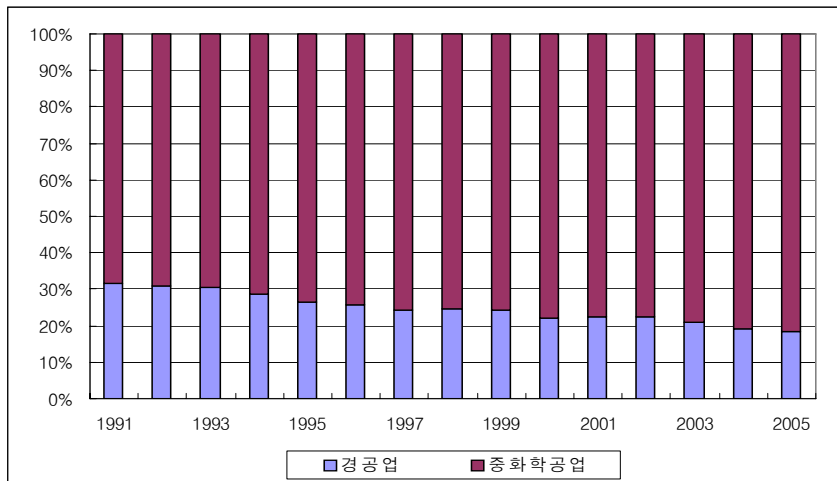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나.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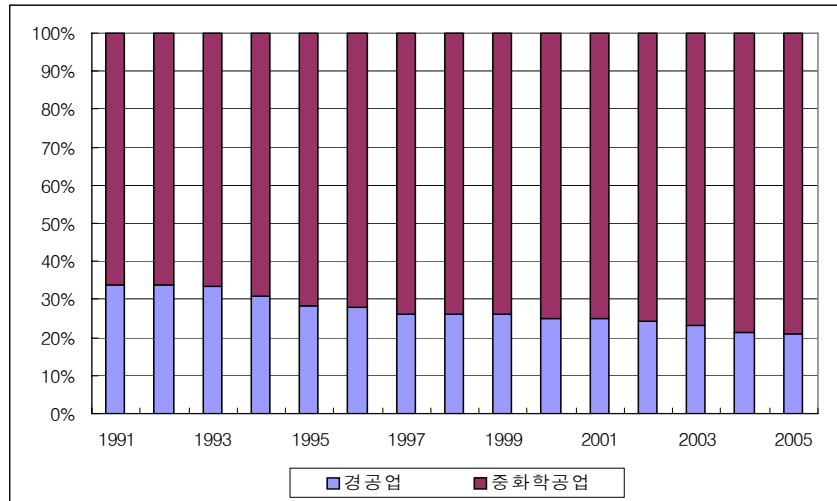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다. 생산액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라.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2. 생산성

1991~2005년 기간 중 노동생산성을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공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중화학공업에서 노동생산성보다 줄곧 더 낮았다. 또한 동 기간 중 노동생산성이 경공업은 2.45배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은 2.67배 증가하여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높았다. 그 결과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미세하나마 확대되어 왔다.

노동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자산의 경우 1991~2005년 기간 중 경상가격 기준으로 경공업은 2.09배, 중화학공업은 3.65배 증가했으며,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경공업은 1.23배, 중화학공업은 2.14배 증가했다. 다만, 2002~2004년에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유형자산 절대규모가 경공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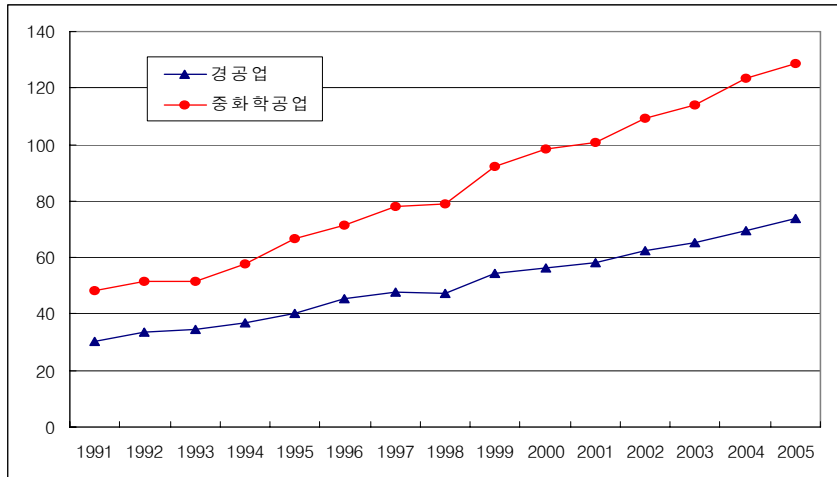
화학공업 공히 감소하였다.

노동장비율(=1인당 유형자산)은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 더 높다. 노동장비율의 변화율 측면에서는 1991~2005년 기간 중 불변가격 기준으로 경공업이 1.79배, 중화학공업이 1.75배 증가하여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동 기간 중 유형자산의 증가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경공업의 경우 감소하였고(특히, 1998년 이전까지) 중화학공업의 경우 증가하였기(특히, 1999년 이후부터)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1998년까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노동장비율 격차는 확대되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모두 노동장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노동장비율 하락이 두드러져서 양자 간 노동장비율 격차는 축소되었다. 1999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노동장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유형자산은 정체되었으나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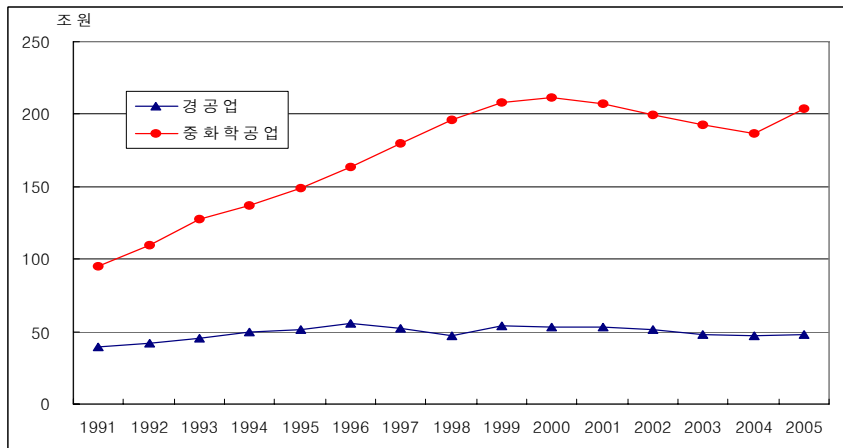
한편, 1인당 급여액의 경우 경공업이 중화학공업에서보다 더 낮았으며, 1991~2005년 기간 중 경공업은 2.88배, 중화학공업은 3.11배 증가(경상가격 기준)하여 양자 간 1인당 급여액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2-2]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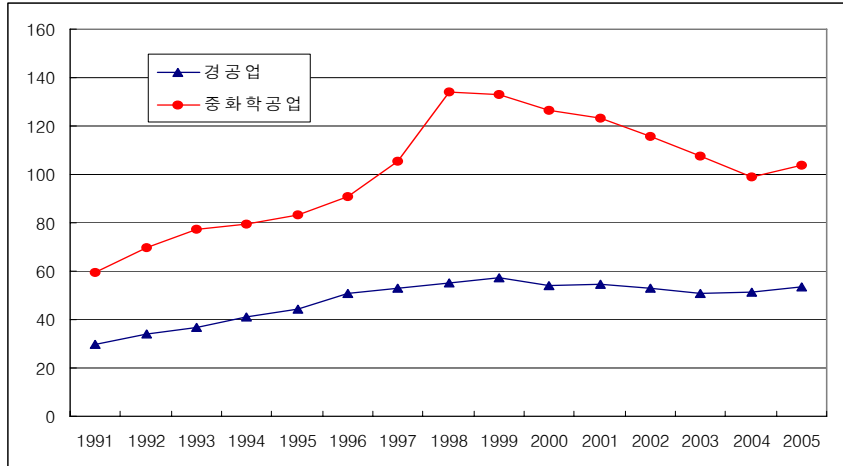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3]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유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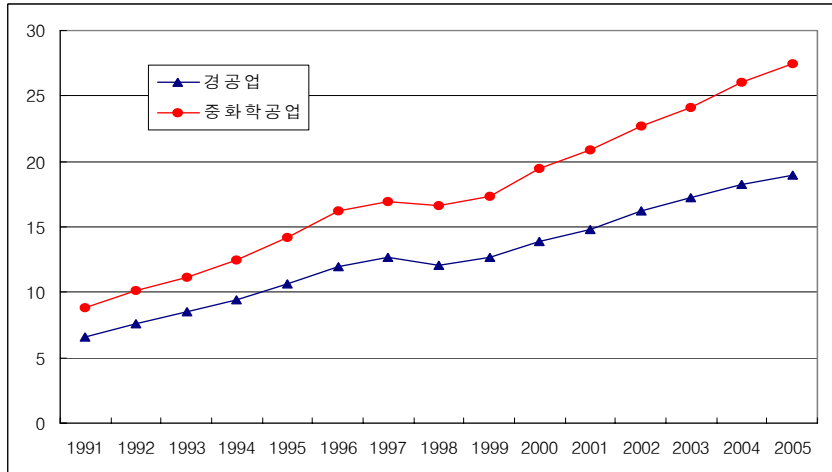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4]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노동장비율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5]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1인당 급여액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3. 수익성

1990~2006년 기간 중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수익성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을 통해 살펴보면 중화학공업의 수익성이 경공업의 수익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경공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중화학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거의 매년 낮았으며, 2001년 한 해만 경공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중화학공업보다 높았다. 지난 17년 간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이 경공업의 경우 5.28%, 중화학공업이 7.35%로서 양자 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는 2.07%포인트였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가 2.07%포인트보다 컸던 기간은 1993~97년, 2000년, 2003~2004년이였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 경공업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중화학 매출액경상이익률보다 거의 매년 낮았으며, 2000~2001년의 두 해만 경공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중화학공업보다 높았다. 지난 17년 간 각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이 경공업의 경우 1.41%, 중화학공업이 3.05%로서 양자 간 평균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는 1.64%포인트였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가 1.64%포인트보다 컸던 기간은 1993~96년, 1999년, 2002~2005년이였다. 2004년에는 양자 간 매출액경상이익률 차이가 5.71%포인트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특이한 점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가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2년 이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보다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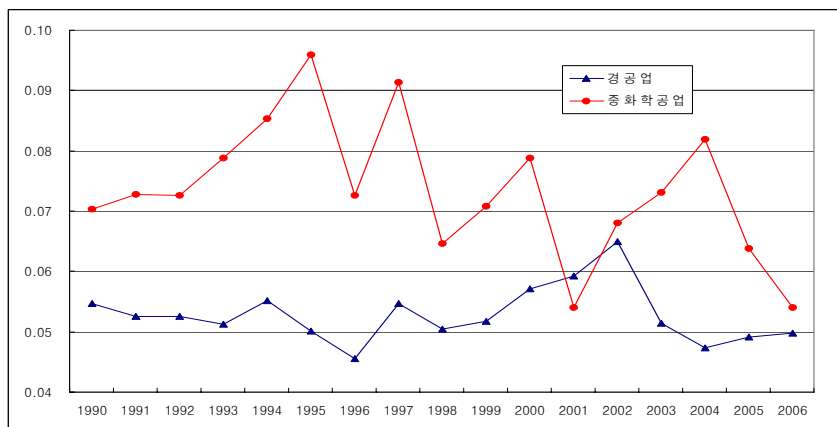
이익률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경기 변동에

조용하는 변화 추이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3년 및 2004년에는 경공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중화학공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양자 간 변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보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변화 추세가 더욱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990년에는 변화 방향이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예외적으로 양자 간 움직임에 차이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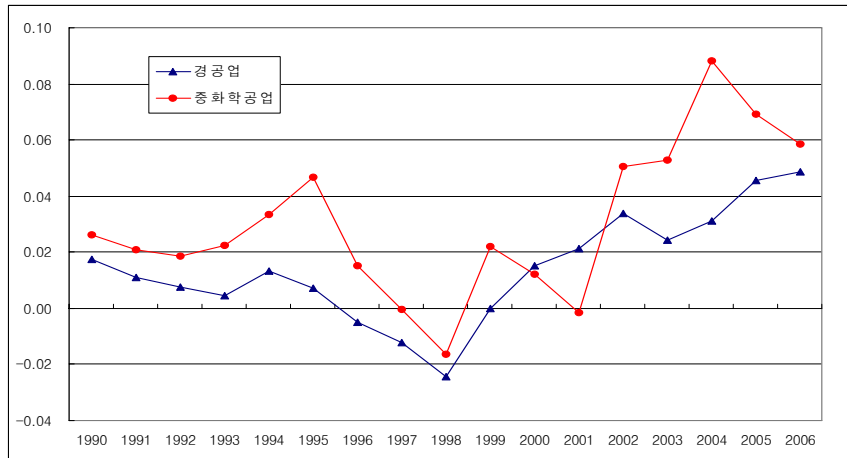
[그림 2-6]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이익률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나. 매출액경상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제3절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

1. 산업 비중

제조업을 생활관련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사업체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는 생활관련형 산업 31.2%, 기초소재형 산업 34.3%, 가공조립형 산업 34.4%로 거의 비슷하였는데, 2005년에는 생활관련형 산업 26.6%, 기초소재형 산업 29.7%, 가공조립형 산업 43.7%로 변화하였다. 즉, 생활관련형 산업 및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종사자,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유사한 비중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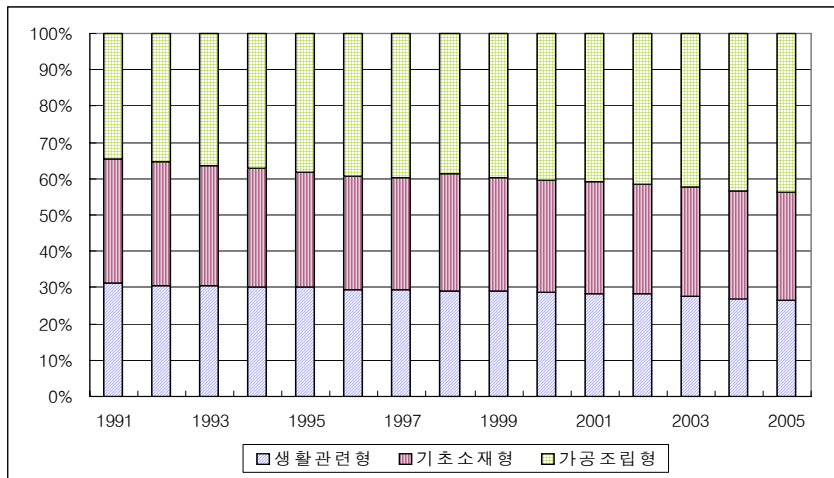
종사자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사업체 기준의 경우와 동일한 방향이지만 그 변화 폭은 더 컸다. 즉, 종사자 기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생활관련형 산업 27.6%, 기초소재형 산업 33.8%, 가공조립형 38.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생활관련형 산업 18.0%, 기초소재형 산업 27.9%, 가공립형 54.1%로 산업군별 격차가 매우 커졌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생활관련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각각 19.9%, 41.5%, 38.6%였는데, 2005년에는 각각 10.8%, 38.6%, 50.6%로 변화하였다.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생활관련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각각 22.0%, 39.9%, 38.1%였는데, 2005년에는 각각 12.9%, 33.6%, 53.5%로 변화하였다.

1991~2005년 기간 중 제조업 내 비중 변화를 요약하면, 생활관련형 산업과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공업/중화학공업의 비중 변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변화 추세 역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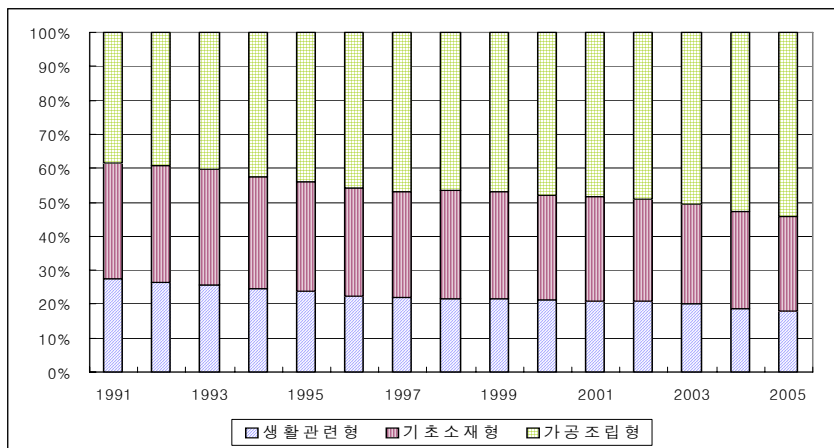
[그림 2-7]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가.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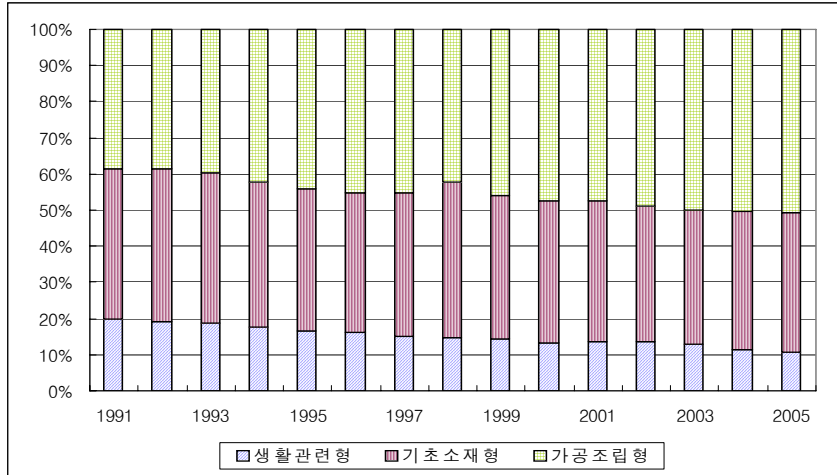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나.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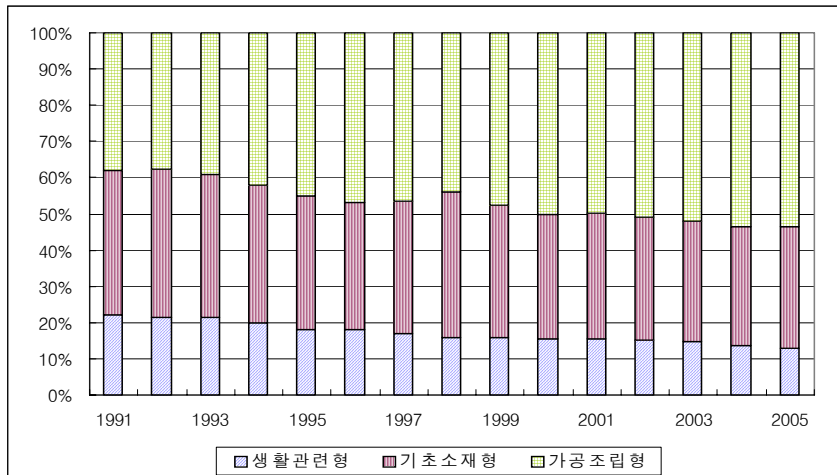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다. 생산액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라.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2. 생산성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을 살펴보면, 1991~2005년 기간 중 계속해서 기초소재형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공소재형 산업이었으며, 생활관련형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았다.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1991~2005년 기간 중 생활관련형 산업은 2.50배, 기초소재형 산업은 2.84배, 가공조립형 산업은 2.79배 각각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기초소재형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이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이어지는 노동생산성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

1991~2005년 기간 중 유형자산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생활관련형 산업이 2.23배, 기초소재형 산업이 2.50배, 가공조립형 산업이 4.65배 증가했으며,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생활관련형 산업이 1.31배, 기초소재형 산업이 1.47배, 가공조립형 산업이 2.7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2~2004년에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 공히 불변가격 기준 유형자산 절대규모가 대체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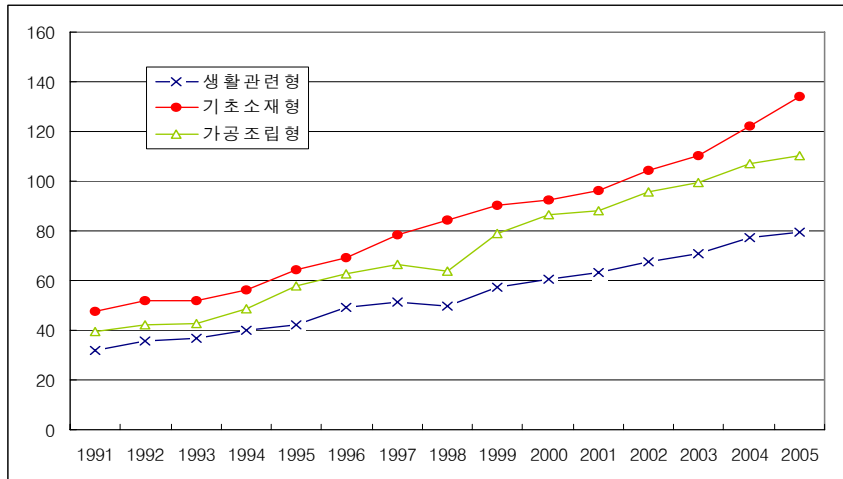
노동장비율은 1991~2005년 기간 중 줄곧 기초소재형 산업에서 가장 높고, 가공조립형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이 가장 낮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노동장비율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1991~2005년 기간 중 생활관련형 산업이 2.05배, 기초소재형 산업이 1.81배, 가공조립형 산업이 1.98배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보았지만 노동장비율의 절대적 수준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노동장비율의 상대적 격차는 동 기간 중 축소되었다. 유형자산의 증가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노동장비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은, 유형자산 증가율의

차이가 그에 상응하는 종사자 증가율의 차이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는 1998년까지는 노동장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였다면, 1999년 이후에는 노동장비율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에서 노동장비율 하락이 현저함에 따라 노동장비율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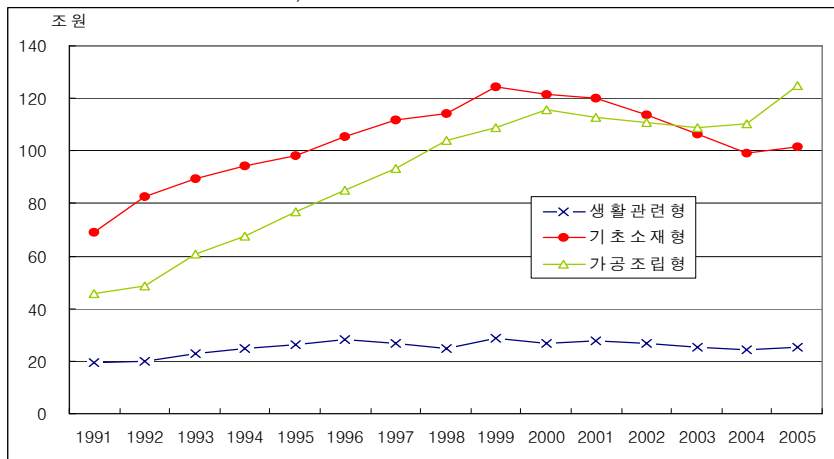
한편, 1인당 급여액의 경우 가공조립형에서 가장 높았고, 기초소재형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에서 가장 낮았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1~2005년 기간 중 생활관련형 산업은 2.87배, 기초소재형 산업은 3.05배, 가공조립형 산업은 3.14배 1인당 급여액이 각각 증가하였다.

[그림 2-8]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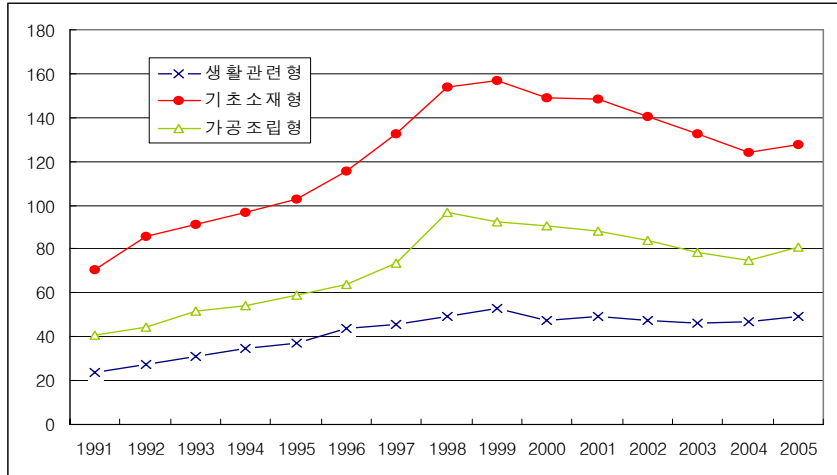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9]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유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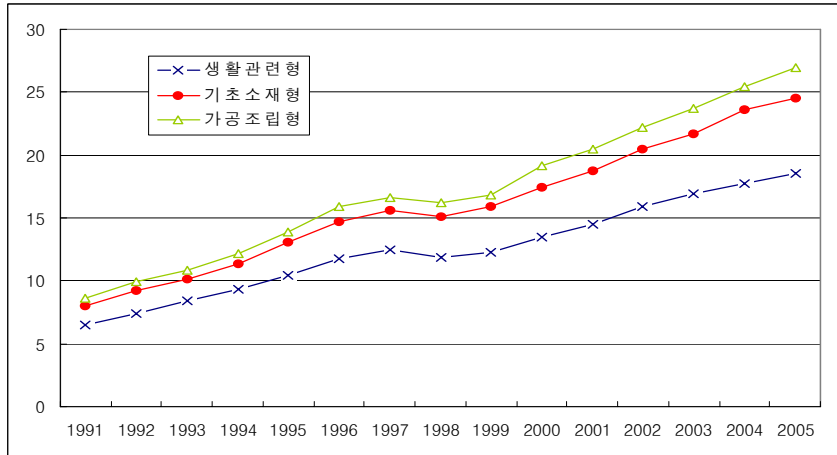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10]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노동장비율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11]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1인당 급여액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3. 수익성

1990~2006년 기간 중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수익성을 살펴본 결과, 경공업의 수익성이 중화학공업의 수익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생활관련형 산업의 수익성이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수익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기초소재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생활관련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매년 높았으며, 가공조립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0년대에는 생활관련형 산업보다 매년 높았으나 2000년대에는 높은 기간도 있었고 낮은 기간도 있었다. 지난 17년 간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기초소재형 산업이 7.31%로 가장 높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6.94%로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이 5.33%로 가장 낮았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 기초소재형 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생활관련형 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보다 거의 매년 높았으며, 가공조립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생활관련형 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보다 높은 기간이 많았다. 지난 17년간 각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기초소재형 산업이 3.04%로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2.55%로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이 1.98%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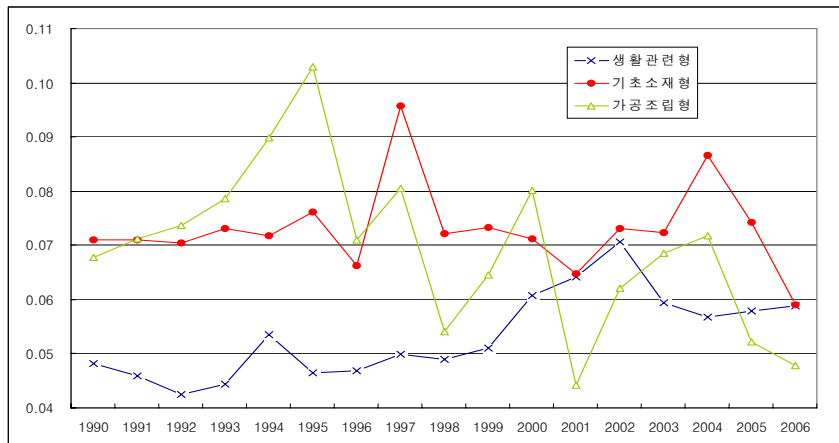
수익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산업별 추세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생활관련형 산업보다 크게 높았으나, 1997~9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그 격차가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꾸준히 7.0% 내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이지만 생활관련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0년대에 비해 상승하였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0년대에 비해 하락하였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보다 변화 추세가 산업별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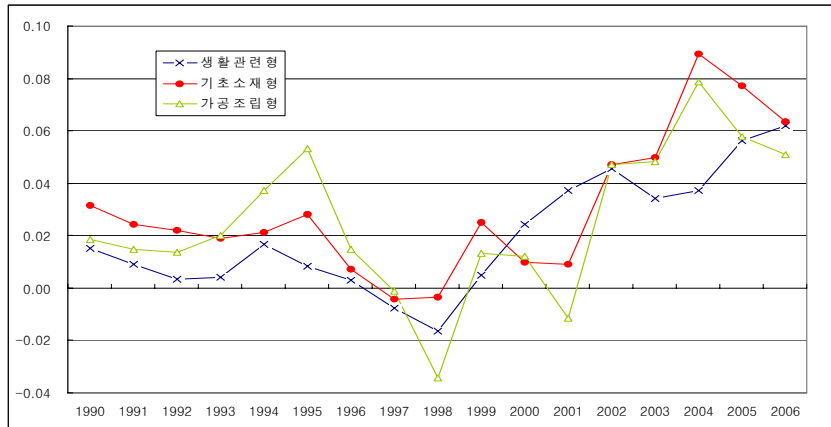
[그림 2-12]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이익률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나. 매출액경상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제4절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

지난 수년 간 제조업 부문 양극화에서 내수/수출 부문 간 양극화가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였다.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면,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부문은 활기를 띄어 양자 간 성과 차이가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이다.

경공업/중화학공업,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구분은 업종 고유의 특성에 의해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구분은 업종 고유의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와 해당 시기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다. 즉, 경제의 구조가 변하고 경쟁우위가 변함에 따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표 2-5>는 1991~2005년 기간 중 제조업 업종별 수출비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제조업 전체로는 수출비율이 1991년에 22.6%에서 2005년에 31.9%로 9.3%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수출비율이 변화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1990년 초반까지 의복제조업은 수출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수출제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출비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내수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자동차산업은 1991년에는 수출비율이 13.8%로 내수제조업에 해당되었으나, 2005년에는 수출비율이 40.1%에 달하여 대표적인 수출제조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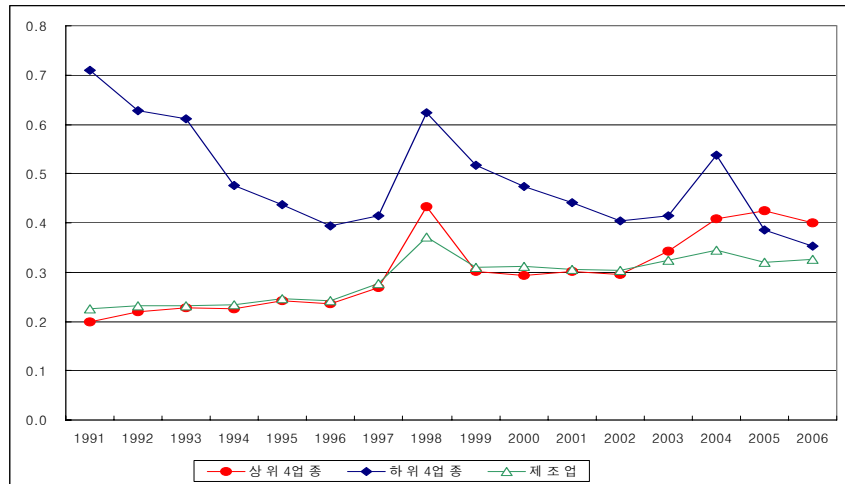
1991~2006년 기간 중 수출비율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정밀기기,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이 있으며, 수출비율이 감소한 업종으로는 의복, 컴퓨터 및 사무기기, 기타제조업, 가죽신발 등이 있다. 이 중 수출비율의 상승 폭이 컸던 상위 4개 업종과 수출비율이 하락 폭이 컸던 하위 4개 업종의 평균 수출비율이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도해한 것이 [그림 2-11]이다. 수출비율 상위 4개 업종의 평균 수출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비율 하위 4개 업종의 평균 수출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제조업 내 산업별 수출구조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수출제조업과 내수제조업의 구분이 시기에 따라 얼마나 가변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제조업 업종별 수출비율의 변화

	KSIC	부문명	1991년	2005년	2005-1991
수출비율증 가제조업	33	정밀기기	0.3413	0.6524	0.3111
	34	자동차	0.1380	0.4012	0.2632
	29	기계	0.1570	0.3251	0.1681
	24	화학	0.1590	0.3223	0.1633
	23	석유 및 석탄제품	0.0968	0.2230	0.1262
	31	전기기계 및 장치	0.1730	0.2846	0.1116
수출비율유 지제조업	21	펄프 및 종이	0.0573	0.1560	0.0986
	16	담배	0.0492	0.1225	0.0734
	32	전자	0.5519	0.6149	0.0630
	17	섬유	0.3797	0.4424	0.0627
	27	1차금속	0.1307	0.1704	0.0397
	26	비금속광물제품	0.0261	0.0598	0.0337
	25	고무플라스틱	0.1717	0.1966	0.0249
	22	인쇄, 출판 및 복제	0.0115	0.0117	0.0002
	15	음식료품	0.0366	0.0350	-0.0016
	28	금속제품	0.1583	0.1481	-0.0102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384	0.0213	-0.0171
35	기타수송기계	0.6689	0.5809	-0.0880	
수출비율감 소제조업	19	가죽신발	0.5066	0.3428	-0.1638
	36	기타제조업	0.3659	0.1989	-0.1670
	30	컴퓨터 및 사무기기	0.9774	0.7482	-0.2293
	18	의복	0.9926	0.2563	-0.7364
		제조업	0.2261	0.3194	0.0933

자료: 국민계정, 무역통계

[그림 2-13] 제조업 수출비율의 변화 추이



자료: 국민계정, 무역통계

이와 같이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을 구분하는 기준시점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하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평균 수출비율보다 높은 업종을 내수제조업, 제조업 평균 수출비율보다 낮은 업종을 수출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양극화 현상을 살펴본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수출비율이 높았던 업종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자, 기타수송기계, 정밀기기 등의 순이며, 수출비율이 낮았던 업종은 인쇄, 출판 및 목재,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2006년 제조업 업종별 수출비율

구분	KSIC	업종	수출비율
내수제조업	22	인쇄, 출판 및 복제	0.0098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150
	15	음식료품	0.0335
	26	비금속광물제품	0.0586
	16	담배	0.1308
	21	펄프 및 종이	0.1481
	28	금속제품	0.1679
	25	고무플라스틱	0.1813
	18	의복	0.1946
	27	1차금속	0.1981
	36	기타제조업	0.2015
	23	석유 및 석탄제품	0.2424
	31	전기기계 및 장치	0.2835
	19	가죽신발	0.3168
24	화학	0.3220	
수출제조업	29	기계	0.3364
	34	자동차	0.3992
	17	섬유	0.4369
	33	정밀기기	0.5461
	35	기타수송기계	0.5781
	32	전자	0.6314
	30	컴퓨터 및 사무기기	0.6947
제조업			0.3259

자료: 국민계정, 무역통계

1. 산업 비중

앞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비중 변화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 생활관련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변화에도 분명한 방향성이 발견되었는데,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경우에도 비중 변화의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기준으로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사업체 기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제조업의 경우 1991년 66.0%였는데 2005년에는 66.9%로 나타났으며, 수출제조업의 경우 1991년 34.0%에서 2005년에는 3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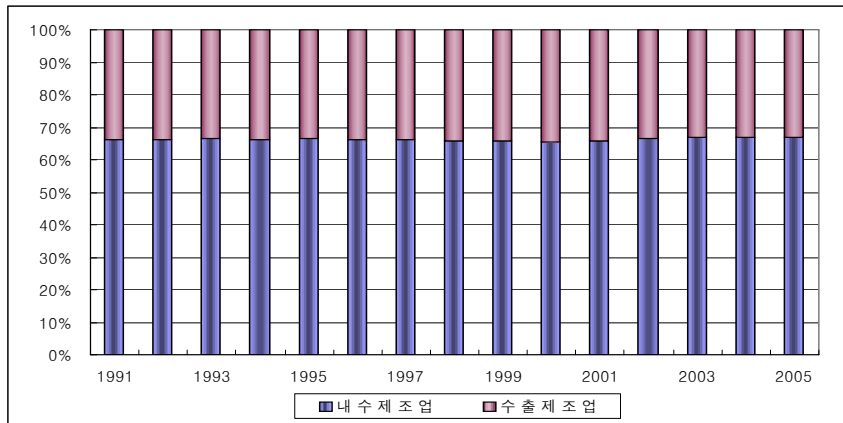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는 내수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수출제조업은 다소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 비중이 내수제조업의 경우 1991년 58.7%였는데 2005년에는 54.3%로 나타났으며, 수출제조업의 경우 1991년 41.3%에서 2005년에는 45.7%로 나타났다.

생산액 혹은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도 내수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내 비중이 내수제조업의 경우 1991년 61.8%였는데 2005년에는 55.1%로 감소하였고, 수출제조업의 경우 1991년 38.2%에서 2005년에는 44.9%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제조업 내 비중이 내수제조업의 경우 1991년 61.9%였는데 2005년에는 52.1%로 감소하였고, 수출제조업의 경우 1991년 38.1%에서 2005년에는 47.9%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1991~2005년 기간 중 사업체 기준으로는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종사자,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내수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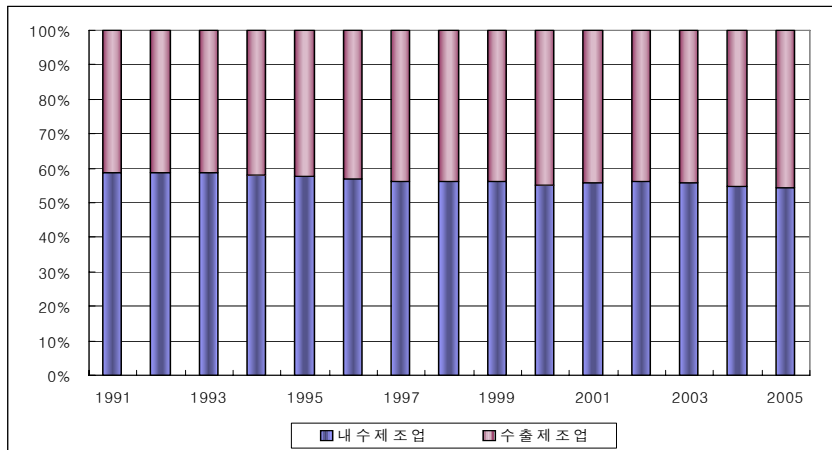
[그림 2-14]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비중

가.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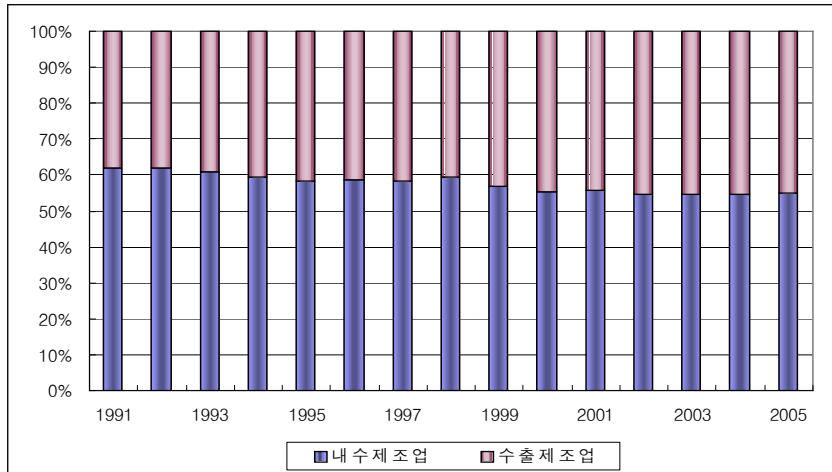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나.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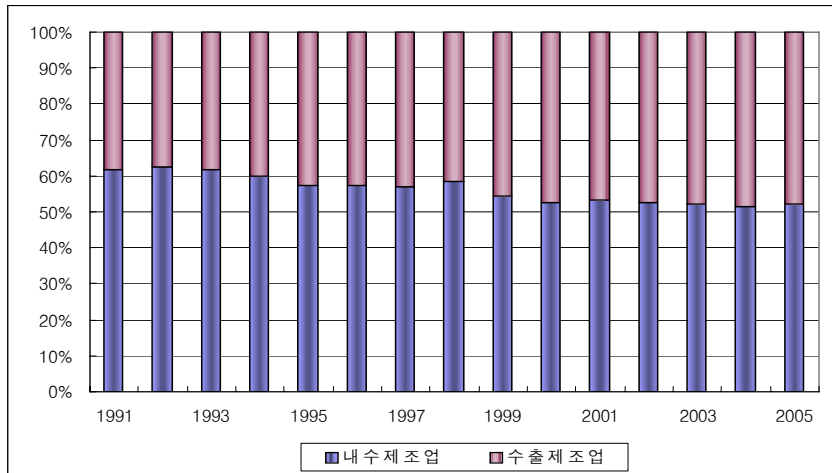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다. 생산액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라.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2.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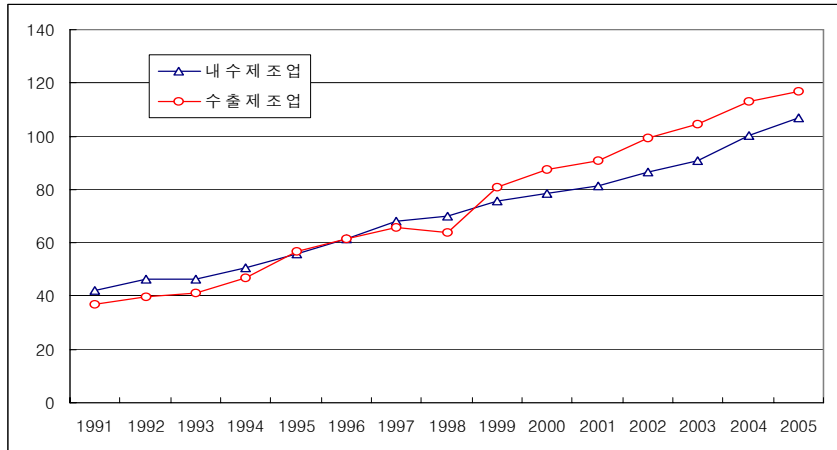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수준을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990년대 초에는 내수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소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1991~2005년 기간 중 내수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53배,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3.16배 각각 증가하는 등 내수제조업보다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1991~2005년 기간 중 유형자산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내수제조업 2.73배, 수출제조업은 4.00배 증가했으며,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내수제조업은 1.60배, 수출제조업은 2.35배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내수제조업, 수출제조업 공히 1990년대에는 유형자산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장비율은 1991~2005년 기간 중 내수제조업이 1.77배, 수출제조업이 2.16배 각각 증가하였다. 내수제조업의 노동장비율이 수출제조업의 노동장비율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동 기간 중 양자가 노동장비율 격차가 축소되어 왔고 2005년에는 수출제조업의 노동장비율이 내수제조업의 노동장비율보다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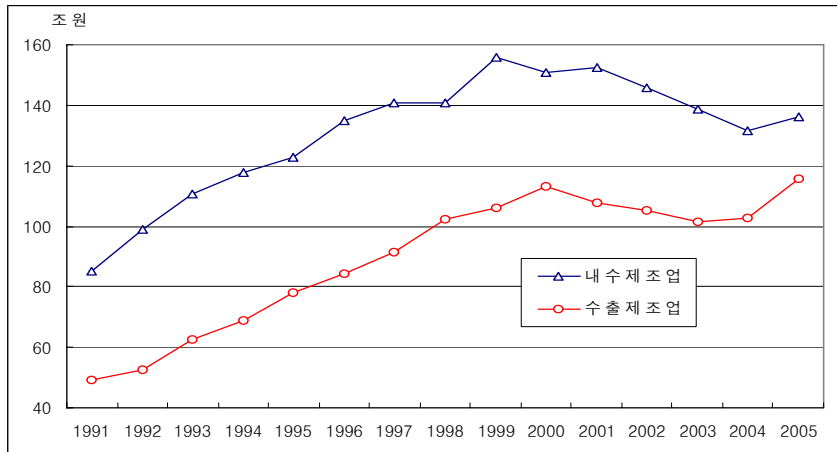
한편, 1인당 급여액의 경우에는 내수제조업에서보다 수출제조업에서 1인당 급여액이 더 높았으며 그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1~2005년 기간 중 내수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은 2.95배, 수출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은 3.38배 증가하였다.

[그림 2-15]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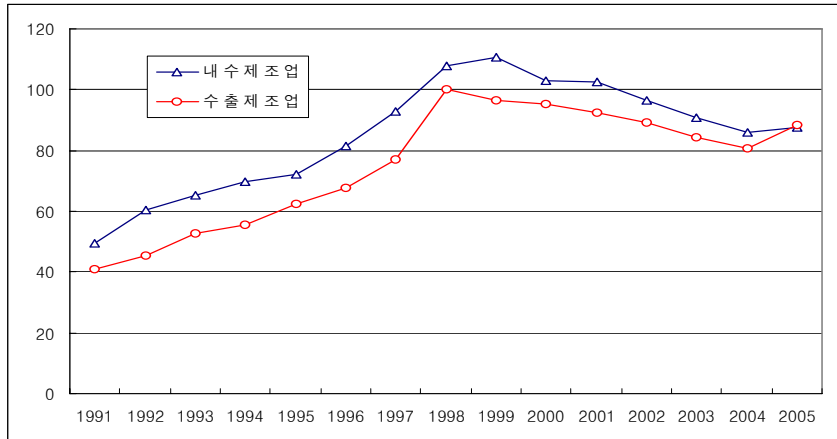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16]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유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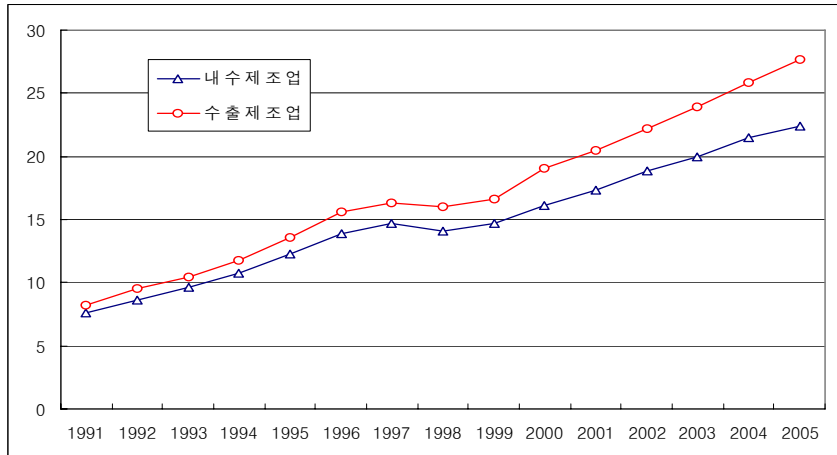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17]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노동장비율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2-18]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3. 수익성

1990~2006년 기간 중 내수제조업 및 수출제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지난 17년 간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내수제조업의 경우 6.84%, 수출제조업의 경우 6.79%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각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내수제조업의 경우 3.05%, 수출제조업의 경우 2.18%로 내수제조업이 더 높았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1990년대 전반기에는 수출제조업의 이익률이 내수제조업의 이익률보다 훨씬 높았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오히려 내수제조업의 이익률이 수출제조업의 이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 1990년대 전반기에는 수출제조업의 이익률이 미미하나 더 높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내수제조업이 이익률이 수출제조업의 이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의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경우 모두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이 유사한 변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체 제조업체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이 때 내수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미만인 업체이며, 수출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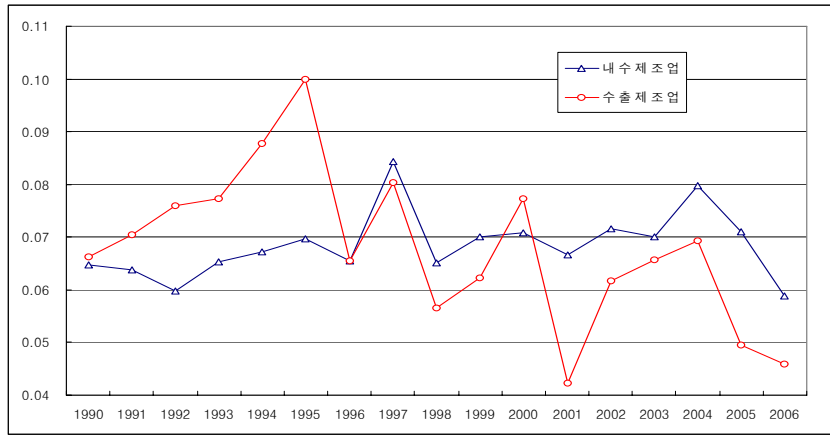
8) 본고에서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전체를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으로 간주한 개념인 반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조업체를 분류한 개념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통계는 2006년도 해당 업종의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을 구분하여 모든 기간에 적용한 반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통계는 각년도 해당 기업의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각년도별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990~2006년 기간 중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지난 17년 간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내수기업의 경우 6.51%, 수출기업의 경우 7.51%로 수출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도 내수기업의 경우 2.56%, 수출기업의 경우 2.88%로 수출기업이 더 높았다.

내수제조업, 수출제조업의 개념과 내수기업, 수출기업의 개념이 분명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세와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 추세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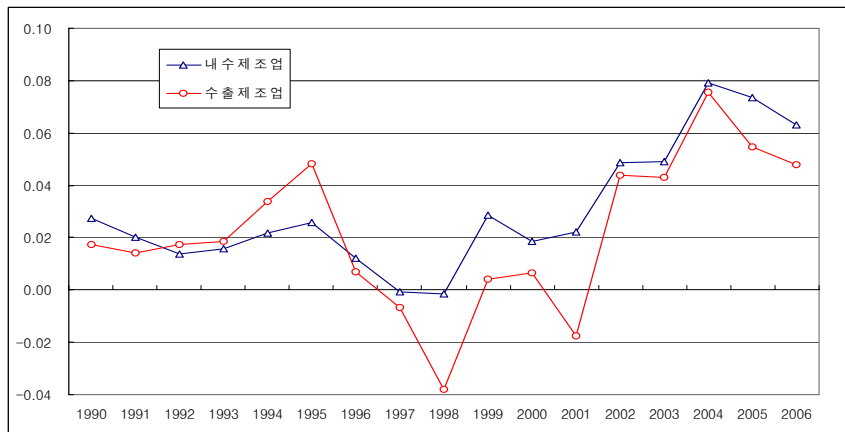
[그림 2-19] 내수산업 및 수출산업의 이익률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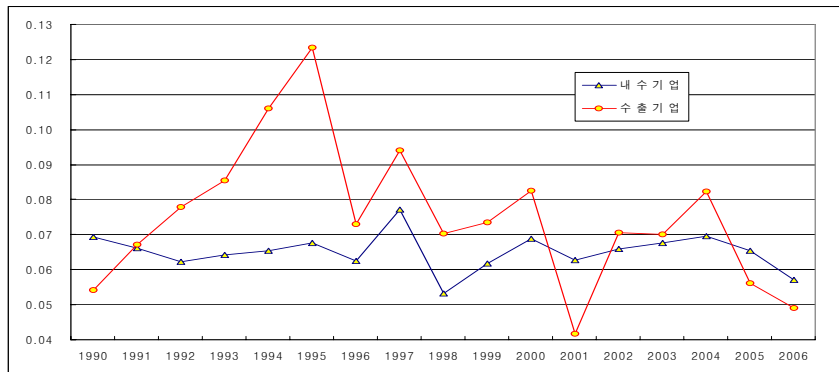
나. 매출액경상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그림 2-20]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의 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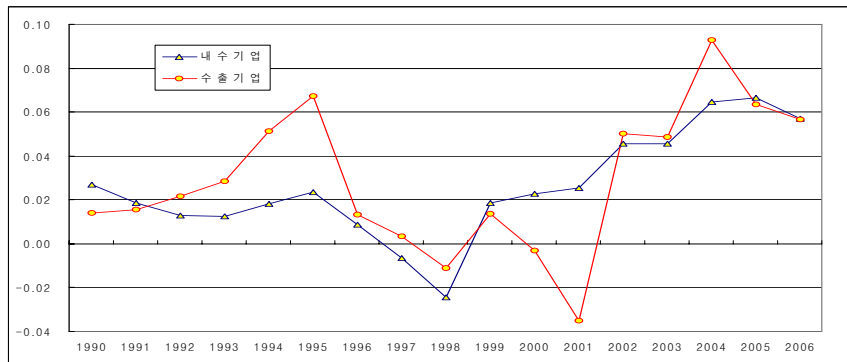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주: 수출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의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미만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나. 매출액경상이익률



주: 수출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의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미만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의 통계 가공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조업 내 산업 간 성과의 격차 문제를 경공업/중화학공업, 내수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구분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제조업을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 비중 측면에서 볼 때 경공업 비중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비중이 1991년에는 약 1:2 수준이었는데, 2005년에는 1: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경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중화학공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높았다. 즉,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미세하나마 확대되어 왔다.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노동장비율 격차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노동생산성 격차 변화는 노동장비율 수준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유형자산 증가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종사자 수는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다. 즉,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 노동장비율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분석기간 중 양자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공업의 이익률이 중화학공업보다 낮았다. 1990~2006년의 17년 동안 양자 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는 2.07%포인트였으며, 평균 매출액경상이익률 격차는 1.64%포인트였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익률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분명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 우려가 높았던 2003년 및 2004년에 수익성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둘째, 제조업을 내수관련형,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 비중 측면에서 볼 때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그 중간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의 기준에서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기초소재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가장 작다.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 변화 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 측면에서 기초소재형 산업이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이 가장 낮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높았다. 그 결과 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이어지는 노동생산성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 산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노동장비율의 격차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장비율 수준은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및 생활관련형 산업의 순으로 높은데, 그 절대적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점은 노동장비율의 변화 때문은 아니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초소재형 산업이 가장 높았고, 가공조립형 산업이 그 다음이며, 생활관련형 산업의 가장 낮았다. 2003년 및 2004년에는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의 이익률과 생활관련형 산업의 이익률 격차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을 2005년 산업별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 비중 측면에서는 사업체를 제외한 종사자,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으로 내수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 비중 변화는 제조업을 경공업/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하거나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구분할 경우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내수제조업보다 수출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내수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절대 수준이 수출제조업보다 약간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내수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수출제조업보다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는 양자 간 노동장비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1990~2006년 기간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으로는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 평균으로는 내수제조업이 수출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와 수출 부분의 산업 간 차이가 아니라 기업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내수기업의 수익성이 수출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제조업 내 산업 간 격차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먼저,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발견되었다.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존재할 경우 생산요소는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여야 전체 경제 및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실제로 경공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나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생산요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⁹⁾

다음으로,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 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일부 확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수익성의 격차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산업 양극화 문제가 널리 제기되었던 2003년 및 2004년에 수익성 격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내수제조업/수출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 비중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보였지만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수와 수출 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 별다른 시사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구분이 업종 고유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구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 발전 및 경쟁우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마련인데, 본고에서는 2006년 수출 비율을 기준으로 제조업을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으로 구분한 바 있다. 둘째,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성과 차이는 산업 간보다 기업 간에 두드러질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내수산업/수출산업의 구분에 따른 수익성 차이와 내수기업/수출기업의 구분에 따른 수익성 차이가 정반대로 나타났던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내수기업/수출기업의 구분으로는 수익성 이외에 체계적인 통계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득이 내수산업/수출산업의 구분으로 살펴보았다.

9) 이러한 설명이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의 구분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기초소재형 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이 생활관련형 산업은 물론 가공조립형 산업보다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소재형 산업의 노동장비율의 수준이 생활관련형 산업은 물론 가공조립형 산업보다 절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과 생산성 지표로서 노동생산성이 갖는 한계, 수익성 지표로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갖는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양극화는 산업 고유의 특성보다는 각 부문의 경기변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어떤 시기에는 내수 경기가 좋고, 다른 시기에는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산업 간 특성보다는 경기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현실에서 관찰되는 산업 간 성과의 분명한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고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산업 간 성과 격차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업 비중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런 의미에서의 산업 간 양극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내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반영함에 다름 아니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그 자체가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산요소 투입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속한 자원이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나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이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기업 간 양극화

제1절 머리말

산업 양극화는 산업 간 양극화와 기업 간 양극화의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본장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검토한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도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다. 예컨대, 기업규모별(예컨대, 종업원 규모, 매출액 규모 등)로 기업을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산업 양극화 논의에서 초점이 맞추어졌던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다룬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김인철·민성환(2003)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1990년대에 대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줄어들고 있으나 총부가가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별 양극화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보다 투입요소, 특히 자본투입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⁰⁾

정연승·성백남·이원영(2004)은 제조업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경제발전론의 시각에서 풀이하였

10) 김인철·민성환,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p. 14, p. 27 및 p. 36.

다.11) 김주훈 편(2005)은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문제를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12) 조덕희(2005)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부진의 현상과 원인을 대기업과 대비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 설비투자, 임금,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13)

외국의 양극화 현상을 검토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홍중 외(2005)는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업 규모별 양극화로서는 스웨덴(고용 양극화 사례) 및 아일랜드(생산성 양극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의 기업 규모별 고용 양극화는 스웨덴이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해외수요 의존형 경제로서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에 고용이 편중됨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기업 규모별 생산성 양극화는 아일랜드가 외국계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아일랜드 토착기업 간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었다.14)

주현·조덕희(2006)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및 생산성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과 생산성에

11) 정연승, 성백남, 이원영,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 제조업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론적 접근』, 중소기업연구원, 2004.

12)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5.

13) 조덕희,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정책자료 2005-22, 산업연구원, 2005.

14) 김홍중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정책자료 0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격차가 한국에서처럼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차가 확대되지도 않고 있음을 밝혔다.¹⁵⁾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기인한다. 또한, 이상의 논의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념이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사업체 수 비중,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등)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하고, 생산성이나 수익성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제조업 내 비중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격차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하고자 한다. 즉, 산업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자체를 양극화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 간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격차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산업 간 비중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간 생산성 혹은 수익성 격차가 기업 간 비중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 간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격차 존재뿐만 아니라 격차의 확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제2절에서 대·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중소기업의 관계를 하도급거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절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제4절에

15) 주현, 조덕희,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6-41, 산업연구원, 2006.

서는 생산성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5절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노동, 자본, 연구개발, 교섭력요인)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 본 장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관계

1. 전 산업 기준 비중

2006년 현재 전국의 총 사업체 수는 322만개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체 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⁶⁾

전 산업 기준으로 2005년 말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 11.9%이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9% 및 88.1%이다.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0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1,077만 명에 달한다. 1990년대 이후 전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¹⁷⁾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별 비중을 200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28.6%), 숙박 및 음식점업(20.7%), 제조업(11.3%), 운수업(11.2%)의 순으로 많으며, 종사자는 제조업(25.4%), 도매 및 소매업(21.3%), 숙박 및 음식점업(15.2%),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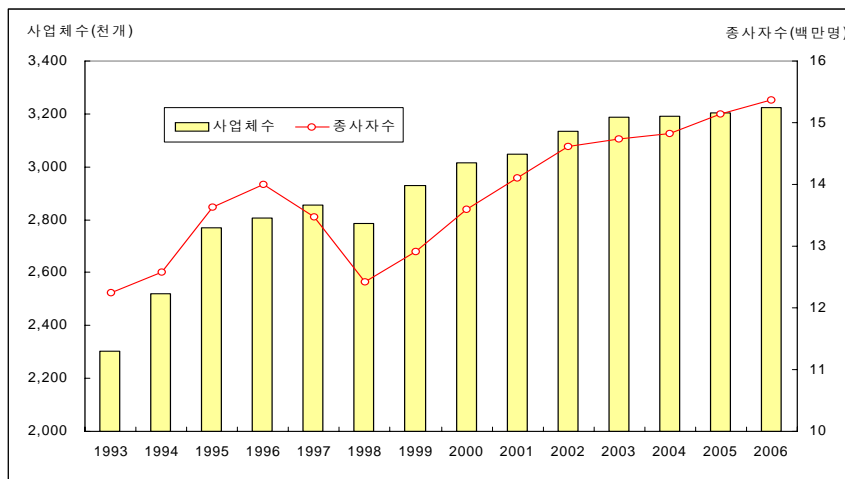
16) 통계청,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07. 9.

17)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통계』, 2007. 10, p. 21.

수업(7.0%)의 순으로 많다.¹⁸⁾

관련 통계 미비로 전 산업 기준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이외의 지표, 예컨대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액 등의 지표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전 산업 기준 통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더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통계청,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07. 9.

18)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통계』, 2007. 10, p. 22~23.

〈표 3-1〉 전 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2001	2005	1996	2001	2005
전 체(A)	2,648,261	2,871,946	3,006,053	11,270,466	11,460,654	12,222,161
중소기업(B)	2,629,049	2,862,433	3,001,893	8,412,554	9,733,703	10,771,623
중소기업 비중 (B/A)	99.3%	99.7%	99.9%	74.6%	84.9%	88.1%

주: 이 표에서 통계치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재편·가공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통계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통계」, 2007. 10, p. 21.

2. 제조업 기준 비중

2006년 제조업의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4%, 76.0%, 49.5%, 51.1%이다.¹⁹⁾ 중소 사업체 수는 11만 9,991개이며 해당 종사자 수는 222만 명이다(<표 3-2> 참조).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2] 참조).

한편,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가 1990년대 들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기업 종사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다소나마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이라 불

19) 통계청,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07. 10.

수 있는 종사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1997년까지는 70% 미만에 머물러 있었는데, 1998년에 70.5%, 1999년에 73.0%, 2000년에 74.0%, 2001년에 75.8%, 2002년에 77.0%, 2003년에 77.1%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사자 20~299인 규모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1990년대 들어선 이후 47~5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5~19인 규모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87년 10.3%, 1992년 16.9%, 1997년 22.2%, 2003년 27.3%까지 상승하였다. 고용에서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997년을 전후하여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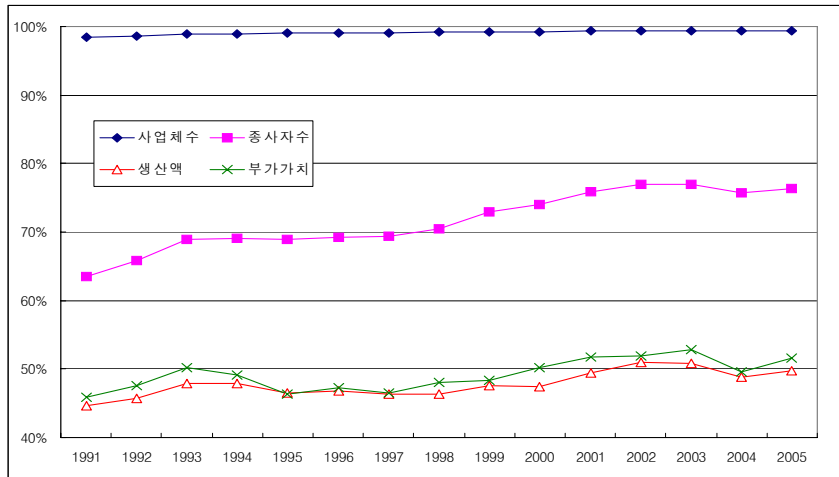
〈표 3-2〉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추이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사업체수 (개, %)	전 체	30,823	68,872	98,110	117,205	120,668
	중소기업	29,779	67,679	97,379	116,547	119,991
	비중	96.6	98.3	99.3	99.4	99.4
종사자수 (천명, %)	전 체	2,015	3,020	2,653	2,866	2,917
	중소기업	1,000	1,864	1,963	2,186	2,217
	비중	49.6	61.7	74.0	76.3	76.0
생산액 (십억원, %)	전 체	36,279	177,309	564,834	851,789	-
	중소기업	11,571	75,713	267,562	423,759	-
	비중	31.9	42.7	47.4	49.7	-
부가가치 (십억원, %)	전 체	11,857	70,925	219,425	312,792	327,547
	중소기업	4,168	31,432	110,151	161,382	167,471
	비중	35.2	44.3	50.2	51.6	51.1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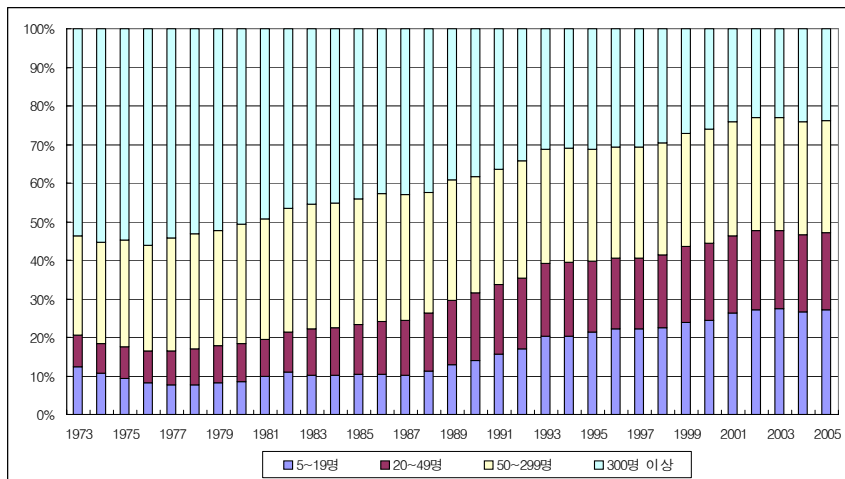
통계청,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07. 10.

[그림 3-2]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림 3-3]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3. 대·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주도 중후장대형 조립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성장하여 왔다. 제조 중소기업은 하도급 관계를 통해 대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하도급 관계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장된 바 있다.²⁰⁾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하도급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계속 증가하여 1991년에는 70.6%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중소기업은 이렇게 대기업의 하도급기업 혹은 저임 노동력에 기반한 부품·소재 공급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소기업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생산요소투입 주도형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도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조용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이 단순히 저임금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제품의 공급으로 산업의 가격경쟁력에 기여했던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혁신에 애쓰고 있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득 재분배 촉진 및 중산·서민층 안정화 기능이 중요해졌다. 넷째,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진전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의 독과점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쟁적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단순 임가공 등 대기업의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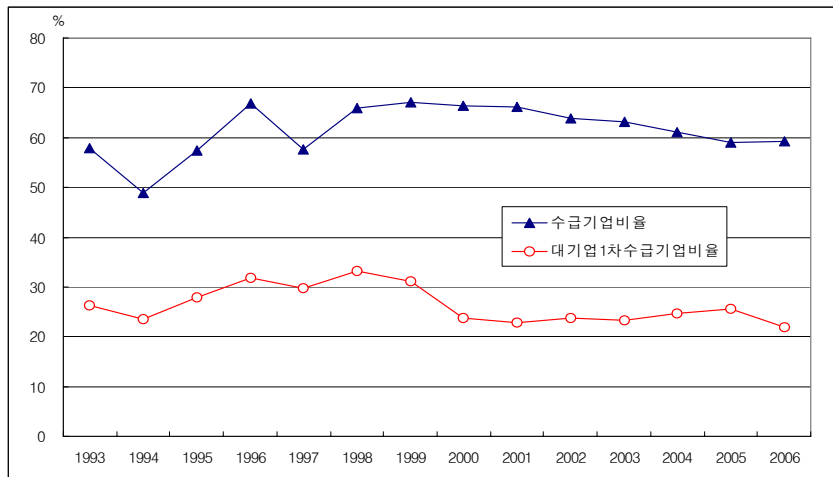
20) 정부는 1970~80년대에 조립산업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하던 수준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고용 창출과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여전히 규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 하도급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6년에 동 비중은 59.2%로 나타났다. 하도급기업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과 직접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비율도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하락하였다. 대기업 직접거래 중소기업 비율은 1998년 33.1%에서 2006년에 22.0%로 급락하였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중소기업 간 기존 거래관계가 격변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중소기업 중 하도급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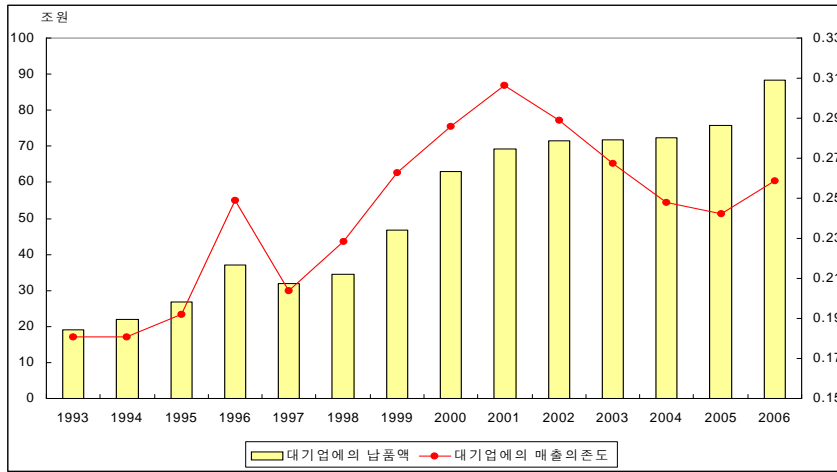
대기업과 직접거래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직접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 증대되었을 수도 있고, 조립 대기업이 1차 하도급업체의 대형화·전문화와 하도급구조의 중층화를 도모함에 따라 1차 하도급업체가 급감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하도급기업이 감소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대기업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제조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제조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매출액의 비중도 1990년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3-5] 참조). 이는 대·중소기업의 직접 하도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의 제조원가에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대·중소기업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3-6] 참조). 대기업의 외주가공비 비중이 상승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외주가공비 비중이 함께 상승하는 것은 하도급구조가 중층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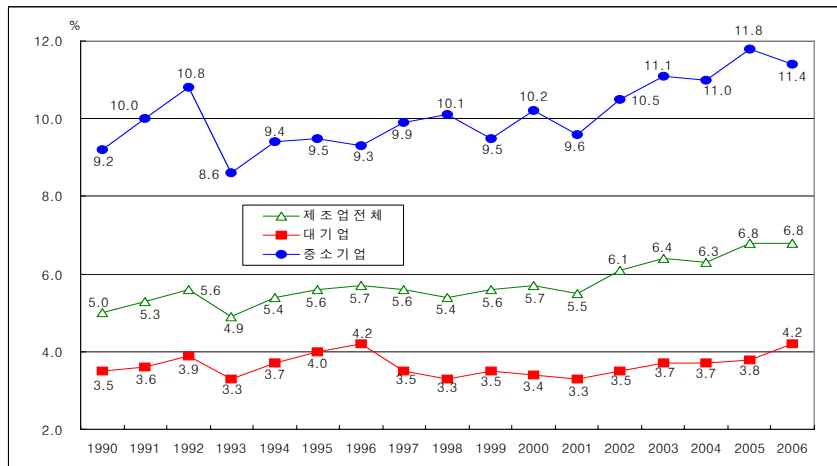
요컨대,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성도 지속되고 있다. 혁신에 기반한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연계는 강화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는 만약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개별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관계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3-5] 제조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의존도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에서 가공.

[그림 3-6]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제3절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있다. 생산성은 단일요소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생산성 지표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된 노동생산성을 사용한다. 경상가격으로 발표되어 있는 통계치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 해당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1,138만원으로서 1991년의 4,005만원에 비하여 2.78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889만원에서 7,532만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5,948만원에서 2억 2,790만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즉,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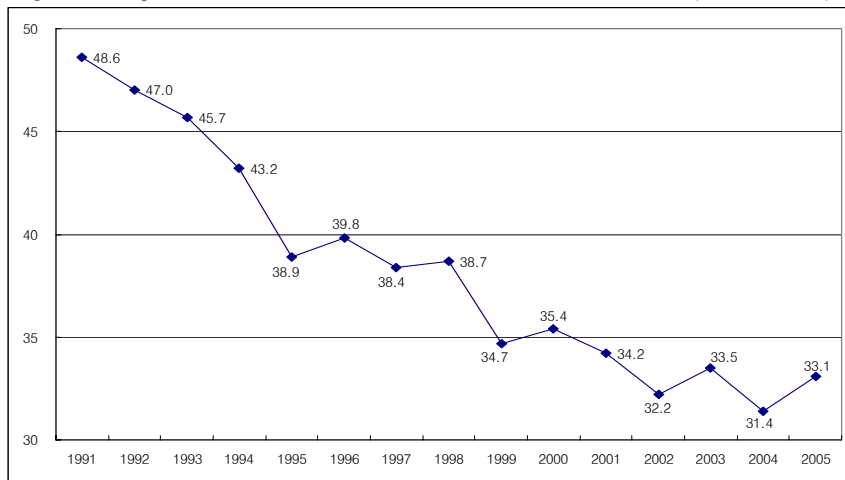
그 결과 [그림 3-7]에서 보듯이 1991년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48.6% 수준이었는데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04년에는 31.4%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5년에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3.1%로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²¹⁾

<표 3-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매 시기에 대기업보다 대체로 낮아졌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02~2005년 기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히

21) 한편, 2006년 기준 제조업통계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전 시기에 비하여 낮아졌다. 또한, 동 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점도 주목된다.²²⁾

[그림 3-7]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대기업=10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22) 2005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의 경우 8.8%로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 2002~2005년 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작은 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5년을 제외한 2002~2004년의 기간에도 양자 간 차이는 3.1%포인트로서 이전 시기보다는 더 작으며 2000년 및 2001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대 들어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3-3> 대·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기간별 증가율(1992~2005)

(단위: %, (%포인트))

	1992~1997	1999~2001	2002~2005	1992~2005
제조업 전체	9.0	8.2	6.9	7.6
대기업 (A)	11.9	12.8	7.5	10.1
중소기업 (B)	7.6	8.3	6.6	7.1
A-B	(4.3)	(4.5)	(0.9)	(3.0)

주: 1)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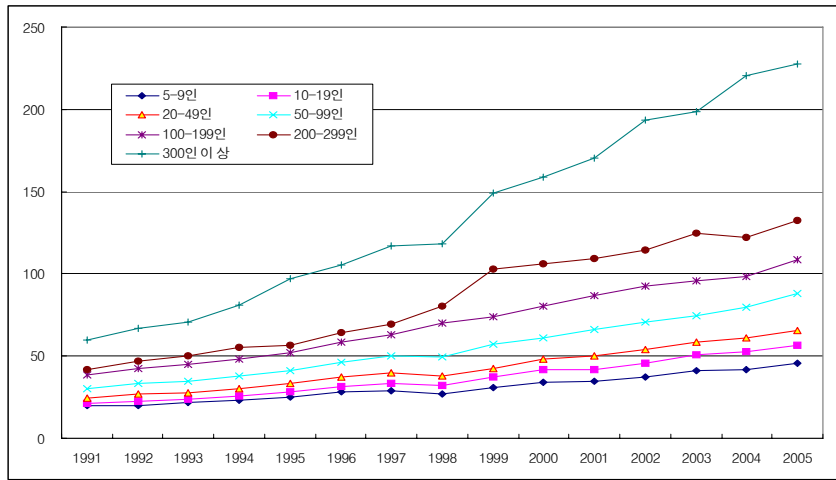
2)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간별로 구분할 때 1998년의 변화분은 제외하고 살펴보았음.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및 변화 추이를 대·중소기업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 규모 간의 비교를 위하여 기업 규모를 좀 더 세분하여 노동생산성의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3-8] 및 <표 3-4>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1~2005년 기간 중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 또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명)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표 3-4〉 제조업의 규모별·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1992~2005)

(단위: %)

	1992~1997	1999~2001	2002~2005	1992~2005
제조업전체	9.0	8.2	6.9	7.6
5~9인	6.5	8.4	7.2	6.2
10~19인	7.5	9.0	7.8	7.1
20~49인	8.4	9.8	6.9	7.3
50~99인	8.7	10.0	7.5	7.9
100~199인	8.6	7.4	5.8	7.7
200~299인	8.7	10.8	4.9	8.6
300인 이상	11.9	12.8	7.5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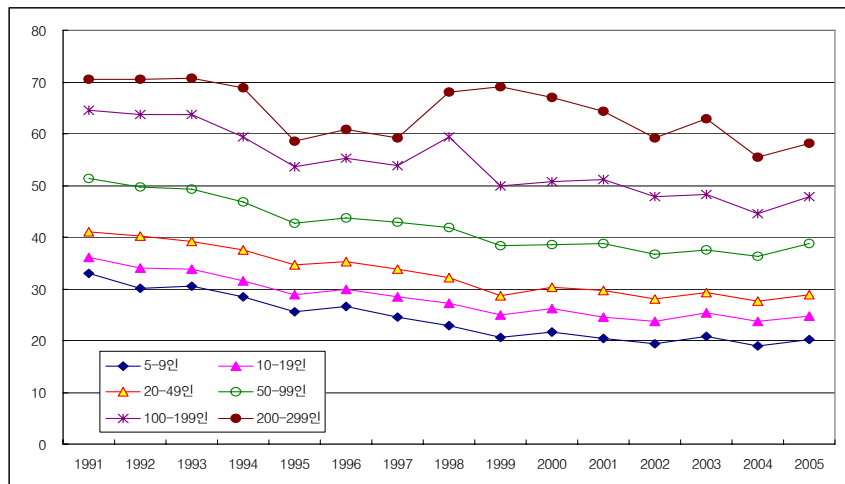
주: 1) 불변가격 기준

2)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간별로 구분할 때 1998년의 변화분은 제외하고 살펴보았음.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 결과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 격차는 종사자 수 기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확대되었다.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그림 3-9]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다만, 2002~2005년 기간만을 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다른 규모대의 기업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그림 3-9]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대기업=10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제4절 대·중소기업 수익성 격차

2000년대 들어와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주목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자 간 수익성의 격차가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를 대표적인 수익률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경상이익률을 통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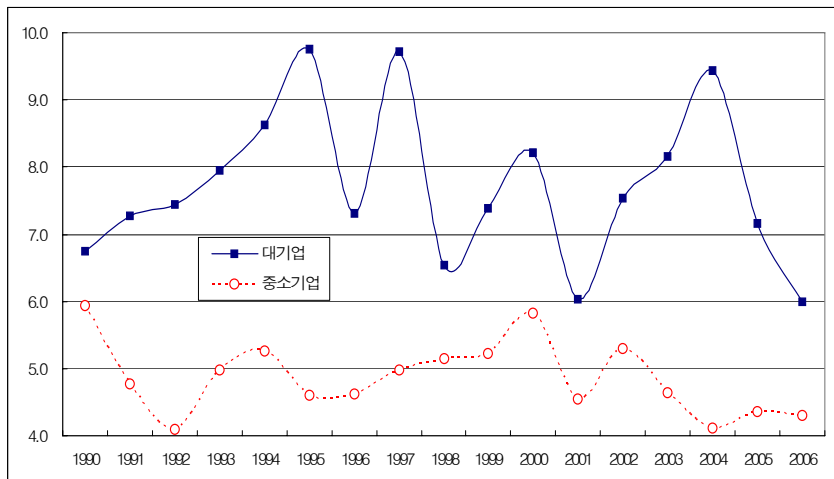
[그림 3-10]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근거하여 1990~2006년 기간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화를 도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줄곧 높았다. 지난 17년 동안 대기업의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의 단순 평균은 7.72%였으며 중소기업의 각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단순 평균은 4.87%로서, 그 차이는 2.86%포인트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1995년에 5.1%포인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2004년 기간 중 크게 확대되어 2004년에는 5.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시기의 수익률 격차 확대 추세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으로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림 3-10] 대·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동 기간 중에 대기업의 수익성은 향상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본 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등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유례없는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는 데 반해 중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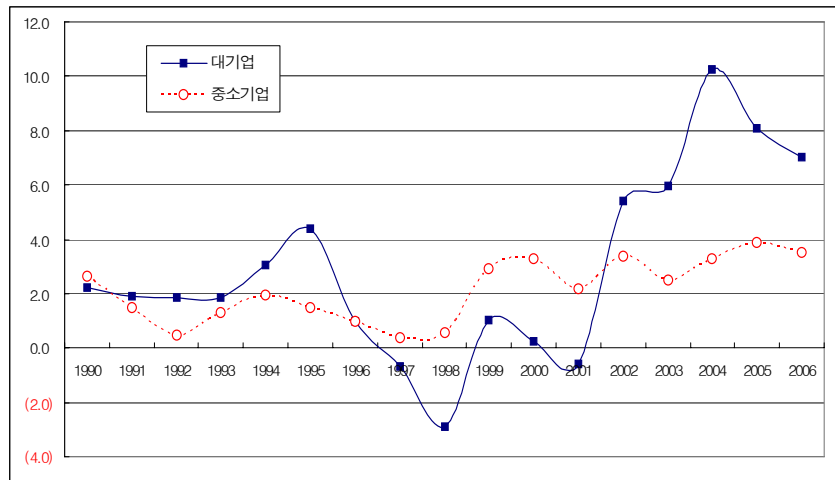
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그 차이가 다소 감소하여 2.8%포인트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1.7%포인트로 더욱 감소하였다.

[그림 3-11]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를 도해한 것이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률의 격차는 덜 분명해 보이지만, 지난 17년 동안 대기업의 각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단순평균은 2.94%로서 중소기업의 2.13%보다 0.81%포인트 더 높다는 점에서 역시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8~2001년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보다 더 낮았지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되었던 2002~2004년 기간에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급증하여 2004년에는 10%를 상회하기까지 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3-11] 대·중소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중소기업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므로 중소기업 내부 구성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수익률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의 통계를 검토하였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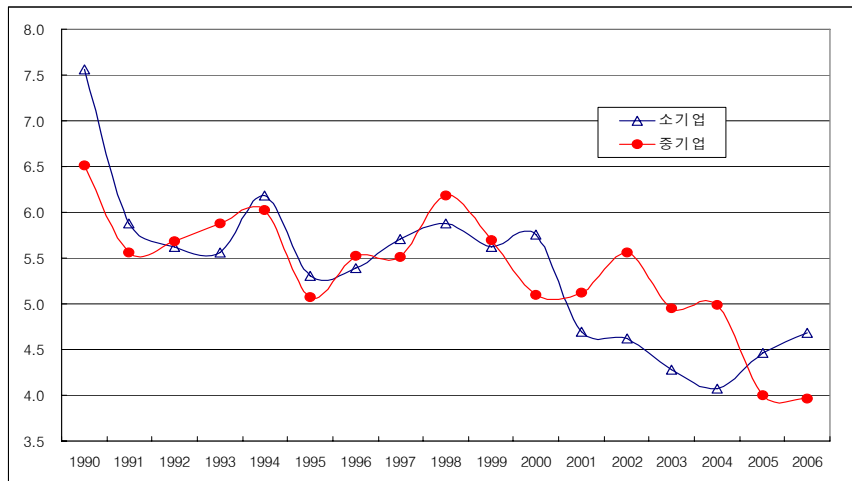
[그림 3-12]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1990년대에는 상시종사자 수 50~299인 규모의

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를 검토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였고, 중소기업 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의 수익률 격차를 검토할 때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통계를 활용하였다. 양 조사의 조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수익률의 수준과 추세가 동일하지 않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중기업과 50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과의 체계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1~2004년 기간에는 중기업의 이익률이 소기업의 이익률보다 분명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그림 3-12]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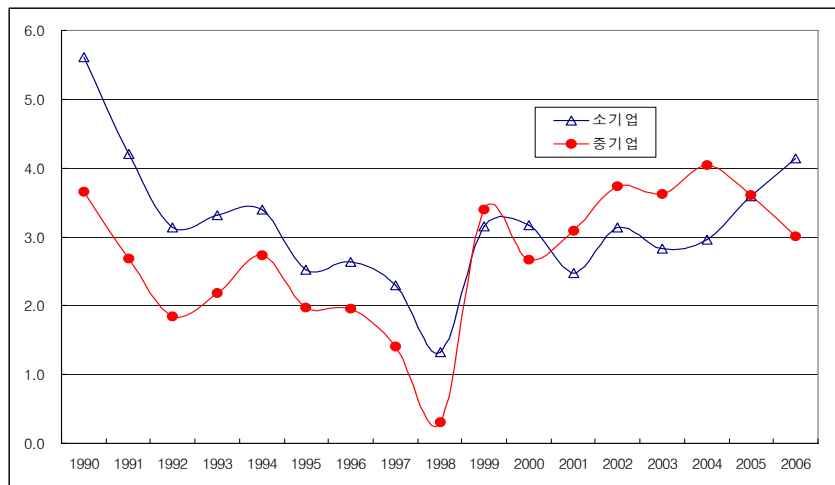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그림 3-13]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좀 더 세분된 규모별로 수익성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관된 수익성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은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2001~2004년 기간에는 상시종사자 수 기준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난다.²⁵⁾

24)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그림 3-13]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25) 한편, 조덕희(2005)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통계에 근거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장기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장기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 조덕희,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정책자료 2005-22, 산업연구원, 2005, pp. 22-24.

제5절 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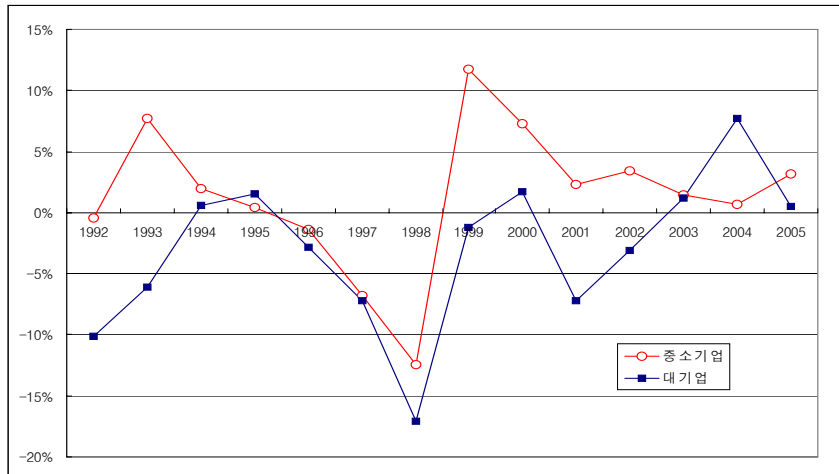
1. 노동

기업의 생산성은 노동장비율(K/L)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동장비율의 변화는 노동(L)과 자본(K)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노동(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본(유형자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 종사자 수의 변화는 [그림 3-14] 및 <표 3-5>에 나타나 있다. 1992~2005년 기간 중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변화율은 -0.03%로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 종사자 수의 감소 추세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89년 이후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다.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율이 대기업 종사자 수 변화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3~05년에는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종사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율(1992~2005)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표 3-5> 제조업 종사자 수 기간별 변화율(1992~2005)

(단위: %, (%포인트))

	1992~1997	1999~2001	2002~2005	1992~2005
제조업 전체	-0.33	0.92	0.45	-0.03
중소기업 (A)	0.05	1.80	0.60	0.34
대기업 (B)	-0.85	-0.37	0.25	-0.58
B-A	(-1.44)	(-2.17)	(-0.35)	(-1.27)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198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은 경제가 성숙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 상승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4~2006년의 13년 동안 전 산업의 월평균 급여액은 2.61배 상승하였고 제조업의 월평균 급여액은 2.85배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 월평균 급여액은 전 산업 기준으로 254만원, 제조업 기준으로 252만원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임금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아서 양자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1993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73.5%였는데, 2006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노동절약적인 경영전략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개별 기업의 평균 고용 수준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제조업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1994년 12.4명에서 2005년 10.1명으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그림 3-15] 참조).

제조업 부문에서 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나 평균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기업의 슬림화'로 표현 가능하다.²⁶⁾ 우리 경제의 노동절약형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으로서, 의류, 신발 등 산업은 해외이전 등을 통해 국내생산 자체가 위축되었다. 다른 하나는 개별 기업들의 슬림화로서,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불문한 모든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종사자 수를 가급적 줄이는 슬림화를 추진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기업의 종사자 수가 감

26) 기업의 영세화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지만, 기업의 영세화라는 표현보다는 기업의 슬림화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 '기업의 영세화'는 종사자 규모로만 규정될 수 없고 자본이나 자산 규모 등 다른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규정되는 개념이지만, '기업의 슬림화'는 인력과 조직의 감축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소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거나 경쟁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슬림화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6〉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변화(월평균 급여총액)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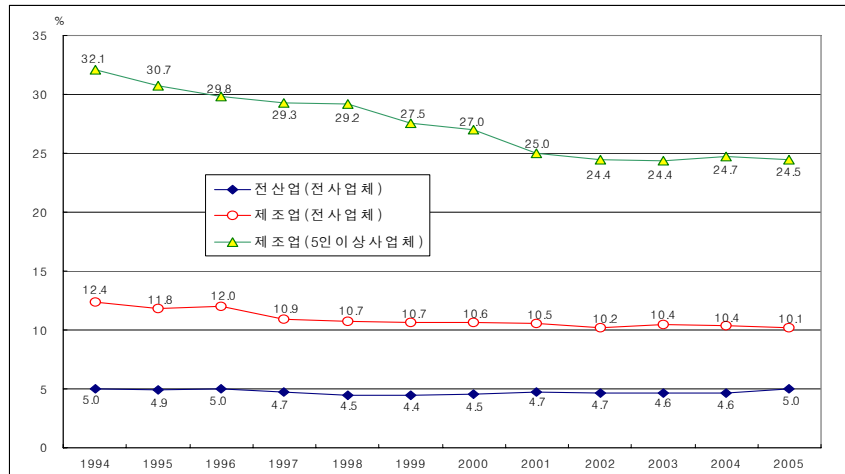
	전산업				제조업			
	전체	5~299인 (A)	300인 이상 (B)	임금 격차 (A/B*100)	전체	5~299인 (A)	300인 이상 (B)	임금 격차 (A/B*100)
1993	975	888	1,145	77.6	885	774	1,053	73.5
1994	1,099	1,002	1,307	76.7	1,022	884	1,249	70.8
1995	1,222	1,119	1,467	76.3	1,124	978	1,386	70.6
1996	1,368	1,244	1,651	75.3	1,261	1,068	1,581	67.6
1997	1,463	1,344	1,739	77.3	1,326	1,141	1,638	69.7
1998	1,427	1,310	1,720	76.2	1,284	1,085	1,629	66.6
1999	1,544	1,401	1,973	71.0	1,443	1,216	1,885	64.5
2000	1,668	1,530	2,147	71.3	1,568	1,350	2,076	65.0
2001	1,752	1,615	2,276	71.0	1,659	1,442	2,189	65.9
2002	1,948	1,775	2,629	67.5	1,857	1,577	2,536	62.2
2003	2,127	1,906	2,898	65.8	2,018	1,704	2,799	60.9
2004	2,255	2,023	3,163	64.0	2,209	1,837	3,209	57.2
2005	2,404	2,158	3,357	64.3	2,388	1,992	3,458	57.6
2006	2,541	2,283	3,493	65.4	2,523	2,118	3,536	59.9
2006/1993	2.61	2.57	3.05	-	2.85	2.74	3.36	-

주: 1) 1999년 이후 전산업 및 중소기업 전체는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임.

2)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과 특별급여액의 합계임.

자료: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재편·가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07에서 재인용)

[그림 3-15]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 변화 추이



자료: 전 사업체 평균 종업원 수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종업원 수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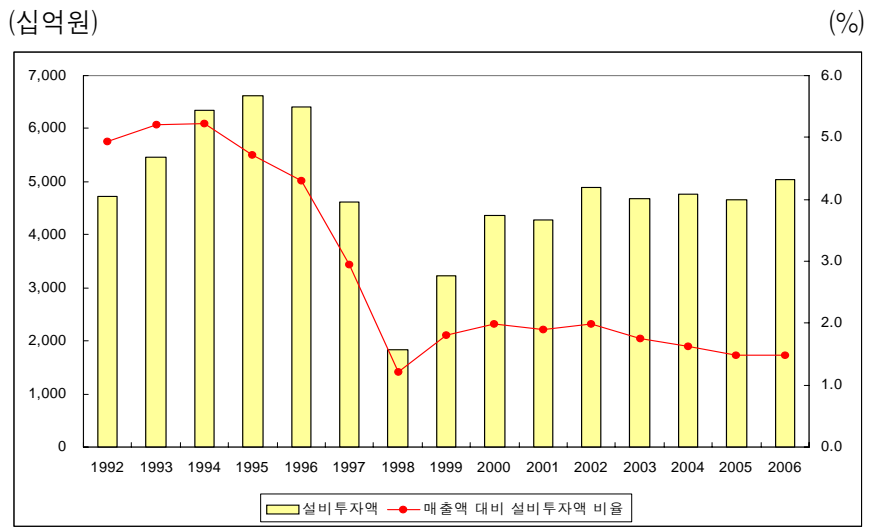
2. 자본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1995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등은 결국 노동장비율 수준에 영향을 주고 결국 노동생산성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17] 및 <표 3-7>에서 제조업 유형자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부문의 유형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노동장비율의 증가율이 높았던 점이나 성장에서 자본투입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점은 모두 제조업 부문의 유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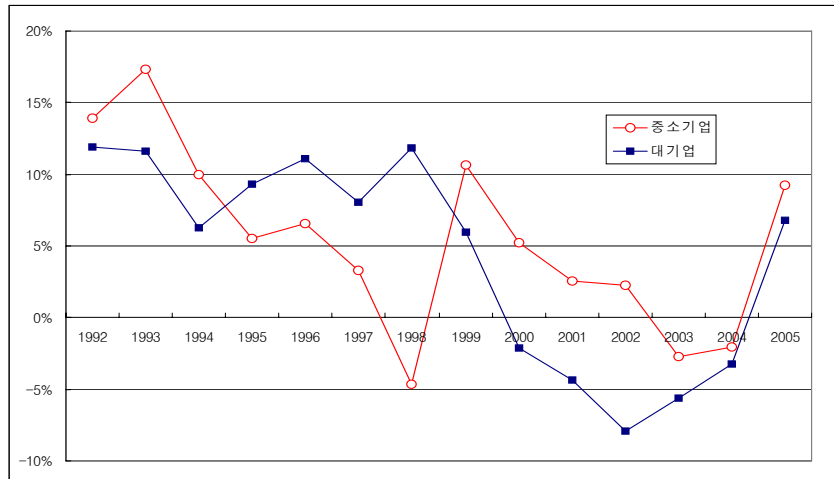
산의 큰 폭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
되지만 대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이 더 컸다.

[그림 3-16] 중소 제조업의 설비투자 추이(1992~2006)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그림 3-17] 제조업 유형자산 변화율(1992~2005)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현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02~200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0.58% 감소하였다. 특히 대기업은 2000~2004년의 5년 동안 매년 유형자산의 절대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제조업 유형자산 기간별 변화율(1992~2005)

(단위: %, (%포인트))

	1992~1997	1999~2001	2002~2005	1992~2005
제조업 전체	7.12	1.83	-0.58	3.53
중소기업 (A)	6.48	4.51	1.13	3.81
대기업 (B)	7.69	-0.24	-2.21	3.27
B-A	(1.21)	(-4.75)	(-3.34)	(-0.54)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제조업에서 노동과 자본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했지만 그 변화율은 크지 않았던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은 매우 컸기 때문에 노동장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율은 거의 없는 반면 자본투입의 기여율이 매우 높았으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줄곧 확대된 점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증가율은 높고 노동투입 증가율은 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노동장비율 격차를 확대시켰고 이것이 다시 노동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2002~05년 기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종사자 수는 증가했지만 그 변화율은 크지 않았으며, 유형자산은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 노동장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크게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 기간 중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미약하나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변화 이외의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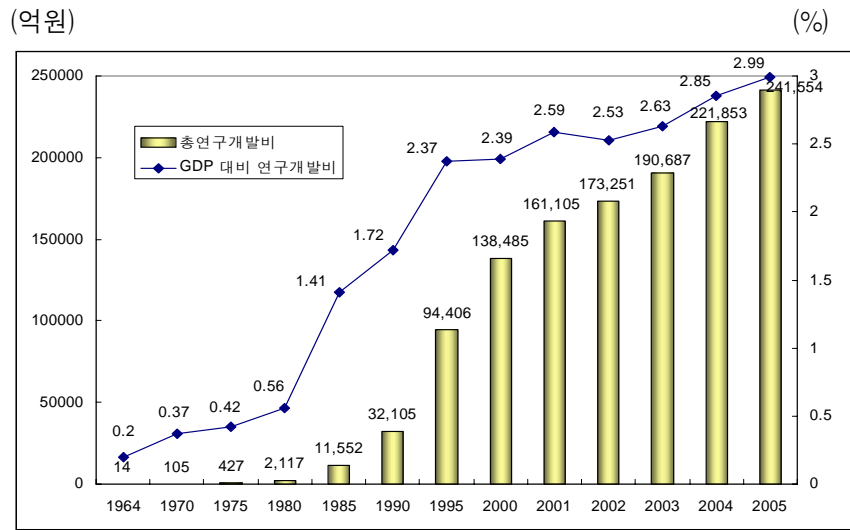
이상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입의 양적 변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주도형으로 발전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의 투입 증가는 미미하고 자본의 투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는 다른 요소, 예컨대 연구개발의 성과가 생산성 제고를 가져온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림 3-18]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 간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5년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 억원으로, 2004년의 22조 1,853억원에 비해 8.9%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2.99%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증가하였다.²⁷⁾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절대적인 규모는 미국의 1/13, 일본의 1/6, 독일의 1/3 등으로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99%로서 OECD 회원국의 평균 2.2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7)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6. 11.

[그림 3-18]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 변화추이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6. 11.

〈표 3-8〉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 개발비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원
대 기 업	9,337 72.0%	62,459 52.9%	11,084 76.4%	71,698 57.8%	13,464 79.1%	79,910 59.5%	14,643 78.9%	91,514 59.3%
중소기업	1,813 14.0%	28,470 24.1%	1,826 12.6%	27,390 22.1%	1,890 11.1%	28,683 21.4%	1,991 10.7%	30,619 19.8%
벤처기업	1,825 14.0%	27,231 23.0%	1,599 11.0%	24,942 20.1%	1,665 9.8%	25,707 19.1%	1,930 10.4%	32,173 20.9%
합 계	12,975 100.0%	118,160 100.0%	14,510 100.0%	124,030 100.0%	17,020 100.0%	134,300 100.0%	18,564 100.0%	154,306 100.0%

주: 2005년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은 560개, 중소기업 3,633개, 벤처기업 3,175개임.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조사에서 '중소기업' 관련 통계치는 '벤처기업'이 제외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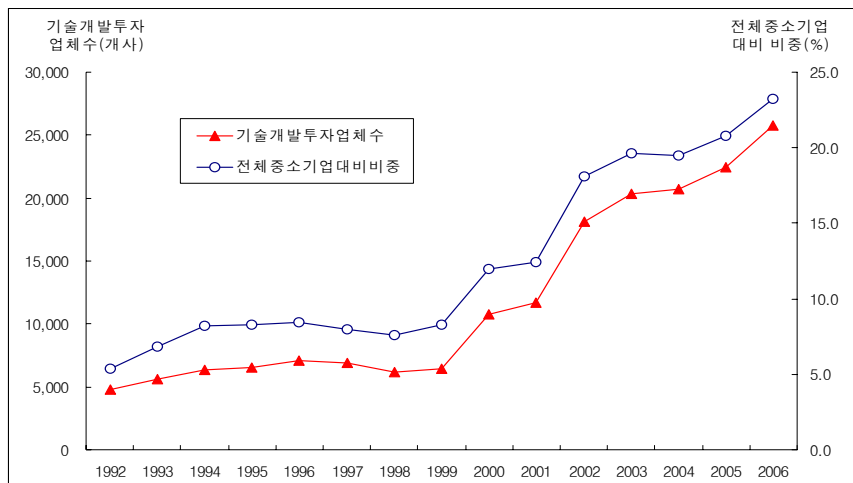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6. 11.

2005년을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로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 18조 5,642억 원 중에서 대기업이 78.9%(14조 6,429억 원)를 사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이 10.7%(1조 9,911억 원), 벤처기업이 10.4%(1조 9,302억 원)를 사용하였다. 기업 유형별 연구원의 비율은 대기업 59.3%(9만 1,514명), 중소기업 19.8%(3만 619명), 벤처기업 20.9%(3만 2,173명)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표 3-8> 참조).

그러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계에 따르면,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 수는 1998년에는 6,152개사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무려 2만 5,769개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전체 중소기업 대비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 비중 역시 1998년에 7.6%에서 2006년에는 23.2%로 증가하였다. 즉, 현재 제조 중소기업의 약 1/4이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있다([그림 3-19] 참조).

[그림 3-19]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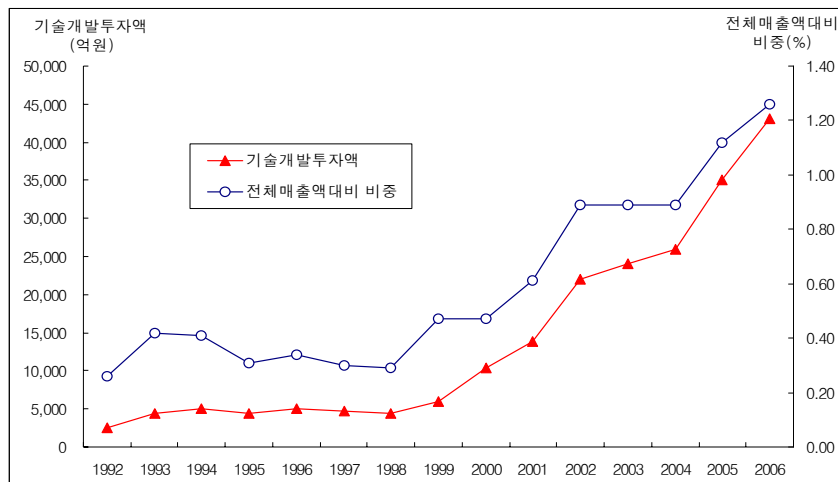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액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다. 기술개발투자액이 1998년 4,397억원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무려 4조 3,0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액이 8년 만에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액이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여 1998년 0.29%에서 2006년에는

1.26%까지 이르게 되었다([그림 3-20] 참조).

요컨대, 1998년 이후 기업가정신이 북돋아져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연구 개발 및 사업화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과거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보완되었으며 경제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투자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0]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액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4. 교섭력

제2절에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의 격차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각의 본원적 생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관계에서도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양자 간 하도급구조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일반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나 결제수단(어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소기업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기업의 전통적인 유형의 불공정하도급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결제수단과 관련된 조건들도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납품단가는 곧 적정한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저임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로 이전되고 있음에 따라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 여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납품단가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납품단가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납품단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크다.

〈표 3-9〉 납품단가 변화에 대한 만족도(2006년)

(단위: %)

구 분	대기업 설문	중소기업 설문
1. 매우 만족	1.3	0.6
2. 만족	26.8	8.0
3. 보통	67.8	46.5
4. 불만족	3.4	35.2
5. 매우 불만족	0.7	9.7
합 계	100.0	100.0

주: 1) 응답업체는 대기업의 경우 149개사, 중소기업의 경우 514개사

2)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단가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임.

자료: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자본계열사에 대한 차등 대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 예컨대, H자동차는 2003년에 자신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²⁸⁾ 또한 H자동차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바, 2003년 모듈부품 재료비가 실제로는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인상 명목으로 9개 차종의 사시모듈부품의 재료비를 8.5% 인상 지급하여 2006년까지 계열회사인 A사에 1,06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²⁹⁾

28)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수)에 H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방식 및 수준은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납품단가 수준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방식 및 수준은 하도급 중소기업이 적정한 영업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6절 소결

1. 기업 간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간 비중 및 관계의 변화, 수익성 및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래로 제조업의 사업체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즉,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여부를 판단하는 수익성 및 생산성 지표를 검토해보면 양극화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확인되었다.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중

2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5일(수)에 H자동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기업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에 대기업의 48.6% 수준에서 2004년에 31.4%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자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부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익성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던 2003년 및 2004년에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동시에 높아지거나 동시에 낮아지는 등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요컨대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오랜 기간 동안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하며 2000년대 들어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 양극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 간 양극화, 내수·수출 부문 간 양극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이 주목을 받아왔다.

산업 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 혹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수준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크다. 흔히 산업 간 양극화라고 지

적되는 현상은 산업구조조정 과정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기 변동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 및 수출 부문 간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실재한다면 이는 경기변동적 요인이나 가격변수의 교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한국에서처럼 크지도 않고 확대되지도 않는다.

우리 경제에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산업 부문의 다양한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첫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업의 과잉투자가 문제였다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과소투자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저조하다.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낮은 이익률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은 설비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은 낮춤으로써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 자체를 낮춤으로써 양극화의 악순

환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둘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역량의 강화를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투자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1990년대 말 벤처 붐이 조성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투자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중 대기업의 비중은 2002년 72.0%에서 2003년 76.4%, 2004년 79.1%로 급격히 높아졌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이에 상응하여 급격히 낮아졌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셋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규모별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대·중소기업 간 근로자 임금 격차가 최근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사내 하청, 파견근로자 등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1997년까지는 70% 미만에 머물러 있었는데, 2003년에 77.1%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있고 고용 창출이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체된다면 '고용 없는 성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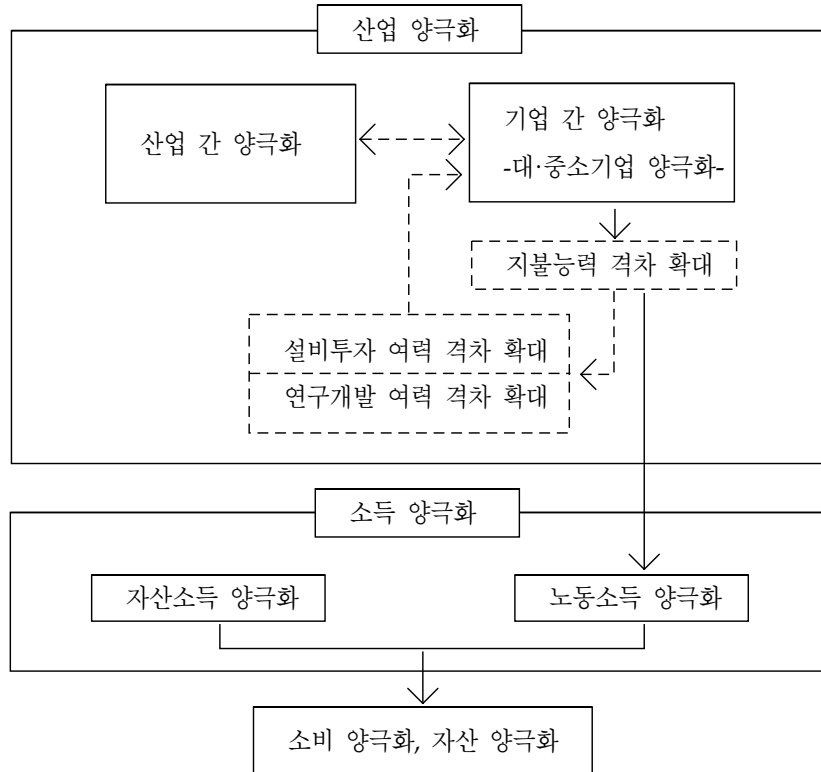
[그림 3-21]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중심으로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해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를 야기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는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대기업은 정규직 남성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을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을 주는 경제적 토대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는 대·중소기업 간 설비투자 여력 및 연구개발투자 여력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양자 간 생산성 및 수익성의 격차를 다시 확대시키는 산업 부문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21] 산업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타 부문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양극화 현

상을 부정할 수도 있겠으나, 양자 간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만으로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도 있다. 산·학·연 연계체제의 구축 및 지역혁신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현재 그 연계체제의 효율성은 높이 평가되기 어려우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는 상당 규모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원제도의 유인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기업들의 집합체로서 모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을 구축(驅逐)하는 경쟁메커니즘이 중소기업 전체 및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역량을 갖춘 선도적인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1990년대 후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정책대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벤처기업 확인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원시책의 단순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재편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정부 주도형 벤처캐피털시장을 시장 주도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벤처캐피털회사제도의 정비 및 지원시책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는 익명의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명의 당사자들 간 개별적인 교섭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조건에 양자 간 교섭력의 격차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크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은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는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추가로 개별협상을 통해 납품가격을 낮추는 사례 등은 불공정거래 사례로 규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원가명세서를 요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불공정거래 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둘째, 다양한 형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고, 셋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넷째,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성과공유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글로벌경쟁의 심화 및 원가인하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성과공유 시스템 구축은 우리 산업의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 설비투자 촉진시책 추진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 경제가 과잉 투자로 인하여 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점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소 투자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낮은 설비 투자는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중소기업에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투자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금융애로가 설비투자 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친중소기업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양극화와 총요소생산성

제1절 총요소생산성의 의미

1994년 P. Krugman이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아시아경제의 빠른 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논문 "The Myth of Asia's Miracle(Krugman, 1994)"을 발표한 이후 아시아의 성장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도성장기의 성장동인을 찾는 연구에서부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생산성 제고 요구에 대한 기반이 되는 연구,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생산성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원칙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생산성에 대한 해석 또는 그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바는 없으며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측정 및 해석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제조업 양극화의 한 현상 혹은 그 원인으로서는 생산성이라는 연구주제하에 제조업 업종 간 양극화 및 기업규모 간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의거하여 투입과 산출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산출의 경우는 총산출을 사용하는 경우와 중간재를 제외한 부가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가가치 생산성의 경우는 가분성(separability)의 가정에 대한 가설이 쉽게 채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부가가치 생산함수의 존재와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방법이다. 투입의 경우는 노동 또는 자본의 단일요소 생산성 개념과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개념이 있다. 개념적으로는 총요소 생산성이 보다 타당한 측정방법일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데이터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간단한 단일요소 생산성 측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일요소 생산성의 대표적인 예인 노동생산성이 후생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별도로 하면, 고려하는 투입요소 외의 다른 투입요소의 변화가 거의 일정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단일요소 생산성이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 간 또는 기업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들 간의 자본투입 행태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노동생산성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이 보다 적절한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차이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생산성분석은 생산성 수준을 비교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할 때 모두 이들 사이의 자본투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규모에 따른 자본투입의 차이는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분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종 간 및 기업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총요소생산성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로서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산액, 파견사원을 제외한 고용,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중간투입액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업분류는 중분류³⁰⁾를 사용하였으며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분류는 <표 4-1>과 같다.

생산액(GO) 및 부가가치(Y)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의 각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와 명목 부가가치의 비율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유형자산(K)의 경우는 각 자산별로 한국은행의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중간재(M)투입의 경우는 각 세부항목을 알 수 없어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였다. 각 투입요소별 분배율은 노동의 경우는 연간급여액, 퇴직금³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을 생산액으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중간재 투입은 명목투입액을 생산액으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자본분배율은 생산함수의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여 (1-노동분배율-중간재분배율)로 하여 구하였다. 모든 분배율은 각 그룹별 생산구조의 특징과 각 연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룹별, 연도별로 각각 전기와의 평균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30) 담배제조업의 경우 소수의 사업체만을 포함하는 관계로 음식료품 제조업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31) 1994년, 1995년의 경우 퇴직금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1993년의 전체 노동분배액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 사용하였다.

〈표 4-1〉 제조업 산업분류

KSIC	산업분류	KSIC	산업분류
15,16	음식료품 제조업 및 담배 제조업	27	제 1차 금속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7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자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2000.

노동생산성은 식(4-1)과 같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였고, 총요소생산성은 식(4-2)와 같이 총산출 총요소생산성으로 계산하였다.

$$LP = \frac{Y}{L} \dots\dots\dots \text{식(4-1)}$$

$$\Delta \ln TFP = \Delta \ln GO - \alpha_K \cdot \Delta \ln K - \alpha_L \cdot \Delta \ln L - \alpha_M \cdot \Delta \ln M \dots\dots\dots \text{식(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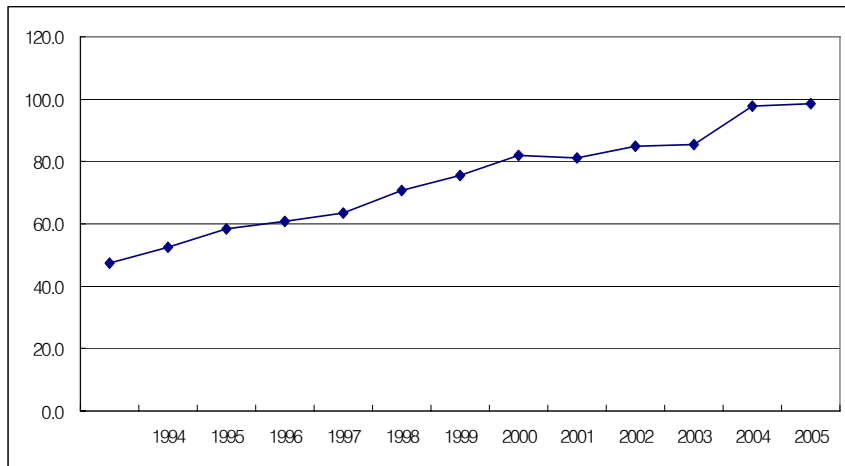
3.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추이

위의 식(4-1)과 식(4-2)를 이용하여 구한 제조업 전체의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의 추이는 [그림 4-1] 및 [그림 4-2]와 같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에 1인당 부가가치는 4,700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9,900만원으로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2003년의 기간 동안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1994년부터 1997년 간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7.3%였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은 4.3%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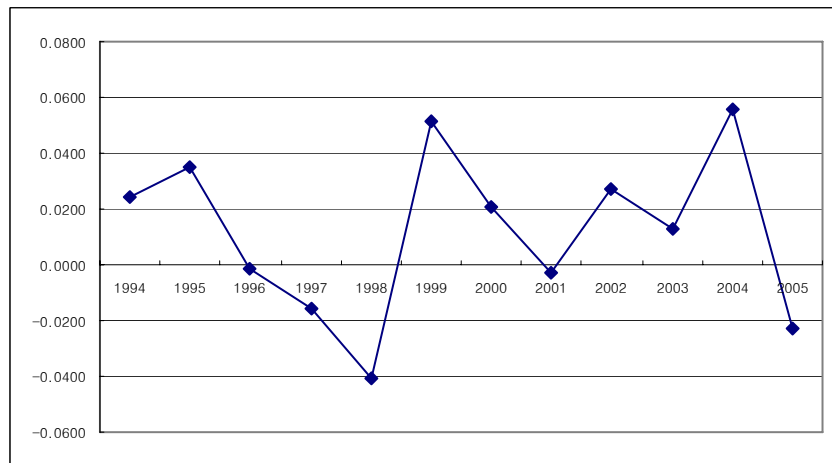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양의 증가율을 보였고,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 평균 증가율은 1.15%였다. 기간별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증가율은 1.03%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1.47%로 조금 상승하였다.

[그림 4-1]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백만원/명)



[그림 4-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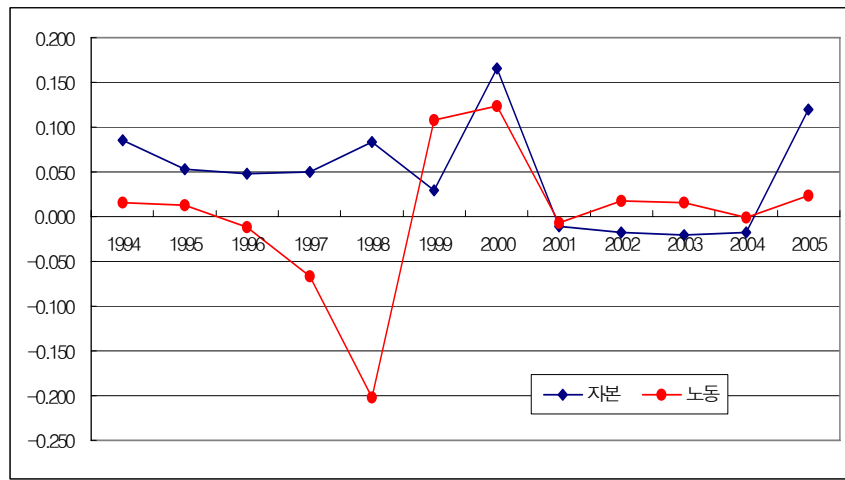


<표 4-2>는 각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전 기간에 걸쳐서는 자본 기여율이 18%, 노동 기여율은 0%, 중간재 기여율은 66%,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 투입요소인 자본, 노동 및 2차 투입요소인 중간재로 구성된 생산요소 기여율이 84%에 이르고,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16%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환위기 전후로 산출기여율에서의 변화는 주로 자본과 노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본기여율은 외환위기전 27%에서 10%로 감소하였으나, 노동기여율은 -3%에서 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두 가지 투입요소 모두 기여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설비투자의 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기피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2〉 산출기여율의 변화

	1994~1997	2000~2005	1994~2005
자본기여율	0.27	0.10	0.18
노동기여율	-0.03	0.03	0.00
중간재기여율	0.60	0.71	0.66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6	0.16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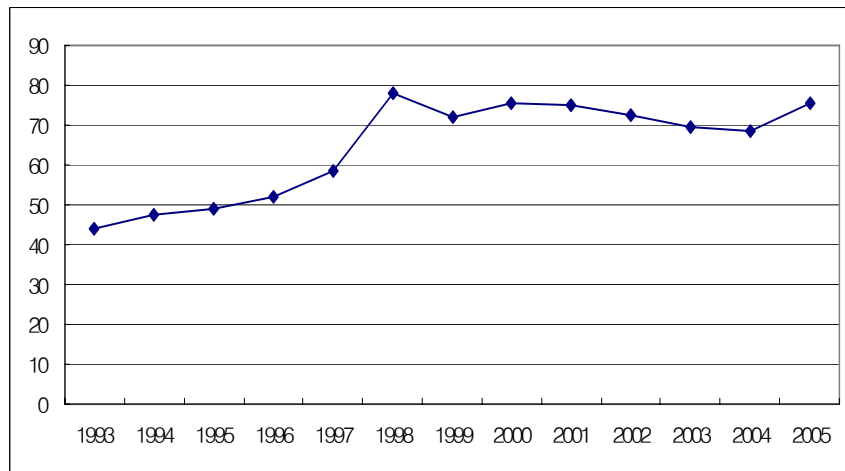
[그림 4-3] 자본 및 노동투입 증가율 추이



[그림 4-3]은 자본 및 노동투입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노동투입은 외환위기 시기 및 회복과정에서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본의 증가율은 외환위기를 전후를 비교할 때 상당히 이질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대체로 5~10% 전후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로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외환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의 투자행태와 비교된다(Pyo and Ha, 2006). [그림 4-4]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본투입의 부진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서 노동장비비에 뚜렷하게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노동장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명)



제2절 산업 간 양극화와 중요소생산성

1. 제조업 중분류별 중요소생산성 추이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산업별로 1994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중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빠른 업종은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1.90%), 화합물 및 화학제품(1.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2%) 등이었고, 느린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0.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0.0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0.02%)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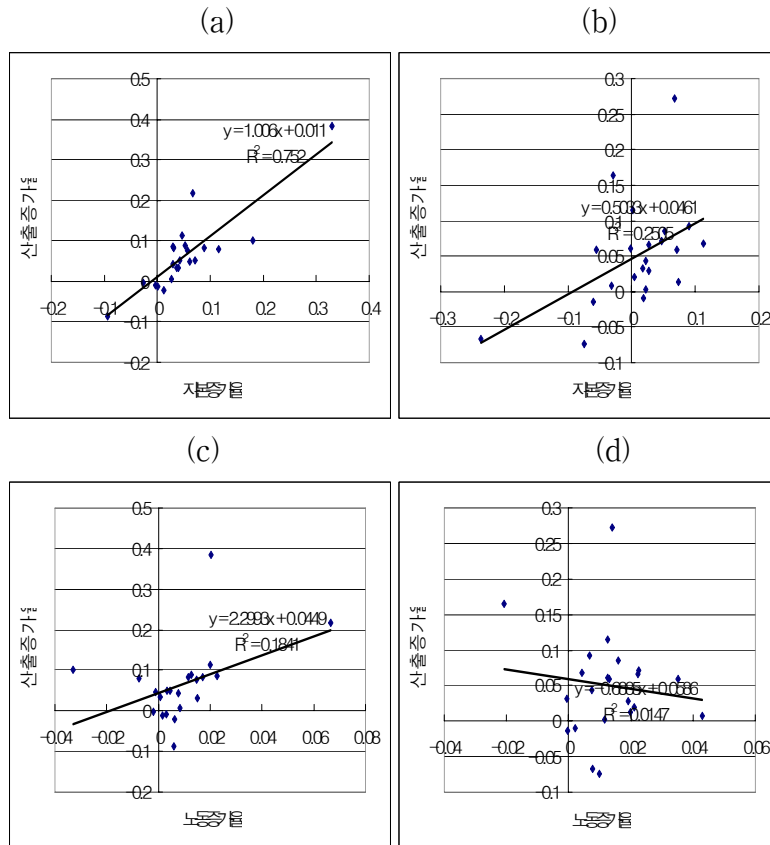
이와는 별도로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반대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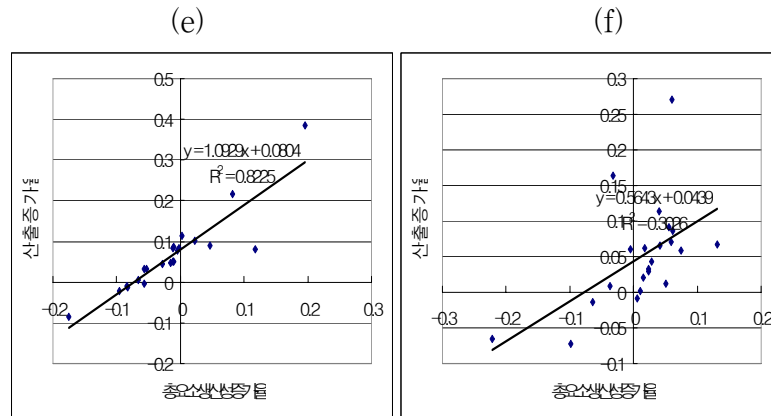
〈표 4-3〉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추이

	평균 노동생산성 (백만원/명)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994-1997	2000-2005	1994-2005	1994-1997	2000-2005	1994-2005
15,16	56	97	77	0.0475	0.0691	0.0612
17	37	47	43	-0.0110	-0.0400	-0.0134
18	29	38	33	0.0059	0.0510	-0.0083
19	32	45	39	-0.0883	-0.0626	-0.0586
20	38	48	44	-0.0235	0.0479	-0.0004
21	56	82	71	0.0401	0.0326	0.0397
22	51	63	58	0.0511	0.0480	0.0405
23	478	611	574	0.0989	0.1497	0.1035
24	108	166	140	0.0812	0.0777	0.0724
25	45	59	53	0.0519	0.1177	0.0879
26	65	107	88	0.0320	0.0631	0.0242
27	95	160	128	-0.0019	0.1548	0.0751
28	45	50	48	0.0900	0.1116	0.0656
29	48	67	58	0.0763	0.1125	0.0617
30	63	130	96	0.0298	-0.2549	-0.1282
31	45	60	53	0.0841	0.0634	0.0678
32	93	137	121	0.1052	0.1678	0.1367
33	37	52	45	0.0863	0.1010	0.0820
34	58	115	87	0.0784	0.1417	0.0792
35	72	88	85	0.2149	-0.0603	0.0527
36	36	44	40	-0.0134	0.0704	0.0191
37	57	63	59	0.3720	0.1346	0.2031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 추이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은 각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각 산업별로 제품주기에서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시장상황, 해외시장에의 접근성 및 신기술의 등장 여부에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4-5] 산출과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산출증가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종전에는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 요소 투입이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와 같은 관계가 매우 약해졌다.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와 산출 증가의 뚜렷한 상관관계 역시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요소로부터의 기여도는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5]의 (a)와 (b)는 각각 1994~97년과 2000~05년의 자본증가율과 산출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에서는 뚜렷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b)에서는 매우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의 (c)와 (d)는 동일기간동안의 노동증가율과 산출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시기 모두 설명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e)와 (f)의 경우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산출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도 2000년대 들어서 설명력이 매우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공업, 중화학공업 간 중요소생산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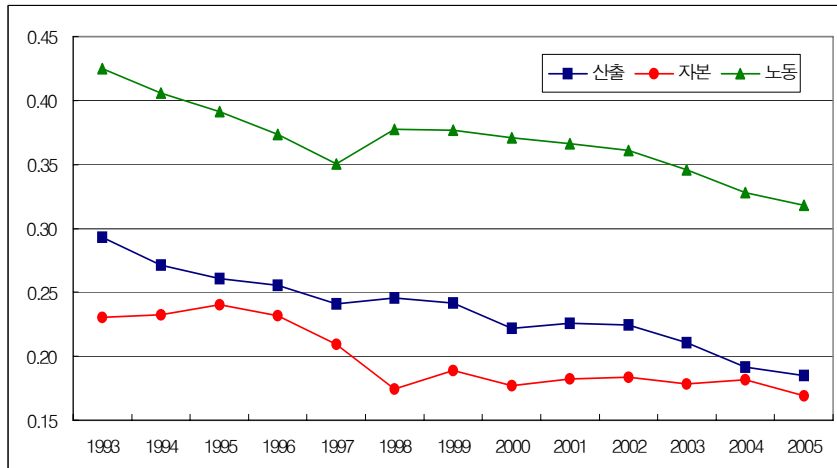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분류는 <표 4-4>와 같다.

<표 4-4>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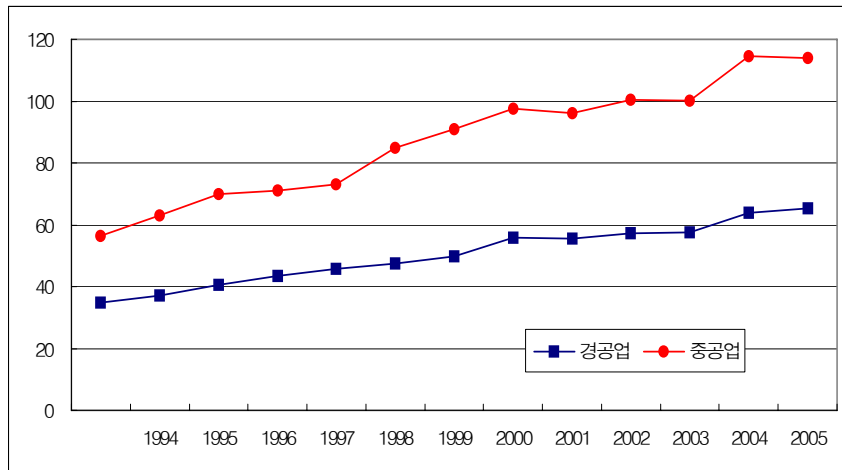
경공업	중화학공업
음식료품 제조업 및 담배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 1차 금속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생산업

[그림 4-6]에서 보듯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상대적인 비중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에서의 산출 비중은 1993년에 29%였으나 2005년에는 19%로 감소하였고, 자본 비중도 1993년에 23%에서 2005년에 17%로 감소되었으며, 노동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32%로 감소하였다.

[그림 4-6] 경공업의 산출과 생산요소 추이



[그림 4-7] 노동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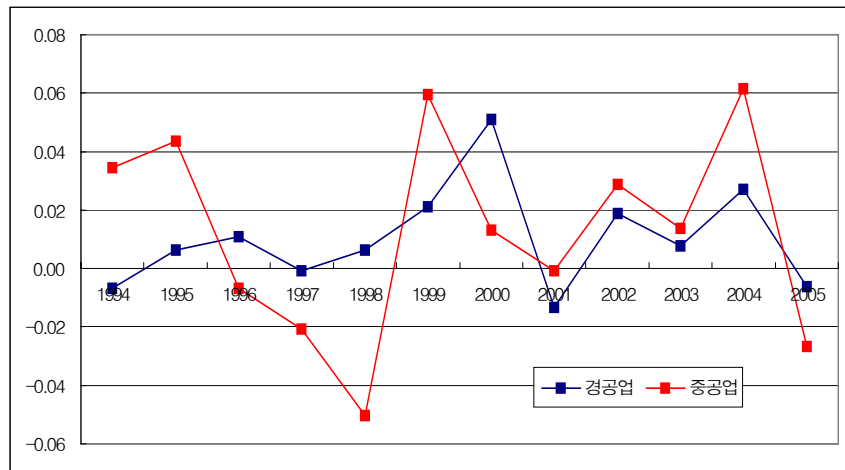


경공업에서 산출과 노동투입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대비 노동생산성 수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1998년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자본투입의 증가와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 확대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쳐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5.15%, 5.71%로서 큰 차이가 없으며, 1994~97년과 2000~05년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6.71%, 6.34% 및 4.41%, 3.62%로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식(4-1) 및 식(4-2)를 이용하여 구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의 추이는 [그림 4-7] 및 [그림 4-8]과 같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양 산업 모두 대체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공업의 경우 1993년에 1인당 부가가치는 3,500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6,500만원으로서 1.87배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3년에 5,700만원에서 2005년에 1억 1,400만원으로 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양 산업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자본투입량의 차이로 인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의 경우가 경공업에 비하여 전 기간에 걸쳐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4~97년의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공업은 평균 0.24%, 중화학공업은 1.23%였으며, 2000~05년에는 경공업은 1.40%, 중화학공업은 1.46%로 나타났다.

[그림 4-8]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사이에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차이는 자본 및 노동투입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경공업의 자본비중은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1998년을 전후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전후 기간에는 각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노동투입 비중과 비교할 때 경공업에서의 노동장비율은 [그림 4-9]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투입의 차이로 인해 경공업에서의 중화학공업 대비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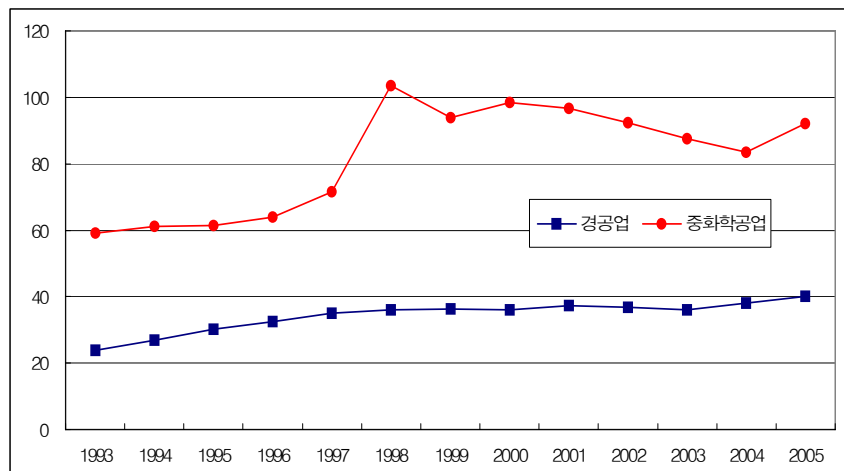
<표 4-5>는 각 생산요소 및 중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경공업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서는 자본기여율이 17%, 노동기여율

은 -10%, 중간재기여율은 64%,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30%로 나타났으나, 중화학공업의 경우 자본, 노동, 중간재,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각각 18%, 2%, 66%, 15%로 나타났다.

〈표 4-5〉 산출기여율의 변화

		1994~1997	2000~2005	1994~2005
경공업	자본기여율	0.65	0.09	0.16
	노동기여율	-0.65	0.00	-0.10
	중간재기여율	0.84	0.64	0.65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6	0.27	0.29
		1994~1997	2000~2005	1994~2005
중화학 공업	자본기여율	0.24	0.10	0.18
	노동기여율	0.03	0.04	0.02
	중간재기여율	0.58	0.72	0.66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5	0.14	0.15

[그림 4-9] 노동장비율의 추이



3.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중요소생산성 차이

1991년부터 2005년 동안 수출비율 변화에 따라 수출비율증가산업, 수출비율유지산업, 수출비율감소산업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산업분류

분류	산업명	1991년	2005년	차이
수출 비율 증가 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3413	0.6524	0.31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380	0.4012	0.263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570	0.3251	0.168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1590	0.3223	0.163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0968	0.2230	0.126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1730	0.2846	0.1116
수출 비율 유지 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573	0.1560	0.0987
	담배 제조업	0.0492	0.1225	0.073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519	0.6149	0.063
	섬유제품 제조업	0.3797	0.4424	0.0627
	제 1차 금속산업	0.1307	0.1704	0.039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261	0.0598	0.033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1717	0.1966	0.024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115	0.0117	0.0002
	음식료품 제조업	0.0366	0.0350	-0.001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1583	0.1481	-0.01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0384	0.0213	-0.017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6689	0.5809	-0.088	
수출 비율 감소 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5066	0.3428	-0.163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3659	0.1989	-0.16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9774	0.7482	-0.229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9926	0.2563	-0.7363
	제조업전체	0.2261	0.3194	0.0933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비율 변화에 따른 분류는 산출, 자본, 노동 등에서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전반적인 추세는 수출비율이 감소한 산업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출에 있어서는 수출비율증가산업은 1991년에 34%였던 비중이 2005년에 41%로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율유지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51%에서 54%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수출비율감소산업은 15%에서 4%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에 생산요소투입은 약간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비율증가산업의 경우는 자본투입 비중이 1993년에 37%였던 것이 2005년에 31%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수출비율감소산업의 경우도 7%에서 2%로 감소하였으나, 수출비율유지산업의 경우는 동 기간에 56%에서 67%로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자본투입 증가가 수출비율유지산업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투입의 경우 수출비율증가산업 및 수출비율유지산업 모두에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비율감소산업에서의 노동비중 감소와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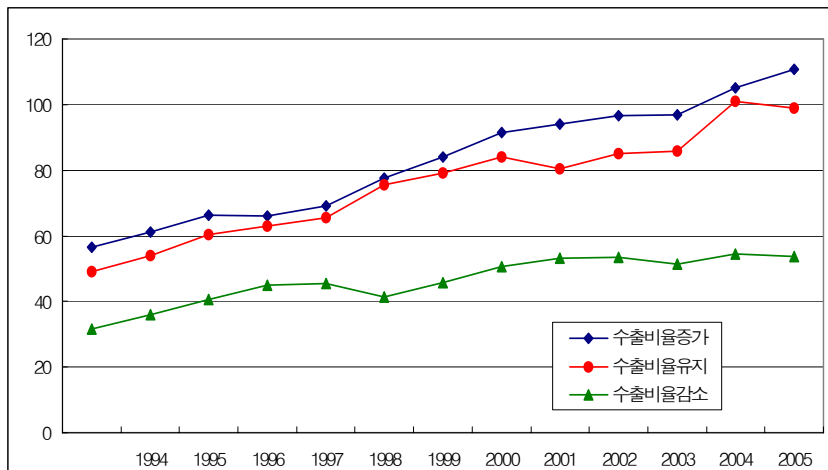
〈표 4-7〉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업종군의 비중변화

		수출비율증가	수출비율유지	수출비율감소
산출	1993	0.34	0.51	0.15
	2005	0.41	0.54	0.04
	차이	0.07	0.04	-0.11
자본투입	1993	0.37	0.56	0.07
	2005	0.31	0.67	0.02
	차이	-0.05	0.10	-0.05
노동투입	1993	0.27	0.52	0.21
	2005	0.32	0.59	0.09
	차이	0.05	0.07	-0.12

〈표 4-8〉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994~1997	2000~2005	1994~2005
수출비중증가산업	0.0115	0.0248	0.0149
수출비중유지산업	0.0091	0.0088	0.0099
수출비중감소산업	0.0101	0.0143	0.0139

[그림 4-10] 수출비율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추이



〈표 4-9〉 수출비율 변화에 따른 산출기여율 변화

		1994~1997	2000~2005	1994~2005
수출비율 증가산업	자본기여율	0.21	0.00	0.10
	노동기여율	0.05	0.03	0.01
	중간재기여율	0.61	0.75	0.70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3	0.22	0.18
		1994~1997	2000~2005	1994~2005
수출비율 유지산업	자본기여율	0.30	0.18	0.24
	노동기여율	-0.03	0.05	0.02
	중간재기여율	0.59	0.68	0.62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4	0.09	0.13
		1994~1997	2000~2005	1994~2005
수출비율 감소산업	자본기여율	1.44	0.33	0.47
	노동기여율	-3.89	0.11	0.24
	중간재기여율	0.15	0.79	0.65
	총요소생산성기여율	3.29	-0.23	-0.3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출비율증가산업의 경우 산출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소투입증가속도가 자본을 중심으로 매우 더딘 편이므로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2005년 동안 수출비중 증가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49%로서 매우 높으며, 특히 2000년대의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48%로서 1994~97년의 1.15%보다 높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4-9>에서 수출비율증가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18%로 수출비율유지산업에서의 13%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4~97년의 13%에서 2000~05년에는 22%로 증가하였다.

수출비율유지산업의 경우는 1994~97년과 2000~05년을 비교할 때 자본

기여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노동기여율이 -3%에서 5%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1994~97년 기간동안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14%로서 수출비율증가산업과 거의 동일했으나 2000~05년에는 9%로 감소하여 13%에서 22%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수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3절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의 분류는 50인 이하의 기업을 소기업, 50~299인의 기업을 중기업,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경제학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규모별 임계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threshold effect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기업규모의 분포는 신설기업의 등장, 기존 기업의 퇴출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편향된 형태로서 로그정규분포에 가까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³²⁾ 실제 우리나라의 광공업 통계조사에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1995, 2000, 2005년의 기업크기의 로그값의 Jarque-Bera 검정은 모두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분포의 모수값은 <표 4-10>과 같고 분포는 [그림 4-11]과 같다.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편향된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Luis M. B. Cabral and Jose Mata, "On the Evolution of the Firm Size Distribution: Facts and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No. 2, 1992.

〈표 4-10〉 제조업 기업분포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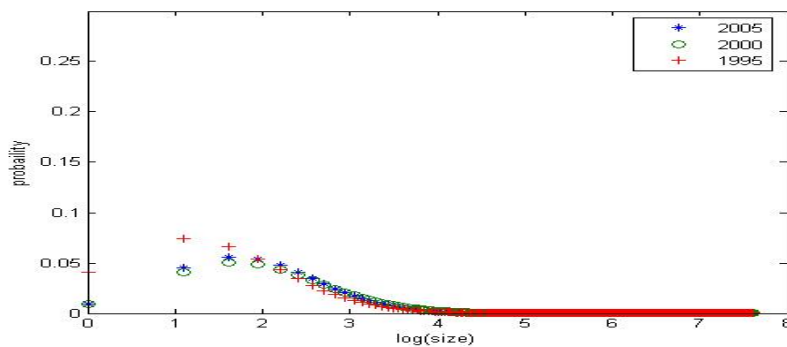
	μ	σ
1995	2.1838 (0.0026)	1.0275 (0.0019)
2000	2.5739 (0.0023)	0.9315 (0.0017)
2005	2.4773 (0.0014)	0.8873 (0.0014)

주 : 1) 괄호안은 표준오차

2) log-normal 분포의 pdf는 $f(x; \mu, \sigma) = \frac{e^{-(\ln x - \mu)^2 / 2\sigma^2}}{x\sigma\sqrt{2\pi}}$

기업규모의 구분이 인위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생산요소의 투입, 산출의 결정 등에 있어 규모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림 4-11] 제조업의 기업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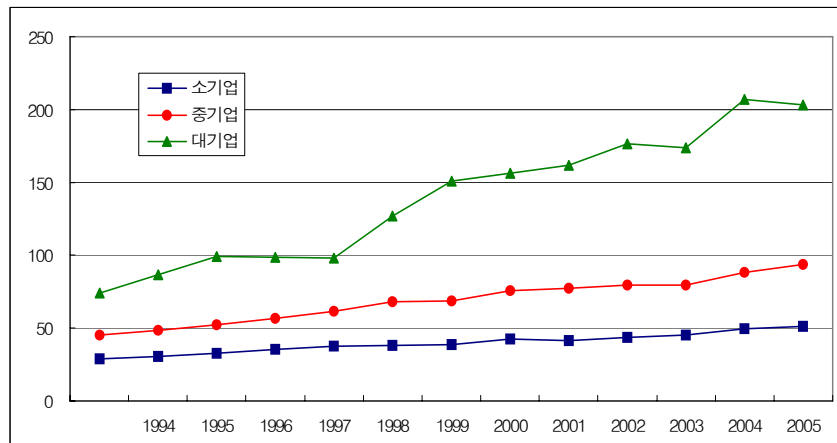


1. 기업규모와 노동생산성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그림 4-12>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백만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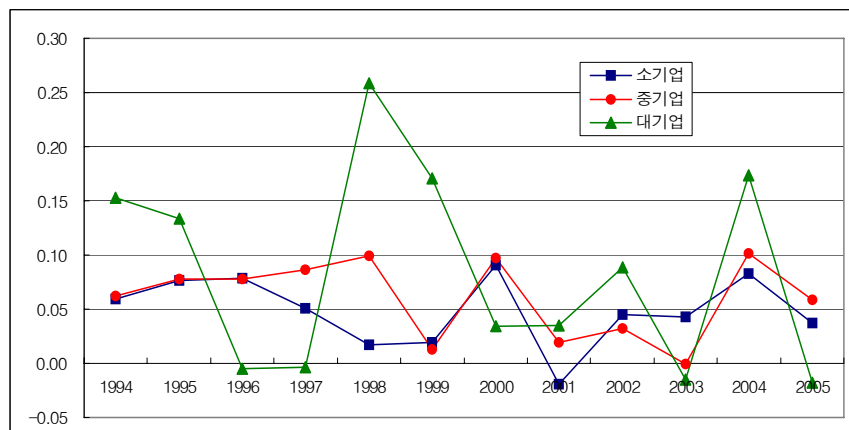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2005년 기간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중·소기업 각각 8.4%, 6.1%, 4.8%로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조금씩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별로는 기업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4-13]처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컸으나, 1996년과 1997년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되어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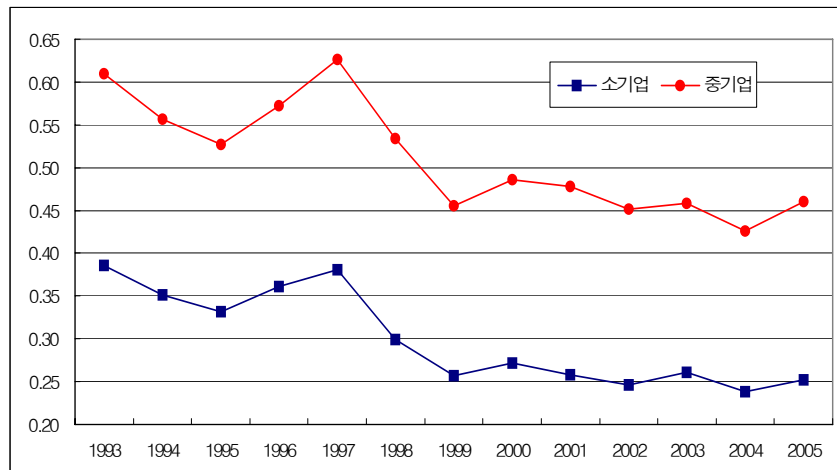
가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일시적 정체현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환위기시기를 지나고 1999년과 2000년에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로는 다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수익성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같은 정도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설명한 대기업 노동생산성 기준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그림 4-14]와 같다.

2000년대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성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극화의 현상중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원인으로서 생산성 비교는 설명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그림 4-1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 (대기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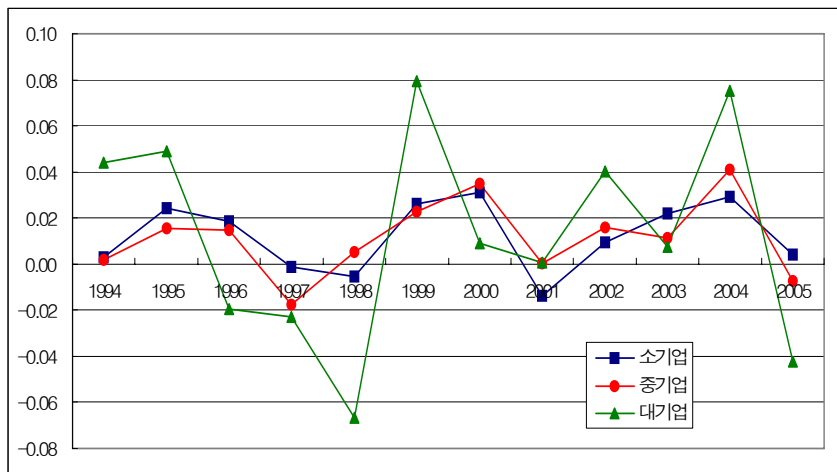
2. 기업규모와 총요소생산성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자본투입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각종 투자 지원제도 및 투자행태가 명백히 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의 단순비교는 실제 생산성의 차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에서의 양극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4-15]는 대·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행태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화외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는 1994~97년의 기간과 2000~05년의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기업의 경우 1.11%에서 1.25%로, 중기업의 경우는 0.35%에서 1.59%로, 대기업의 경우는 1.21%에서 1.45%로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요소 투입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산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15]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표 4-11〉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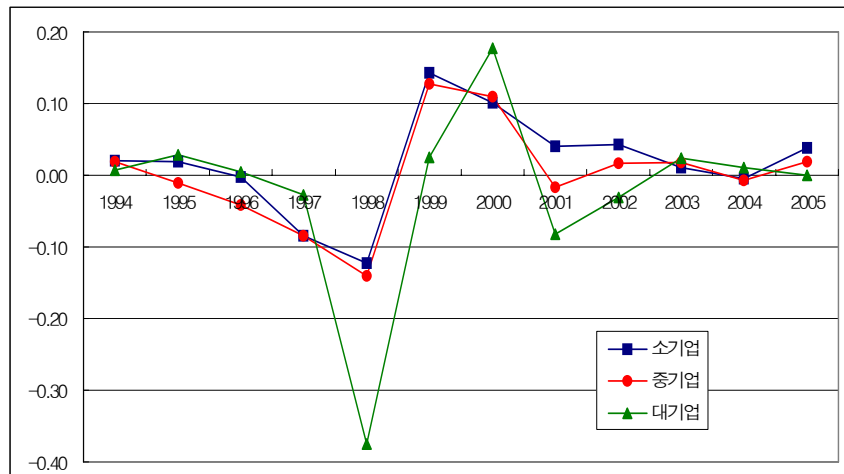
	1994~1997	2000~2005	1994~2005
소기업	0.0111	0.0135	0.0121
중기업	0.0035	0.0159	0.0115
대기업	0.0121	0.0145	0.0119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을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전기간에 걸쳐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은 대중소기업 각각 18%, 16%, 16%로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특히 중기업에서의 기여율이 6%에서 18%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20%에서 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증가에 대한 기여율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 기여율은 대·중소기업 모두 기여율이 낮아지고 노동 기여율이 높아진 점이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여율이 높아졌다. 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기업은 -7%에서 3%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1%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그림 4-16]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투입증가가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표 4-12〉 기업규모별 산출기여율

		1994~1997	2000~2005	1994~2005
소기업	자본기여율	0.21	0.14	0.16
	노동기여율	-0.03	0.05	0.03
	중간재기여율	0.67	0.67	0.66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15	0.13	0.16
		1994~1997	2000~2005	1994~2005
중기업	자본기여율	0.34	0.11	0.19
	노동기여율	-0.07	0.03	0.00
	중간재기여율	0.67	0.68	0.65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06	0.18	0.16
		1994~1997	2000~2005	1994~2005
대기업	자본기여율	0.28	0.08	0.20
	노동기여율	0.01	0.01	-0.04
	중간재기여율	0.52	0.75	0.66
	총요소생산성기여율	0.20	0.16	0.18

[그림 4-16] 기업규모별 노동투입증가율



그러나 이상과 같은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의 차이 및 생산요소 투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기간 동안의 인위적인 조정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처럼 외환위기 이전에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노동생산성증가율과 동일하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기 힘들다. 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는 2000년대에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제4절 양극화와 생산성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양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산업의 관점에서도 양극화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소매유통업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대형할인점, 무점포판매업 등 대형화의 이점을 활용한新店태와 소규모의 기존 소매점과의 상충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제조업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업종과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간의 수익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및 기업규모별 수익성 차이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히 그 격차가 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 되어 왔다.

이처럼 양극화의 문제는 분야의 다양성 및 범위에서의 광범위함으로 인

하여 통일된 접근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으로 대응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라는 개념의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주현·조덕희(2006)에 따르면 양극화의 정의에 대하여는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2000년대 이후 대·중소기업간의 경영성과 차이, 즉 수익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시도를 하였다.

한 기업의 성과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내지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요인 외에도 시장지배력, 거시적 경제환경, 정부의 정책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파악은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익률로 파악된 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비교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성과와 집중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산업조직론에서의 매우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부분이다. 하버드 학파로 불리어온 학파의 경우는 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시카고학파의 경우는 기업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비용상의 이점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는 이러한 학파간의 비교 내지는 수익률-생산성 간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분석될 수 있다.

주현·조덕희(2006)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차이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지적되었던 2002~04년에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의 경우는 1995년에 5.1%p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04년 기간 중 크게 확대되어 2004년에는 5.3%p까지 확대되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률만큼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2002~04년에 2~4%에서 크게 변동이 없지만, 대기업은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차이와는 반대로 본 장 제 3절에서의 분석에서 보듯이 동 기간에서의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에서의 차이는 그다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그림 4-14]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전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오히려 양극화 문제가 지적된 2002~04년에는 거의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도 <표 4-11>에서 보듯이 동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차이 및 생산성 차이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현재의 수익률 격차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비경제적 요인 및 거시적, 정책적 차이에 의한 격차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

제1절 서 - 한중 교역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경기변동 과정에서의 산업 간 양극화 추이다. 통상적으로 산업들은 공통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산업 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연유로 서로 비슷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기변동 과정에서 산업들이 이처럼 비슷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산업의 공행성(comovement)이라 부른다. 그런데 산업 양극화는 산업들이 이러한 공행성과 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 양극화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양극화는 중간계층의 빈도가 감소하고 개체들이 양 극단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지칭하지만, 산업 양극화라는 개념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산업 양극화는 복수의 산업(군)이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혹은 상호 간의 격차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지칭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산업 양극화로 지칭되는 현상들도 대체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기변동 과정에서 산업들이 서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혹은 수출업종과 내수업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업종과 비IT업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군들 간에 격차를 확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는 현상들을 일컬어 산업 양극화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인 순환적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산업 양극화의 배경은 그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변동의 특징이나 혹은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경기변동적 요인으로서의 예컨대 최종수요 부문별로 경기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은 호조인 반면 내수가 부진한 경우 수출업종과 내수업종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순환적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양극화는 비교적 단기적인 현상인 반면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양극화는 보다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원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술적 요인(예컨대 IT 혁신이나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등)이나 제도적/환경적 요인 (글로벌화 진전 등), 발전단계 내지 수요구조 변화(탈공업화, 중화학공업화) 등의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 양극화 현상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한중 간 교역과 양극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 그 자체로 본다면 한중 교역 확대는 한국경제의 개방화 진전이나 글로벌화 확대 추세의 일환이라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 개방화 진전이나 총교역 확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교역 측면에 굳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부분이 최근의 산업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변수는 최근의 한국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인구 13억의 초대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수십 년 간 지속하는 사례는 세계경제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그만큼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웃하여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의 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의 부상은 한국 산업의 성장이나 구조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는 한중관계 변화 추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 바로 한중 교역 측면이다.

둘째로 한국의 대외교역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교역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대국의 하나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한중 교역의 위치나 높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중 교역은 한국의 대외교역상의 변화 추이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교역은 산업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교역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에 비해서도 산업별 양상이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즉 단순히 교역 규모가 크다는 점을 떠나 산업 간 영향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한중 교역은 산업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역의 산업별 구조의 측면에서 한중 교역은 전체 교역의 산업별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체 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집약적으로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한중 교역은 교역의 측면에서나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최근 한국의 산업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산업 양극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전체 교역보다 오히려 한중 교역에 주목하는 것이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한중 교역이 한국의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본장의 분석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대중 교역의 추이를 살펴본다. 4절과 5절은 본장의 본문에 해당하는 대중 교역의 산업별 효과의 추정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한중 교역과 산업양극화 간의 관계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향후 변화추이를 간략히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1. 한중 교역의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방법

한중 교역과 한국 산업의 양극화 내지 산업 간 격차 확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 교역이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산업의 대중 순수출(수출 - 수입) 규모는 일차적으로 한중 간 교역에 의하여 창출되는 한국의 해당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에 해당한다. 한중간 교역에 의하여 창출되는 이같은 최종수요는 다시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산업의 대중 교역은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별 대중 교역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이처럼 개별 산업의 대중 교역으로부터 창출되는 각 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

치 유발액을 구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경제 내에 n개의 산업이 존재하고 이중 m개의 산업이 대중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대중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j 산업의 대중교역으로부터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국민경제 내의 i 산업에 창출되는 생산유발액을 P_{ij} 라 표시하면, 이는 j 산업의 순수출 규모와 투입계수 행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P_{ij} = F(A_d, (X_j - M_j)) \quad i = 1, \dots, n, \quad j = 1, \dots, m \dots\dots\dots \text{식(5-1)}$$

(A_d 는 비경쟁수입형 국산투입계수행렬, X_j, M_j 는 j 산업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³³⁾

이제 대중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P_{ij} 를 합산하면, 특정년도의 대중 교역 전체로부터 i 산업에 창출되는 생산유발액(P_i)을 구할 수 있다.

$$P_i = \sum_{j=1}^m P_{ij} \dots\dots\dots \text{식(5-2)}$$

부가가치 유발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생산유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렬식의 계산을 통해 산업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구하여진다.³⁴⁾

33) 뒤에서 성장기여를 추정하므로, 실제 추정에서는 산업별 수출입을 모두 2000년 가격기준으로 불변화하여 사용하였다. 수출입의 불변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원화 기준 산업별 수출입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P = (I - A_d)^{-1} (X_c - M_c) \dots\dots\dots \text{식(5-3)}$$

$$V = \widehat{A}_v (I - A_d)^{-1} (X_c - M_c) \dots\dots\dots \text{식(5-4)}$$

(P, V 는 각각 산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 벡터, \widehat{A}_v 는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 X_c, M_c 은 각각 산업별 대중국 수출 및 수입액 벡터)

아울러 이같이 구한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의 연도별 추정치와 실제 산업별 부가가치 총액 자료를 이용하면, 한중 교역의 산업별 성장기여도도 구할 수 있다. 뒤에서는 주로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과 성장기여도를 토대로 한중 교역과 산업 간 양극화의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산업 간 양극화가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서, 산업별 영향 추정을 위한 분석기간은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증가를 보였으므로 시계열을 1990년대 초부터로 확장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는 대중 교역의 시발기로서 산업별 교역량의 변동이 심하고 교역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또 1990년대 후반은 외환위기에 의한 특이 변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000년대에 초점을 맞출 경우 보다 최근의 산업별 구조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다 중시하여,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다만 분석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일시적 요인에 의한 산업별 수출입의 단기적 변화가 추정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4) 이같이 구한 대중 교역의 효과는 엄밀히 말하면, 대중 교역의 총효과(gross effect)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순효과(net effect)는 여기서 대중 수출입이 제3국에의 수출입이나 내수를 대체한 효과를 차감한 것이 될 것이다. 이같은 대체효과의 크기는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그 크기도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무역협회의 무역통계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세 부산업별 부가가치 통계,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산업의 분류 및 범위는 <표 5-1>과 같다.

<표 5-1> 분석대상산업의 무역통계 및 생산통계 분류

번호	산업명	무역통계 분류 (SITC rev.3)*	국민계정 산업세분류*	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1	1차산품 및 음식료	0, 1, 2, 32, 333, 343, 4	1~12	1~18
2	섬유	65	13	19, 20, 22
3	의류	84	14	21
4	신발, 가죽제품	61, 85	15, 16	23
5	나무 및 종이제품	63, 64	17, 18	24, 25
6	인쇄출판	892	19	25, 26
7	석유, 석탄제품	3 (32, 333, 343 제외)	20	27, 28
8	화학	5 (58 제외)	20~23	29~35
9	플라스틱, 고무제품	58, 62	24, 25	36, 37
10	비금속광물제품	66	26~28	37~41
11	철강 및 금속제품	67~69	29~31	42~45
12	일반기계	71~74	32, 33	46, 47
13	가정용 전기기기	775	34	52
14	컴퓨터 및 사무기기	75	35	51
15	전기기계	771, 773	36	48
16	반도체 및 전자부품	772, 776, 778	37	49
17	영상음향통신기기	76	38	50
18	자동차	78 (785 제외)	40	54
19	기타 수송기계	79	41	55, 56
20	정밀기기	774, 87, 88	39	53
21	기타제조업 제품	785, 81~84, 89(892제외), 9	42, 43	57, 58
22	부품소재산업	2, 8, 11, 16 **		
23	기계류 산업	12~15, 17~19 **		

주 * : 각각 무역통계(SITC), 국민계정 산업세분류, 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상의 분류번호

** : 표 가장 좌측열의 분류번호

2. 산업 간 양극화의 개념과 지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절에서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 추정치를 구하면, 다시 이를 토대로 5절에서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논의하게 될 산업 양극화의 개념과 지표에 대해 설명해 두고자 한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 양극화는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산업 양극화라는 개념은 대체로 산업(군)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군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실적으로 서로 대응되는 산업군들의 쌍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응 산업군 간의 격차 변화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업종과 비IT업종, 농림어업과 비농림업 등간의 비교가 그런 경우이다.

이처럼 양극화를 기존 논의에 따라 산업(군)들간의 격차 확대로 간주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양극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 간 격차를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양극화 논의가 본래 시발된 개인들의 소득 양극화 문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지표로 사용되지만, 산업의 경우에는 소득에 해당하는 산업별 부가가치를 지표로 사용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서로 동질적인 개인과 달리 산업은 당초부터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개인들에서의 소득 격차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산업분류가 상대적으로 상세한 제조업 업종과 그렇지 않은 1차 산업 혹은 서비스업종을 비교하면 제조업 부문의 단위업종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경우 산업별 부가가

치 규모 격차를 개인의 소득 격차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또 이처럼 본래적으로 산업 간 규모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별 부가가치의 분포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그 분포의 변화가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산업 양극화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 양극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와 같은 일차적인 규모 변수보다는 규모에 대해 중립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 양극화의 경우에는 일단 규모에 대해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논의에서 양극화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성장률 추이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성장률은 負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논할 때 흔히 사용되는 양극화 지수나 지니계수 등을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는 예컨대 성장률을 지표로 이용한다고 할 때 성장률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응되는 산업군의 쌍의 경우에는 간단하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두 산업군 간의 성장률의 격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산업(군)이 3개 이상의 다수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이 경우 성장률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구성산업들 간의 최대 성장률과 최소 성장률의 차이를 토대로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성장률의 분산을 이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전체 산업의 분포가 아닌 양극단 산업의 성장 추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보다는 성장률의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성장률의 분산을 토대로 양극화를 살펴보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구성 산업들의 성장률의 분산이 커지는 경향

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 최근의 산업 성장률 분산은 대체로 작다. 또 1990년대 초반과 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2000년 이후를 비교하면 후자의 산업 성장률 분산이 약간 작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산업 양극화 문제는 1990년대 초반보다는 오히려 2000년대 들어 현안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 성장률의 분산이 반드시 산업 양극화를 일의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 산업들의 성장률의 분산을 통해 양극화를 살펴보기 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산업들을 산업군으로 묶어 서로 대응되는 복수의 산업군들의 성장률 격차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도 산업군이 4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비교적 동질적인 업종 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소득 양극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분포를 통해 양극화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업 양극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주로 서로 대응되는 산업군의 쌍(pair)의 성장률 격차를 통해 양극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군들은 흔히 논의 대상이 되는 서로 대응 관계를 갖는 산업군들을 선택하였다. 이와 아울러 보조적인 지표로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 주요산업군들 및 개별 업종들의 분산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비교적 동질적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들 간에는 부가가치의 분포를 토대로 한 양극화 관련 지수를 통해서도 양극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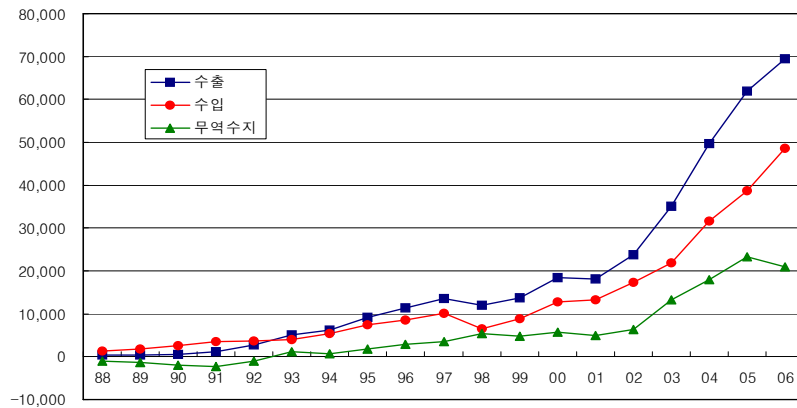
양극화에 속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산업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업 규모 간 양극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측면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하고 교역구조는 한국이 약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중 교역이 우리나라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수출이 약 20%, 수입이 약 15% 정도이며, 특히 국내 산업활동에의 영향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100%를 상회한다([그림 5-1] 및 <표 5-2> 참조).

[그림 5-1] 한중 교역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한중 교역은 이처럼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는 점 이외에도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한중 교역은 한중 수교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짧은 역사를 갖지만, 수교 직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 이후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약 27%, 수입증가율은 28%, 무역흑자규모는 연간 28%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³⁵⁾ 중국의 높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한중 교역의 빠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5-2〉 2000년 이후의 대중국 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평균
규모	수출	18,455	18,190	23,753	35,110	49,613	61,915	69,459	39,499
	수입	12,799	13,303	17,399	21,909	31,676	38,648	48,557	26,327
	무역수지	5,656	4,887	6,354	13,201	17,937	23,267	20,903	13,172
증가율	수출	34.9	-1.4	30.6	47.8	41.3	24.8	12.2	27.2
	수입	44.3	3.9	30.8	25.9	44.6	22.0	25.6	28.2
	무역수지	17.4	-13.6	30.0	107.8	35.9	29.7	-10.2	28.2
비중	수출	10.7	12.1	14.6	18.1	19.6	21.8	21.3	16.9
	수입	8.0	9.4	11.4	12.3	13.2	14.8	15.7	12.1
	무역수지	48.0	52.3	61.4	88.1	68.7	100.4	130.0	78.4

주: 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입증에서 차지하는 비중

35) 다만 2006년 이후에는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반면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흑자규모는 정체 내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중 교역은 교역 규모나 빠른 증가세뿐 아니라 교역의 산업별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국내 산업구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안고 있다. 우선 한중 교역에서는 국내 산업과의 경합성이란 측면에서 국내 산업에의 영향이 미미한 원자재 교역의 비중이 극히 작다. 한중 교역에서 1차산물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대부분은 국내 해당 산업과의 경합성이 높은 농수산물이고 국내 산업에의 영향이 미미한 광물 원자재의 교역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한중 교역은 산업군별로 대조적인 교역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는다.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구조를 살펴보면 일차산품 및 음식료(이하 '농수산물'이라 함)이나 경공업 부문은 무역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화학 부문은 큰 규모의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중 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는 비슷한 특성을 갖는 산업을 묶은 산업군별로 대중 교역구조를 살펴본 것이고 <표 5-4>는 분석대상 세부 산업들을 대중 무역흑자규모가 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 일차산품이나 경공업 부문은 무역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화학공업 부문은 큰 규모의 흑자 상태이다. 이같은 산업군별 한중 교역구조는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의 산업군별 구조와 대체로 유사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보이는 부품소재나 기계류 부문이 대중 교역에서는 수출특화를 보이면서 대중 무역수지 흑자에 가장 큰 기여 부문이 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과거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일 간에 나타났던 교역구조가 한중 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단 한중 간 교역에서는 한국이 한일 교역에서의 일본과 비슷한 위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부업종별로는 무역흑자 규모가 큰 업종은 화학이나 전자, 기계 업종

들이고 반면 일차산품, 의류, 기타제조업 제품 등 경공업제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은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경공업 내에서도 소재에 해당하는 섬유부문은 흑자를 보이는 반면, 소비재인 의류 부문은 비교적 큰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양상으로 중화학공업 내에서도 소비재의 특성이 강한 가정용 전기기기는 무역적자 상태이다. 산업을 소비재/생산재로 구분한다면, 대체로 소비재 부문은 무역적자를 보이는 업종이 많고 반면 중간재나 자본재업종은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3〉 산업군별 한중 교역구조

산업군별	2000~06		2000~06	
	평균수지(백만달러)	수지평균증가율(%)	평균무역특화지수	
1차산품 및 음식료	- 3,173	9.0*	-	0.63
제조업	15,765	18.7	-	0.26
(경공업)	- 1,852	- **	-	0.11
(중화학공업)	17,616	27.2		0.35
(부품소재)	8,420	12.5		0.32
(기계류)	6,624	45.2		0.32

주: 1) 제조업은 음식료 제외 (이하 동일)

2) 중화학공업은 <표 5-1>에서 분류번호 7~20 업종, 경공업은 중화학공업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종을 지칭 (이하 동일).

3) * : 기간중 무역적자 확대, ** : 기간중 무역흑자→적자 전환

〈표 5-4〉 세부산업별 대중 교역구조

세부 산업별	2000~06 평균수지(백만달러)	2000~06 무역수지증가율(%)	2000~06 평균무역특화지수
화학	5,619	20.6	0.64
석유석탄제품	2,122	20.5	0.70
일반기계	2,093	21.0	0.50
영상음향통신	2,002	54.2	0.35
전자부품	1,800	28.7	0.19
정밀기기	1,573	*	0.17
컴퓨터 및 사무기기	1,432	*	0.19
자동차	1,422	65.6	0.86
섬유	898	- 11.5	0.27
신발 및 가죽	307	**	0.26
플라스틱 및 고무	271	11.0	0.55
제품	271	11.0	0.55
목재, 종이제품	112	**	0.21
철강금속	103	*	0.10
인쇄출판	24	- 20.8	0.51
기타수송	14	37.7	- 0.21
가정용전기기기	- 74	-	- 0.29
전기기계	- 265	-	- 0.15
비금속광물제품	- 495	-	- 0.47
기타	- 1,593	-	- 0.39
의류	- 1,601	-	- 0.75
1차산품 및 음식료	- 3,173	-	- 0.63
계	12,599	26.1	0.19

주: 1) “ - ”는 무역적자 확대
 2) “ * ”는 무역흑자 전환
 3) “ ** ”는 무역적자 전환

제4절 한중 교역의 산업별 영향

먼저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한국 산업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5-5>는 한중 교역에 의하여 전산업에 창출되는 부가가치 유발액의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은 2000~06년 평균으로 약 13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이는 동 기간 중 전산업 부가가치의 2.2%에 해당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중교역 규모의 급증을 반영하여 2000~06년 간 연평균 47%의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교역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져 2005년이나 2006년의 경우 동 비중이 3.7~3.9%에 달한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 산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성장기여도도 비교적 높아, 2000~06년 간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는 경제성장에 연평균 약 0.7%p 정도의 성장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산업 성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다만 2005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대중 무역흑자가 2006년에는 정체상태로 돌아서면서 같은 해에는 한중교역 파급효과의 성장기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5-5〉 한중 교역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평균
부가가치유발액 (10억원)	2471	3466	5696	12927	17840	25047	25053	13214
증가율(%)	-15.09	40.27	64.36	126.95	38.00	40.40	0.03	47.12
전산업 부가가치 대비 비중(%)	0.48	0.65	1.00	2.20	2.89	3.89	3.71	2.23
성장기여도(%p)	-0.09	0.19	0.42	1.27	0.84	1.17	0.00	0.72
성장기여율(%)	-1.14	4.88	6.19	41.19	16.51	27.47	0.02	15.44

〈표 5-6〉 산업군별 한중 교역의 부가가치 유발 추이

(단위: 십억원(2000년 불변가격), %)

산업군별 부가가치 유발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평균	평균증 가율
1차+음식료	-2159	-2146	-2439	-2459	-2223	-2818	-2274	-2360	0.9
제조업	3763	4469	6196	11186	14305	19786	19402	11301	31.4
(경공업)	506	328	-79	-54	-496	-749	-1362	-273	-
(중화학)	3257	4141	6275	11240	14802	20535	20765	11574	36.2
(부품소재)	2386	2929	3666	5680	6904	10751	10114	6061	27.2
(기계류)	405	673	2263	4859	6852	8393	8860	4615	67.3
서비스	707	951	1702	3782	5265	7454	7360	3889	47.8
해당산업군의 총부가가치중 비중									
1차+음식료	-5.75	-5.59	-6.54	-6.88	-5.86	-7.42	-6.06	-6.30	-
제조업	2.66	3.11	4.13	7.25	8.25	9.97	9.01	6.72	-
(경공업)	2.43	1.68	-0.39	-0.28	-2.71	-4.33	-8.01	-1.44	-
(중화학)	2.70	3.33	4.84	8.32	9.55	11.34	10.46	7.76	-
(부품소재)	3.92	4.69	6.07	9.11	9.46	12.01	9.98	8.32	-
(기계류)	0.84	1.37	4.11	8.57	10.68	11.53	11.42	7.63	-
서비스	0.28	0.36	0.59	1.30	1.77	2.43	2.30	1.35	-

다음으로 산업군별로 부가가치 유발액을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산업군별로 보면 한중 교역의 산업별 구조를 반영하여, 부가가치 유발액이 산업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역재가 주로 속해 있는 제조업 부문이 2000~06년 평균으로 볼 때 약 11조원(동 기간 중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6.7%)으로 유발액이 크고, 주로 비교역재인 서비스는 산업연관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로서 약 4조원(1.4%)이 유발되었으며, 반면 한중 교역에서 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1차 산업 및 음식료부문은 -2.4조원(-6.3%)으로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도 부문별로 차이가 커서 한중 교역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 중화학부문이나 부품소재, 기계류 업종은 부가가치 유발액의 해당업종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에서 볼 때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인 반면, 무역적자 상태인 경공업 부문은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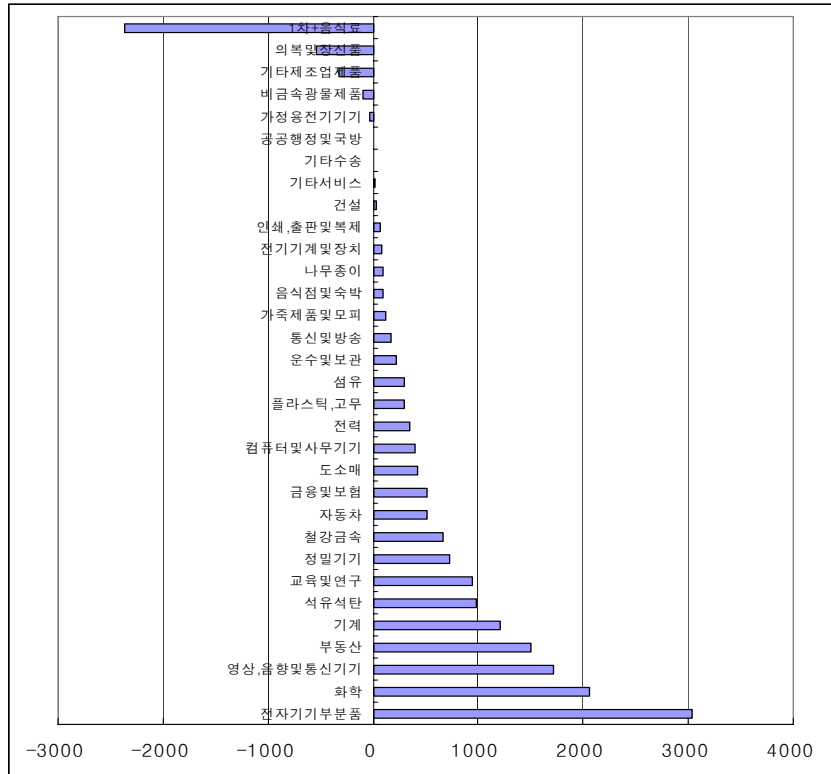
<표 5-7> 한중 교역의 산업군별 성장기여

성장기여도(%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평균
1차+음식료	-2.00	0.03	-0.76	-0.05	0.66	-1.57	1.43	-0.05
제조업	0.27	0.50	1.20	3.32	2.02	3.16	-0.19	1.77
(경공업)	-0.73	-0.86	-2.09	0.12	-2.31	-1.38	-3.54	-1.56
(중화학)	0.47	0.73	1.72	3.83	2.64	3.70	0.13	2.29
(부품소재)	0.68	0.89	1.18	3.33	1.96	5.27	-0.71	2.01
(기계류)	0.34	0.56	3.25	4.71	3.52	2.40	0.64	2.74
서비스	-0.02	0.10	0.28	0.72	0.51	0.74	-0.03	0.44
성장기여율(%)								
1차+음식료	-70.9	1.6	27.1	1.3	10.8	-787.9	-113.4	204.65
제조업	1.5	27.4	27.4	122.6	16.3	21.8	-2.3	24.23
(경공업)	-10.1	13.7	-40.1	-1.9	54.7	25.2	197.6	47.46
(중화학)	2.4	22.8	40.3	91.3	17.9	22.0	1.3	26.38
(부품소재)	3.8	32.8	-35.9	103.9	11.6	23.3	-5.4	22.69
(기계류)	1.3	27.6	26.0	164.2	26.6	17.9	9.7	32.90
서비스	-0.2	1.9	3.3	50.1	29.2	22.3	-0.7	1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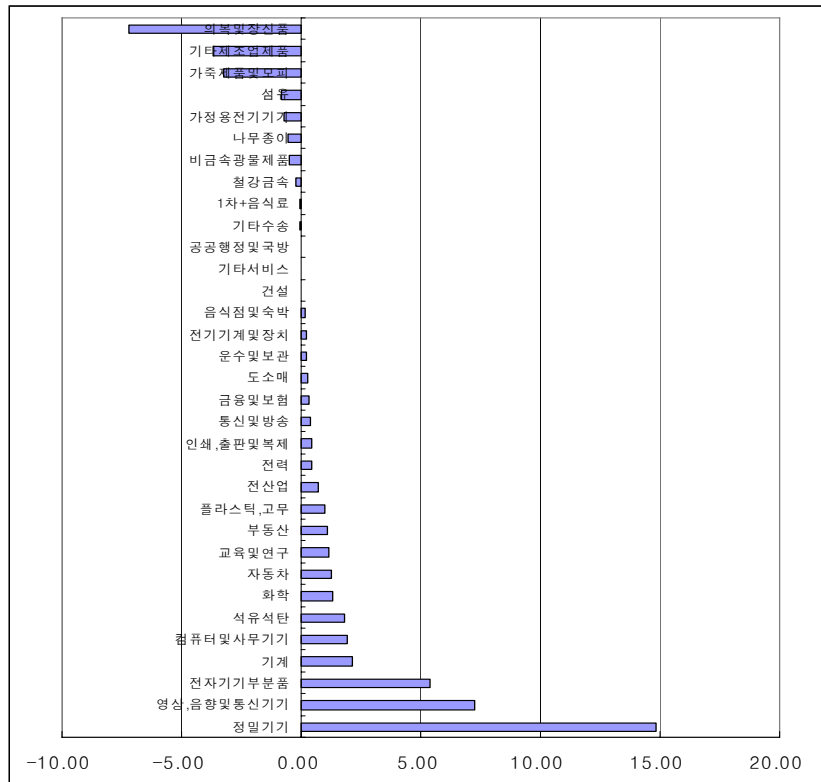
한편 <표 5-7>은 부가가치 유발액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성장기여를 나타낸 것이다. 성장기여도 역시 중화학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아 2000~06년 평균으로 2%p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고 제조업 전체로는 약 1.8%p, 서비스업은 0.4%p 정도의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차 산업과 경공업 부문에서는 각각 약 -0.1%p, -1.6%p의 負의 성장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여율로 볼 때 경공업 부문에 대한 성장기여율은 약 50%에 육박하여 한중 교역 파급효과가 동 부문의 침체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그림 5-2, 3]은 세부업종별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성장기여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세부업종별로 볼 때 파급효과의 업종간 격차는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한중 교역의 업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2000~06년 평균)



[그림 5-3] 한중 교역의 업종별 성장기여도 (2000~06년 평균)



제5절 한중 교역이 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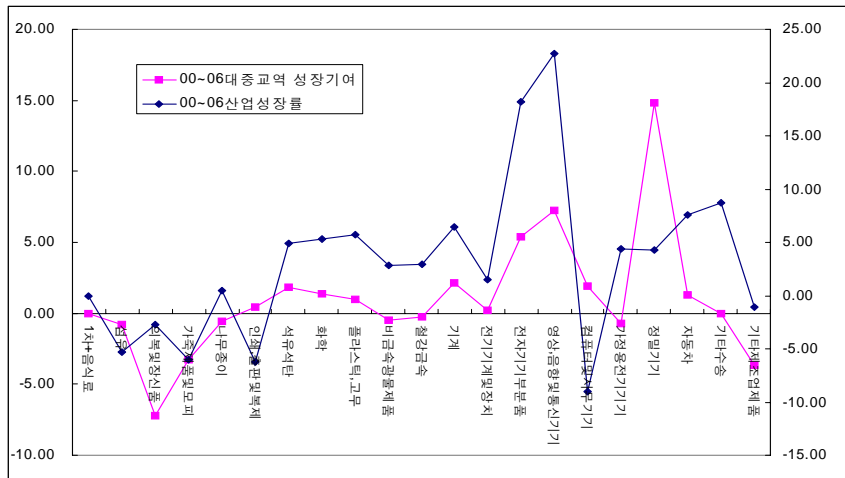
여기서는 앞 절에서 구한 한중 교역의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 혹은 성장기여도 추정치를 토대로,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와 산업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산업양극화의 경우 이를 하나의 지표를 통해 만족스럽게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몇 가지 관련

지표를 통해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산업 성장률 분포와 한중 교역의 기여도 분포

먼저 [그림 5-4]는 2000년 이후 개별 업종의 성장률과 대중 교역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산업 간 성장률의 분포와 대중 교역의 성장기여도 분포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단 대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최근의 산업 간 성장률 차이, 즉 산업 간 양극화 현상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 산업별 성장률과 대중 교역 성장기여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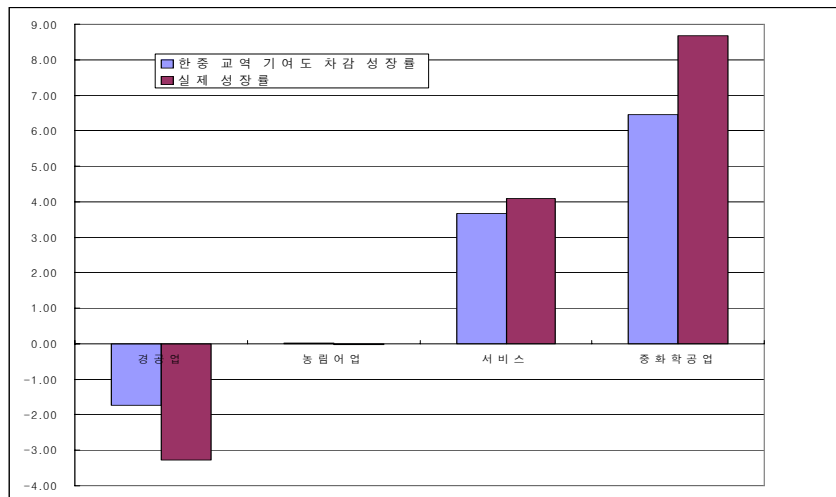


주 : 좌측은 성장기여, 우측은 산업성장률

한중 교역과 산업 간 격차의 관계는 [그림 5-5]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은 1차 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산업의 4대 산업 부문의 2000~06년 간 실제 연평균성장률과 한중 교역효과가 없었을 경우

의 산업별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성장률은 실제 산업별 성장률에서 한중 교역의 기간 중 성장기여도를 차감하여 구하였다. 그림에서 보듯 4대 부문의 성장률 분포는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실제 성장률에서 산업 간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산업별 성장률의 순위와 한중 교역 성장기여도 크기의 산업별 순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교역 효과는 성장세가 높은 산업일수록 그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산업에 대해서는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대 산업 부문의 경우 한중 교역이 이견의 여지없이 산업 간 성장률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림 5-5] 4대 산업군의 실제 성장률과 한중 교역 효과 배제시 성장률 비교



다음으로는 이같은 한중 교역의 산업간 성장 격차 확대 효과를 산업별 성장률 분포의 분산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실제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과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산업별 성장률 분산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한중 교역 효과가 산업별 성장률 분포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먼저 <표 5-8>의 윗부분은 그림에서 살펴본 4대 부문을 대상으로 분산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 2000~06년 평균으로 볼 때 4대 부문 실제성장률의 분산은 한중 교역 파급효과의 기여를 차감하였을 때의 성장률 분산에 비해 약 2배 정도 크다. 이는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같은 기간 중 4대 부문 성장률의 분산을 약 2배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앞절의 분석에서 사용한 33개 세부업종 분류로 성장률 분산을 살펴보면, 역시 한중 교역 파급효과가 성장률 분산을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그 영향의 크기는 4대 부문의 경우보다는 작아 성장률 분산을 약 1.3배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8> 한중 교역과 업종별 성장률의 분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4대 부문	실제성장률(A)	55.0	25.7	23.4	25.1	63.8	89.8	29.6	27.1
	한중교역 기여 차감 성장률(B)	43.5	20.6	23.1	13.3	36.7	51.5	26.6	13.4
	A/B (%)	126.4	125.1	101.6	189.0	173.6	174.5	111.0	201.9
33개 세부업종	실제성장률(A)	215.0	79.4	134.8	37.3	128.1	325.2	35.6	39.6
	한중교역 기여 차감 성장률(B)	219.8	71.2	127.2	37.1	155.7	317.8	42.4	31.2
	A/B (%)	97.8	111.6	106.0	100.5	82.2	102.3	83.9	126.7

주: 4대 부문은 1차산업(음식료제조업 포함),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업

2. 양극화 지수를 통해 본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

한편 서로 비교적 동질적인 업종들 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양극화 논의에서 사용되는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5-9>는 제조업 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 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의 하나인 Wolfson 지수를 구해 본 것이다.

지수 산출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제조업 20개 업종의 부가가치 자료를 갖고 있다. 이 20개 업종을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정렬한다면, 이는 마치 국민경제의 소득분포에서 최상위 5% 인구의 소득부터 최하위 5% 인구의 소득까지 20분위로 나누어진 각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혹은 총소득) 자료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20개 소득계층 분위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와 Wolfson 지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20개 제조업종의 부가가치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분포의 지니계수 및 Wolfson 지수를 구할 수 있다.³⁶⁾

36) 지니계수와 Wolfson 지수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G(\text{지니계수})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n : 샘플수, μ : 평균값, y_i : 각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여기서는 각 업종의 부가가치)

$$W(\text{Wolfson 지수}) = 2 (2 (0.5 - L(0.5)) - G) \frac{1}{m}$$

L(0.5) : 하위 50% 계층의 소득(부가가치) 점유율, G : 지니계수,

m : 중간값(median)

Wolfson 지수의 산출식은 Wolfson(1994)를 토대로 하였다. 각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경준(2007)을 참조할 수 있다.

<표 5-9> 윗부분의 Wolfson 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06년 평균으로 볼 때 20개 업종 실제 부가가치 분포의 Wolfson 지수가 0.43, 한중 교역 효과 차감시 부가가치 분포의 Wolfson 지수가 0.39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 1.1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중 교역은 제조업 부가가치 분포를 토대로 한 양극화 지수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역시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분포를 양극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9> 한중 교역과 양극화 지수(제조업 20개 업종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6
Wolfson 지수	실제부가가치(A)	0.33	0.37	0.35	0.38	0.46	0.56	0.62	0.43
	한중교역 효과 차감 부가가치(B)	0.32	0.34	0.31	0.33	0.42	0.51	0.54	0.39
	A/B (%)	103.28	109.95	111.15	114.67	111.17	111.10	114.63	111.24
지니계 수	실제부가가치(A)	0.39	0.40	0.39	0.41	0.44	0.50	0.52	0.44
	한중교역 효과 차감 부가가치(B)	0.39	0.40	0.38	0.39	0.43	0.49	0.51	0.43
	A/B (%)	101.18	102.06	103.76	104.08	102.37	102.15	101.65	102.83

3. 주요 대응 산업군별 양극화와 한중 교역

다음으로 산업 간 양극화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부문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혹은 중화학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 등 서로 대비되는 산업군들 간의 성장률 격차를 통해서 한중 교역과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이나 양극화 지수를 통한 비교는 한중 교역이 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하나

의 지표를 통해 총체적으로 보여주지만, 구체적으로 양극화가 어떤 산업들 간에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의 측면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여기서 살펴보는 대응 산업군들 간의 성장률 격차를 통해 한중 교역과 산업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한중 교역이 대응 산업군들 간의 성장률 격차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교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 간의 격차 확대를 통해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내용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가 주요 산업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주로 교역재인 제조업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성장기여도에 비해 훨씬 높고, 제조업 내에서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높은 정의 값을 보이는 반면, 경공업 부문의 대부분 업종에서는 한중 교역이 負의 성장기여를 보이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주로 농림어업부문으로 구성된 1차 산업에 대해서는 한중 교역이 동부문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미친 반면, 비농림부문에 대해서는 정의 성장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같은 한중 교역 파급효과의 산업군별 격차는 대부분 해당 산업군들 간의 실제 성장 격차와 그 방향성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중 교역이 이들 산업군들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계는 산업군들의 실제 성장률 격차와 한중 교역이 해당 산업군들의 성장에 기여한 기여도의 차이를 비교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10>은 서로 대응되는 산업군 쌍에 대하여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의 차이가 양 부문의 실제 성장률 차이에 기여한 기여율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구한 기여율(각 표의 마지막 행의 수치)이 100%보다 작은 正

의 값을 갖는다면, 이는 한중 교역이 두 산업군의 성장 격차를 한중 교역 효과가 없었을 경우보다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⁷⁾ 즉 이 경우 한중 교역은 두 산업군 간 양극화(격차 확대)의 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표의 가장 마지막 행에서 제시된 수치는 바로 한중 교역의 양 산업간 격차 확대에 대한 기여율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동 기여율이 負의 값을 갖는다면, 한중 교역이 양 산업군의 성장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즉 양극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여율이 10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한중 교역 성장기여도의 산업 간 격차가 한중 교역이 없었을 경우의 산업 간 성장률 격차를 압도하여 산업 간 격차가 역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표에서 보듯, 한중 교역은 2000~06년 평균으로 제조업·서비스 간 성장격차에 약 41%, 중화학·경공업 간 격차에 약 32%, 농림·비농림 간 격차에 약 15%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중 교역은 그만큼 양 부문 간 성장률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교역에 의한 성장 격차 확대의 기여도는 중화학·경공업 부문 간에서 가장 크지만(2000~06년 평균 기여도 격차 약 3.9%p), 양부문 간 실제 성장률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여율은 제조업·서비스 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제조업·서비스 간 내지 중화학·경공업 간 격차에 있어서는 한중 교역 효과가 이들 산업군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간별 추이로 볼 때에는 2006년 들어 한중 교역의 무역수지 증가세가 대부분 업종에서 크게 둔화된 것을 반영하여 양극화에의 기여도 대체로

37) 반면 동 기여율이 負의 값을 갖는다면, 한중 교역이 양 산업군의 성장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즉 양극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여율이 10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한중 교역 성장기여도의 산업간 격차가 한중 교역이 없었을 경우의 산업간 성장률 격차를 압도하여 산업간 격차가 역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다만 중화학·경공업 간 격차의 경우는 경공업 부문에의 성장 위축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들어 오히려 한중 교역의 양부문 간 격차확대 기여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5-10〉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 차이와 산업부문간 성장률 격차

① 제조업·서비스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제조업(A)	1.93	4.45	2.73	12.39	14.48	8.78	7.35
	서비스(B)	5.22	8.73	1.44	1.74	3.31	4.29	4.09
	격차(A-B)	-3.29	-4.28	1.28	10.65	11.17	4.49	3.26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제조업(C)	0.50	1.20	3.33	2.03	3.17	-0.19	1.77
	서비스(D)	0.10	0.28	0.72	0.51	0.74	-0.03	0.44
	격차(C-D)	0.40	0.92	2.61	1.52	2.43	-0.16	1.34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12.29	-21.48	203.35	14.26	21.76	-3.64	40.99

② 중화학·경공업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중화학(A)	3.34	4.33	4.21	14.74	16.84	9.79	8.75
	경공업(B)	-6.25	5.21	-6.66	-4.23	-5.48	-1.79	-3.28
	격차(A-B)	9.59	-0.88	10.88	18.97	22.32	11.58	12.03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중화학(C)	0.74	1.72	3.84	2.64	3.71	0.13	2.30
	경공업(D)	-0.86	-2.09	0.12	-2.31	-1.38	-3.54	-1.56
	격차(C-D)	1.59	3.81	3.71	4.96	5.09	3.67	3.85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16.61	-433.35	34.15	26.12	22.79	31.68	32.04

③ 농림·비농림 부문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06
실제성장률	1차산업(A)	2.19	-2.82	-4.23	6.12	0.20	-1.26	-0.02
	비농림(B)	4.04	7.22	1.88	5.42	7.42	6.05	5.32
	격차(A-B)	-1.85	-10.04	-6.12	0.71	-7.22	-7.32	-5.35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1차산업(C)	0.03	-0.76	-0.05	0.66	-1.57	1.43	-0.05
	비농림(D)	0.21	0.51	1.36	0.85	1.35	-0.09	0.78
	격차(C-D)	-0.17	-1.27	-1.41	-0.19	-2.91	1.52	-0.83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9.29	12.66	23.11	-26.46	40.36	-20.80	15.51

4. 기업 간 양극화와 한중 교역 효과

산업 부문 간 양극화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물경제 부문의 양극화를 논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이다. 기업 간 양극화는 산업 간 양극화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그 배경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산업별로 대기업형 업종 혹은 중소기업형 업종과 같은 식으로 특정 규모 범주의 기업이 지배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산업 간의 격차 변화는 기업 간 격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한중 교역의 산업별 효과 격차가 기업 간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얻어지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대·중소기업 구성비를 위에서 구한 한중 교역의 산업별 효과 추정치와 접속하여 한중 교역이 기업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업경영분석의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자료는 제조업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분석은 우리의 산업분류에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20

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아래 식(5-5)에 의해 구할 수 있고, 한중 교역이 중소기업 부문에 창출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같은 원리로 식(5-6)으로 구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여, 기업 부문별 부가가치 성장률과 기업 부문별 한중 교역의 성장기여도를 구한 것이 <표 5-11> 이다.

$$\text{중소기업 부가가치} = \sum S_i V_i \dots\dots\dots \text{식(5-5)}$$

(S_i : i 산업 부가가치중 중소기업의 비중, V_i : i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

$$\text{한중 교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 = \sum S_i VC_i \dots\dots\dots \text{식(5-6)}$$

(VC_i : i 산업에 대한 한중교역의 부가가치 유발액)

표에서 보듯 2000~06년 간의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성장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p 이상 높은 실적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내지 불균형 문제는 한국경제에서 흔히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하나란 점에서, 2000년 이후 성장추이에서도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은 동 기간 중 양부문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 한중 교역 효과 역시 대기업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아, 한중 교역이 기업부문간 양극화에 있어서도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에 대한 한중 교역 효과의 기여율은 약 28% 정도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한중 교역의 수혜효과가 상대적으

로 작은 서비스 부문이나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산업과 서비스 부문을 포괄한다면 기업 간 양극화에의 기여효과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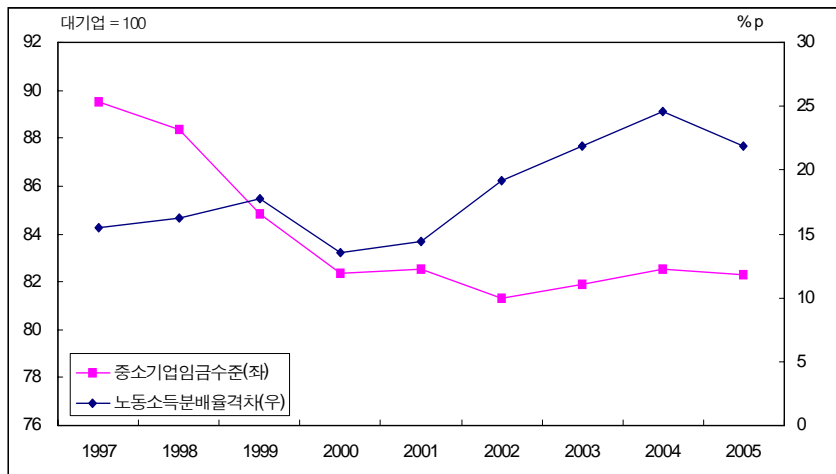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한중 교역 효과와 기업 간 양극화의 관계는 한중 교역 효과의 수혜업종에 대기업형 업종이 많고(중화학 공업 등), 반대로 교역 효과가 작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업종(예컨대 경공업)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 관계는 한중 교역 효과가 산업 간 양극화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로 이어지는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해당 기업의 노동자나 경영진 모두 일반적으로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고, 또한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그림 5-6] 참조), 기업 간 양극화는 어느 정도 소득 계층 간 양극화와 연결될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이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고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분배율을 낮추고 양 부문 종사자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관계는 더 나아가 한중 교역 효과가 산업 간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를 거쳐 소득 양극화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표 5-11〉 한중 교역과 대·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06
실제성장률	대기업(A)	1.10	9.31	0.83	20.13	10.17	9.46	9.28
	중소기업(B)	-0.01	-0.22	5.93	-0.21	22.91	7.07	7.15
	격차(A-B)	1.11	9.54	-5.10	20.33	-12.74	2.39	2.13
한중교역의 성장기여도	대기업(C)	0.66	1.68	3.29	2.78	2.64	0.41	1.91
	중소기업(D)	0.26	0.50	3.38	0.79	4.18	-1.26	1.31
	격차(C-D)	0.40	1.18	-0.09	1.99	-1.54	1.67	0.60
한중교역의 양극화 기여율		35.77	12.39	1.67	9.78	12.10	70.01	28.33

[그림 5-6] 대·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노동소득 분배율 격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제6절 소결

위에서 살펴본 추정결과는 한중 교역이 2000년 이후 그 산업별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들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격차 확대에 대한 기여율의 크기로 볼 때 한중 교역은 최근의 산업 간 양극화의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는 기업 간 양극화에도 일정 수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업 간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한중 교역은 산업 및 기업 간 양극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에도 부분적이거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중 교역이 최근의 양극화 현상에서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할 때,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향후 한중 교역의 변화와 더불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중 교역에 의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응의 필요나 여지가 존재하는가 하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 두 가지 이슈를 간략히 짚어보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먼저 향후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중 교역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05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2006년에는 정체상태로 돌아섰고 2007년 들어서도 최근까지의 실적을 통해 볼 때 정체 내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을 나누어 보면 수출증가율은 과거 수년간에 비해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된 반면, 수입증가율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전체 교역규모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규모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한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가 예컨대 대중국 진출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 본격화 등에 따른 구조

적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대중국 무역수지 규모의 향후 변화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과거의 추세와 대비한 개략적인 변화의 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현시점에서 우선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중국 무역흑자규모가 앞으로 전체 내지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년 이후 보였던 것 같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급증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이미 2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양국간 교역으로서는 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최근 중국의 주요 산업에서의 급속한 캐치업 추이를 고려할 때 전체 한중 교역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더라도 무역흑자 규모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 등에 근거한다.

다음으로는 교역의 산업별 내용과 관련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중국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구조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산업 부문에서도 중국은 비교적 빠른 캐치업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양국 수출 간의 경합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최근 중국의 빠른 산업성장세는 일정 부분 과잉투자 등에 기초한 과열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주요 산업에서 한중 간 격차가 축소되고 한국의 주력업종에서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변화는 모두 한중 교역의 산업 양극화 심화 효과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예상되는 한중 교역의 변화 추이는 산업 양극화에 대한 한중 교역의 기여를 지금까지에 비해 줄

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중 무역흑자 증가세의 둔화는 한중 교역의 주요 수혜업종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감소시켜 관련 산업군 간 성장기여도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교역의 산업구조변화는 기존의 중화학업종 중심의 수출특화 산업군과 농수산 및 경공업 중심의 수입특화 산업군간의 기여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화학업종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1차 산업이나 경공업에서 수입특화를 보이는 기본구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산업군간의 수출입특화의 차이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산업군간 성장기여도 격차는 위에서 살펴본 것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2000년대 초반의 기간은 한중 교역의 급성장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중 교역은 1990년대 초 한중 수교와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총교역의 급성장과 더불어 대중 무역흑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한중 간에 수출산업의 구조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산업군별로 수출입 특화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런 만큼 이 시기 한중 교역의 급증은 산업군별로 대조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산업 양극화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향후에는 앞으로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한 한중 교역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양국 간 교역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역규모나 특히 무역흑자의 증가세는 최근 수년간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중국의 수출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 간의 경합도가 높아지

면서 산업군별 수출입 특화의 차이도 과거에 비해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어느 편이나 한중 교역의 산업양극화 효과가 전체적으로 과거 수년간에 비해 앞으로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교역의 양극화 심화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한중 교역에 의한 양극화 효과는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과 달리 지속성을 갖고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구조변화와 비슷한 측면을 갖는다. 대외 교역을 할 때 비교우열위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산업과 불이익을 보는 산업이 존재하고 따라서 교역의 확대가 산업별 격차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외 교역을 포기하기 않는 한 한중 교역의 확대에 따라 그 파급효과로서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된다면 이는 어느 정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 교역에 의해 불이익을 보는 산업의 경우 원론적으로 본다면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들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든지 혹은 해당 업종 내에서의 구조고도화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시장메카니즘의 틀 내에서 민간 경제주체들의 적응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로는 양극화에 대응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 내지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이다. 소위 조정지원 (adjustment assistance) 정책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나 기타 법적 측면 등에서의 지원을 통해 특정 부문의 사업전환이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업 양극화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산업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양극화 현상 속에서 뒤처지는 산업의 구조변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극화 현상 자체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 현상 속에서 뒤처지는 산업 부문이 특정 (낙후)지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거나 심각한 고용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회경제적 비용의 완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교역의 결과로 불이익을 보는 산업 부문이 경제 전체에 대해 외부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어, 해당 산업의 교역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산업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니지만, 교역의 결과 특정 산업이 타격을 입을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로 되는 경우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는 한중 교역의 경우라면 농업 부문이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식량 안보의 차원이나 지역 격차 완화, 혹은 그린 인더스트리(green industry)의 측면에서 농업이 소득 창출 이외의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대해 외부효과를 갖는다면, 한중 교역에서의 농업의 개방 정도를 일정 수준 제한하면서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호정책의 필요성이나 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산업의 외부효과 존재와 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되지만, 많은 경우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정확한 분석결과의 산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극화와 관련된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산업 간

양극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 간 격차 확대 그 자체라기보다는 산업 양극화가 예컨대 기업 간 양극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는 측면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책 대응은 첫째로는 산업 간 양극화 그 자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산업 양극화가 기업 혹은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는 경로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위에서 이미 논의한 산업간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 내에서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 양극화의 문제를 산업 간 양극화 및 기업 간 양극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한중 교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 간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발견되었다. 또한,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 산업 간 생산성의 격차가 일부 확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수익성의 격차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1991년에 대기업의 48.6% 수준에서 2004년에 31.4%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익성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2000년대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좀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로만 보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1990년대처럼 심각하지 않다.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 수준은 2000년대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에 일정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이 시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실물적 요인인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현실의 수익률 격차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비경제적인 요인 및 거시적, 정책적 차이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산업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한중 교역의 효과도 분석하였다. 한중 교역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중국 효과가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한중 교역은 2000~06년 간 평균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의 약 2.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동 기간 중 산업성장에 약 0.7%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내에서 중화학부문, 특히 기계류 업종에 큰 폭의 부가가치창출 및 성장기여효과를 보였고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와 성장에도 일정한 기여를 보인 반면, 경공업 부문이나 1차 산업 부문에는 적지 않은 負의 효과를 미쳐 산업별로 대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중 교역 파급효과의 산업별 차이는 산업(군)들간의 실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동 기간 중 산업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교역 파급효과는 4대 대분류 산업부문과 33개 세부업종의 성장률 분산을 각각 약 2배, 1.3배 확대시키고, 중화학-경공업, 제조업-서비스 산업 간의 성장률 격차 확대에 각각 41%, 32%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별 파급효과에 각 산업의 대·중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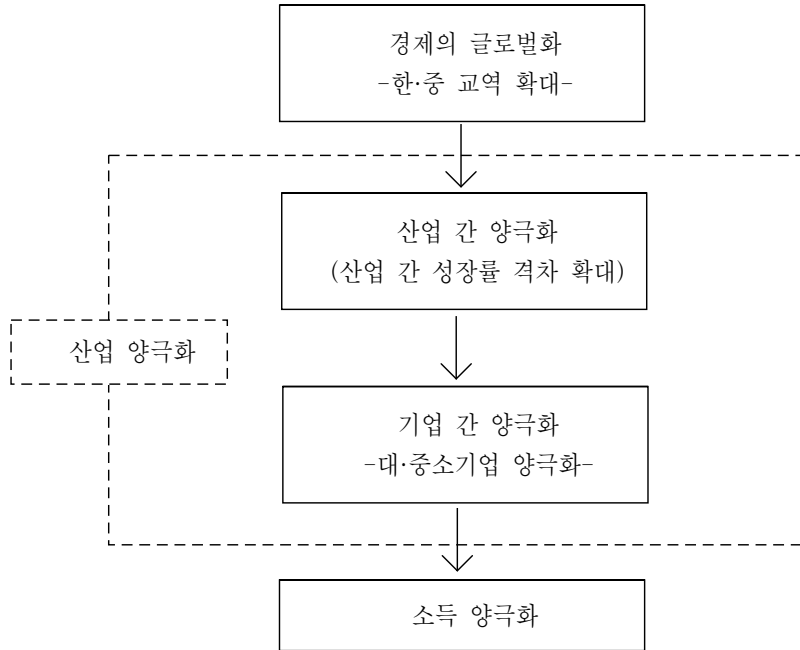
업 부가가치 비중을 접속하여 추정한 결과, 한중 교역 파급효과는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확대에도 약 28% 정도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 간 양극화 현상을 생산성과 수익성 격차에 따라 생산요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업종 비중이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흔히 산업구조조정으로 불리는 것으로 그 자체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에서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산업 간 양극화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이 이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에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첫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역량의 강화를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셋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림 6-1]은 본 보고서의 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 구조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6-1] 본 보고서의 산업 양극화에 대한 논의 구조



산업 양극화의 현상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자원이 이동해야 업종 간 격차가 감소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청되고 신속한 자원이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저렴한 생산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활발한 혁신활동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는 새로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유리한 기업환경이 요구되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제개발 시기에 하도급거래 확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불균등한 대·중소기업 관계가 지금까지 양자 간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여건 하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장기적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향상으로 호응하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력의 격차에 힘입은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납품단가 결정 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며, 불공정 거래관행도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고착화 혹은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기여도가 낮다는 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대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투자의 양극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두용(2006),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중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6. 5), 「양극화 선행연구 요약 보고서」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곽승영(1997. 6), “한국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KIET세미나자료, 산업연구원
- 김동석(2005),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 김인철·민성환(2003),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 2003-129, 산업연구원
- 김원규·배미경(2004), “혁신주도형 경제와 총요소생산성”, 「e-kiet산업경제정보」, 제214호, 산업연구원
- _____ (2004), “총요소생산성의 요인 분석과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제218호, 산업연구원
- 김원규·이경숙(1998), 「총요소생산성과 경쟁력」, 「산업연구」, 제4집 제1호, 산업연구원, pp. 37~56
- 김정언 외(2006), 「IT산업의 양극화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 06-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주훈 편(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 연구보고서 2005-05,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정(2006), 「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2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홍중 외(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정책자료 0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혜선(2006), 「기업 R&D의 양극화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민희철(2005), “IT부문과 비IT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대책”,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중해 편(2004. 12),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2)』, 한국개발연구원,
- 양현봉(2005. 6),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동추이 비교분석”,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이홍직, 장준영(2007. 7), “산업간 생산성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정연승, 성백남, 이원영(2004),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 제조업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론적 접근』, 중소기업연구원
- 정진화·김원규(1999. 3),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총요소생산성』, 산업연구원
- 조덕희(2005),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정책자료 2005-22, 산업연구원
- 조영삼(2005),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구조 고도화 방안』, 정책자료 2005-23, 산업연구원
- 주현, 조덕희(2006),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6-41,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통계』, 2007. 10.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각년도.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 _____,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 _____,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07. 9.
- _____, “2006년 기준 광업 · 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 2007. 10.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 한국신용평가정보, www.kisline.com
- Ahearne, A. et al(2003), "China and Emerging Asia : Comrades or Competitors?"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no.789, Federal Reserve System
- Boltho, A.(2004), "China - Can Rapid Economic Growth Continue?"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49(2)
- Cabral, Luis M. B, and Jose Mata(1992), "On the Evolution of the Firm Size Distribution: Facts and Thoery," *American Economic Review*, 82(2)
- Eichengreen et al.(2004), "The Impact of China on the Exports of Other Asian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1076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4), "China's Emergence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orld Economic Outlook*
- _____(2004), *China's Growth and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 Prospects and Challenges, Occasional Paper 232, 2004.

Krugman, Paul(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OECD(200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Pyo, Hak K. and Bongchan Ha(2006), "The Estimation of Potential GDP
in Korea; A Review," presented at a seminar organized by Asia
Pacific Division of IMF, Washington DC, February

Young, A.(2000), "Gold into Base Metals : Productivity Growt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NBER
working paper 7856*

